

한국고대사학회 제191회 정기학술발표회

전북 지역의 고대사

중심과 변경, 경계를 넘어

일시: 2024년 6월 8일(토) 13:30~18:00

장소: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최명희홀

주최: 한국고대사학회·전북사학회

후원: 전북학연구센터·전북대학교 사학과

전북 지역의 고대사 -중심과 변경, 경계를 넘어

한국고대사학회 제191회 정기학술발표회

- 일시 : 2024년 6월 8일(토) 13:30~18:00
- 장소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최명희홀
- 주최 : 한국고대사학회·전북사학회
- 후원 : 전북학연구센터·전북대학교 사학과

사회: 김병남(전북대)

[인사말]

13:30~13:40

개회사: 정재운(한국고대사학회 회장, 공주대)

- 1부 -

[제1주제]

13:40~14:10

백제 증방성과 지방지배

발표: 백미선(충남대)

[제2주제]

14:10~14:40

익산 지역의 성곽 유적과 도시 공간

발표: 김재범(육군박물관)

[휴 식]

14:40~14:50

[제3주제]

14:50~15:20

고대 전북의 해양신앙과 불교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을 중심으로

발표: 신선혜(호남대)

[제4주제]

15:20~15:50

후백제사의 몇 가지 문제

발표: 박수정(동서대)

[휴 식]

15:50~16:00

- 2부 -

[종합토론]

16:00~18:00

좌장: 조법종(우석대)

토론: 이문형(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김영심(한국외대)

진정환(국립익산박물관), 홍창우(전남대) 및

발표자 전원

1. 머리말
2. 고사부리성에서 방성 고사성으로
3. 중방의 성립과 중방성
4. 백제의 5방제와 중방
5. 맺음말

1. 머리말

사비시대 백제는 5방을 두어 지방 지배를 하였다. 사료가 적은 백제사에서 사비시대의 지방 통치제도로서 5방제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이에 5방제에 대한 연구는 백제지방통치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도사적인 차원에서 5방제의 구조와 운영 양상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이후에는 5방성의 위치 비정과 범위의 비정을 통해 5방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복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백제의 지방관에 대한 관심은 백제사 속에서 5방제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최근에는 5방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방성에 대한 위치 비정은 일찍이 이뤄졌지만, 재고의 여지가 없는지 다시 검토되었다. 이 과정에서 방성으로 비정된 지역들에 대한 역사지리적 검토가 활발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문헌사 뿐 아니라 고고학 연구 성과 역시 충분히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방성의 위치 뿐 아니라 방의 권역을 구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방성의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5방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가능해졌다.

5방 가운데 중방에 대한 검토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제의 벽골제와 고사부리성에 대한 발굴 및 새로운 검토를 통해 중방문화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던 것이다.¹⁾ 부여 관북리 목간에서 ‘中方向’이 판독되었고,²⁾ 고사부리성에서는 ‘上卍上巷’명 인각와가 발견되어 관심을 고무시켰다.³⁾ 특히 백제 중방성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이뤄졌다.⁴⁾ 그 지리적 입지를 통해 중방은 방 사이를 연결하여 지방통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거나,

1) 최완규, 『김제 벽골제와 백제 중방성』 『호남고고학보』44, 2013 및 『전북지역 고대문화와 사회』, 2023, 서경문화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정읍 고사부리성-종합보고서(1~5차 발굴조사)-』, 2013.
 정읍시립박물관 제5회 기획특별전, 『백제의 중방문화 고사부리성에서 찾다』, 2013, 정읍시립박물관-전북문화재연구원.
 김제시·(재)전북문화재연구원, 『김제 벽골제와 백제의 중방문화』, 2016.

2) 김영심, 『백제의 지방통치에 관한 몇 가지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48, 2007 및 『백제의 지방행정과 목간』 『문자와 고대한국』1, 2019 ; 윤선태,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2007, 주류성.

3) 심상욱, 『백제 인각와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5, 2010.
 이문형·이다운, 『정읍 고사부리성 출토 「상부상향」명 인각와에 대한 연구』 『중앙고고연구』28, 2019.

4) 이도학, 『백제의 지방통치와 중방성』 『김제 벽골제와 백제의 중방문화』, 2016 ; 김근영·정재윤, 『백제의 중방성 설치와 그 의미』 『마한·백제문화』33, 2019 ; 김영심, 『백제 중방성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마한·백제문화』33, 2019 ; 지원구, 『백제의 호남지역 경영과 5방체제』 『전북사학』68, 2023.

남방지역의 경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밝혀질 수 있었다.

다만, 백제의 지방통치사 속에서 중방의 의미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⁵⁾ 중방 및 중방성과 관련한 사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중방성의 설치 과정과 성격 변화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최근 彈耶方 목간 등 방과 관련한 사료의 발견과 재검토는 방제의 성립 과정을 새롭게 바라볼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⁶⁾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 중방과 5방제의 관계 또한 다르게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방통치의 변화 속에서 고사부리성이 방성 고사성으로 변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방에 속했던 지역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방성인 고사성이 중방의 치소인 중방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중방의 설치 배경과 역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백제의 5방제에서 중방이 갖는 의미와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고사부리성에서 방성 고사성으로

A-1. 백제는 동서로 450리이고 남북으로 9백여 리이다. 도성은 固麻城이다. 그 밖에 다시 5방이 있다. 中方은 古沙城, 東方은 得安城, 南方은 久知下城, 西方은 刀先城, 北方은 熊津城이라고 한다(『주서』백제전).

A-2. 그 도성은 居拔城으로 固麻城이라고도 부른다. 지방에는 또 5방이 있다. 中方은 古沙城, 東方은 得安城, 南方은 久知下城, 西方은 刀先城, 北方은 熊津城이라 한다(『북사』백제전).

사료 A는 백제의 5방에 대해서 전한다. 사료에 따르면, 백제의 도성은 고마성 혹은 거벌성이었고, 지방에 또 5방을 두었다고 한다. 5방은 中方, 東方, 南方, 西方, 北方으로 방위명을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중방은 5방 가운데 가장 앞서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치소인 方城은 古沙城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 古沙城은 『삼국사기』의 古沙夫里 혹은 古泗와 같은 곳으로, 지금의 고부지역으로 비정된다.⁷⁾

사료 A의 『주서』는 중국 북주(557~581) 시기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위 내용은 백제 사비시기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사』의 경우 북위부터 수나라에 이르는 북조 국가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사료 A-2의 내용은 A-1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같은 시기의 내용으로 이해된다. 다만, 당시 도성을 固麻城 혹은 居拔城은 곧 고마성이라고 하여 혼란을 주고 있기도 하다. 고마성은 일찍이 백제가 도성을 두었던 웅진 곧 공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지적되었다.⁸⁾ 이에 『주서』에 고마성이 언급된 것은 백제의 5방이 웅진시대부터 계획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⁹⁾ 그러나, 사료 A에서 백제의 북방으로 웅진성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사료는 백제 사비시기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¹⁰⁾ 사료 A를

5) 김주성, 「백제 지방통치조직의 변화와 중방성」 『백제문화』55, 2016.

6) 김영심, 앞의 논문, 2007 ; 윤선태, 「신출자료로 본 백제의 방과 군」 『한국사연구』163, 2013.

7) 今西龍, 「百濟五方五部考」 『百濟寺研究』, 1937, 近澤書店, 290쪽 ; 천관우, 「마한제국의 위치 시론」 『동양학』9, 1979, 13쪽 ; 전영래, 「백제 지방제도와 성곽」 『백제연구』19, 1988, 31쪽 ; 김영심, 「5~6세기 백제의 지방통치체제」 『한국사론』22, 1990, 102~103쪽 ; 박현숙, 「백제 사비시대의 지방통치체제연구」 『한국사학보』1, 1996, 297~298쪽.

8) 이흥직, 「양직공도논고」 『한국고대사의 연구』, 1973, 신구문화사, 404~405쪽.

9) 김영심, 앞의 논문, 1990, 70~71쪽.

10) 박현숙, 앞의 논문, 1996, 292~293쪽.

통해 백제가 사비시대에 5방을 두었고, 그 가운데 중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료 A를 통해서도 중방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행히도, 고사성 곧 고사부리성에 대한 사료는 그 과정을 검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B-1. 8월에 원산과 금현의 두 성을 수리하고, 古沙夫里城을 쌓았다(『삼국사기』23, 백제본기 1, 온조왕 36년).
- B-2. 봄 3월 荒田別과 鹿我別을 장군으로 삼아 久氐 등과 함께 군사를 정비하여 (바다를) 건너가 卓淳國에 이르러 신라를 습격하려고 하였다. 이때 어떤 사람이 “병사의 수가 적어서 신라를 깨뜨릴 수 없으니 다시 沙白과 蓋盧를 보내 군사를 늘려달라고 청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곧 木羅斤資와 沙沙奴跪[이들 두 사람은 그 성을 알 수 없다. 다만 목라근자는 백제의 장군이다]에게 명하여 정에 병사를 이끌고 사백개로와 함께 보냈다. 모두 탁순에 모여 신라를 쳐서 깨뜨렸다. 이어 比自炆, 南加羅, 喙國, 安羅, 多羅, 卓淳, 加羅 등 7국을 평정하였다. 이에 군사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古奚津에 이르러 南蠻 枕彌多禮를 도륙하여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그 왕인 肖古와 왕자인 貴須가 또한 군사를 이끌고 와서 모였다. 이때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이 자연스럽게 항복하였다. 이리하여 백제왕 부자와 황전별, 목라근자 등이 함께 意流村[지금의 州流須祇이다]에서 만나 서로 보고 기뻐하며, 답례를 후하게 하여 보냈다. 오직 千熊長彦만 백제왕과 백제국에 이르러 辟支山에 올라 맹서하고, 다시 古沙山에 올라 반석 위에 함께 앉았다. 이때 백제왕이 맹서하기를 “만약 풀을 깔고 앉으면 불에 탈 염려가 있습니다. 또 나무를 깔고 앉으면 홍수에 쓸려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에 앉아 맹서하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지금부터는 영원토록 끊임없이 서쪽의 번국임을 칭하며 봄·가을로 조공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천웅장언을 데리고 도읍 아래 이르러 예우를 두텁게 하였으며, 또한 구저 등을 딸려 보냈다(『일본서기』9, 신공황후 49년).

사료 B는 백제의 고부지역 진출 관련 사료이다. B-1은 백제 온조왕 36년(18) 원산성과 금현성을 수리하고 새로 고사부리성을 쌓았다는 내용이다. 이때 고사부리성에서 ‘夫里’는 ‘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사부리성은 고사성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원산성과 금현성은 온조왕 26년(8) 백제가 마한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곳으로 확인된다.¹¹⁾ 이에 온조왕 36년의 내용은 백제가 원산성과 금현성마저 함락시키고 마한을 모두 정벌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사부리성을 쌓아 지배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기년을 그대로 온조왕 36년(18)의 사실로 보기는 어렵지만, 백제가 마한을 정벌하는 과정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이해된다.

사료 B-2는 『일본서기』 신공황후 49년(249)의 기사이다. 『일본서기』 신공황후조의 기년은 조정이 필요한데, 사료에서 백제왕 초고와 왕자 귀수가 확인되므로 백제 근초고왕대(346~374)의 일로 보고 있다. 왜와 백제는 함께 비자발 등의 7국을 정벌하고, 다시 남만 침미다례를 도륙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比利 등의 읍이 백제에게 항복하고 있다. 이때 7국과 침미다례의 정벌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비리 등이 백제에게 항복한 것은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읍명 중에 古四가 확인되고,¹²⁾ 왜와 백제가 함께 맹서한 곳으로 古

웅진시기와 사비시기의 내용을 모아서 적어 놓았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김영심, 앞의 논문, 70~71쪽). 그러나, 이 경우 과연 웅진시대의 방제는 어떠했는지, 사료를 통해서 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11) 冬十月 王出師 陽言田獵 潛襲馬韓 遂并其國邑 唯圓山錦峴二城 固守不下(『삼국사기』23, 백제본기1 온조왕 26년)

12) 『일본서기』 신공황후 49년조의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은 비리, 벽중, 포미지, 반고의 4읍으로 보거나(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1976, 박영사, 512~513쪽), 비리, 벽중, 포미, 지반, 고사의 5읍으로

沙山이 보인다. 사료 B-2는 근초고왕대 고사 지역이 백제의 영역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4세기 백제가 지방지배를 위한 축성을 본격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료 B를 통해 고사 지역의 영역화 과정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B-2는 백제가 고사 지역 등 마한을 정벌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B-1은 이후 백제가 보다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 고사부리성을 축성한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¹³⁾

하지만 이후 고사부리성 관련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사비시대 중방성인 고사성 이전에 이 지역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4세기 이후 백제의 지방통치체제가 담로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고사부리성 역시 담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¹⁴⁾ 담로란 ‘성’ 혹은 ‘성읍’을 의미하는 것으로,¹⁵⁾ 성을 통한 통치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백제의 지방 단위로서 『광개토왕비』 등에서 城과 村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담로란 거점이 되는 성이 여러 성과 촌을 관할하는 형태였다고 이해된다. 고사부리성 역시 지방통치의 거점으로서 인근의 성과 촌을 관할하였을 것이다.¹⁶⁾ 다만, 백제 한성시대 고부 지역의 축성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워서, 고사부리성의 구체적인 위치는 알기 어렵다.¹⁷⁾

이때 담로인 고사부리성에는 지방관 道使가 파견되었을 것이다.¹⁸⁾ 담로에 어떤 지방관이 파견되었는지 사료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관 도사가 삼국 모두에서 확인되어 주목된다. 아울러,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모두 가장 처음으로 파견된 지방관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⁹⁾ 최근 능산리 사지에서 발견된 목간에서 도사가 확인됨에 따라, 백제에서도 사비시대 이전부터 지방관 도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도사 목간의 성립 시기는 그 발굴 위치로 보아 웅진시대로까지 소급이 가능한데,²⁰⁾ 당시 백제는 담로를 중심으로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으므로, 도사는 담로의 지방관으로 볼 수 있겠다.

이후 고사 지역은 새롭게 州로 편제되는 모습이 보인다.

C. 古泗州는 본래 古沙夫里로서 5縣. 平倭縣은 본래 古沙夫村이다. 帶山縣은 본래 大尸山이다. 辟城縣은 본래 辟骨이다. 佐贊縣은 본래 上杜이다. 淳牟縣은 본래 豆奈只이다(『삼국사기』37 잡지6 웅진도독부 소속 주·현).

사료 C는 백제 멸망 이후 웅진도독부시기 당나라가 편제한 1도독부 7주 51현 가운데 고사주

보았다(천관우, 앞의 논문, 17~18쪽). 이 가운데, 본문에서는 사료의 내용 중 고사산이 확인되는 것을 고려하여 ‘고사’의 5읍으로 판독한다.

13) 『삼국사기』의 온조왕 36년조 기사와 『일본서기』의 신공황후 49년조 기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영심, 「백제 중방성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마한·백제문화』33, 2019, 9~13쪽 ; 김근영·정재윤, 「백제의 중방성 설치와 그 의미」 『마한·백제문화』33, 2019, 42~48쪽을 참고하였다.

14) 김주성, 「백제 지방통치조직의 변화와 중방성」 『백제문화』55, 2016, 47쪽 ; 지원구, 「백제의 호남지역 경영과 5방체제」 『전북사학』68, 2023, 86쪽.

15) 이병도, 「광주 풍납리 토성과 백제시대의 蛇城」 『진단학보』10, 1939, 162~163쪽.

16) 이기백, 「백제사상의 무령왕」 『무령왕릉-발굴보고서-』, 1973, 삼화출판사, 69쪽.

17) 고부지역에서 한성시기 백제의 물질문화는 찾아보기 어렵다(김근영·정재윤, 앞의 논문, 2019, 48쪽 ; 지원구, 앞의 논문, 2023, 89쪽). 한편, 은선리토성을 한성시대의 고사부리성으로 비정한 견해도 있다(이도학, 「백제의 지방통치와 중방성」 『김제 벽골제와 백제 중방문화』, 2016, 김제시·재단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63쪽).

18) 백제의 지방통치제도인 담로와 지방관 도사에 대해서는 김수태, 「백제의 지방통치와 도사」 『백제의 중앙과 지방』, 1997,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가 매우 참고되었다.

19) 여호규,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한국사연구』91, 1995 ;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연구』, 2005,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78쪽.

주보돈, 『신라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1998, 신서원, 188~189쪽.

20) 近藤浩一, 「부여 능산리 나성축조 목간의 연구」 『백제연구』39, 2004, 111쪽.

에 관한 내용이다. 이때 古泗는 사료 B의 고사부리 및 고사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州라는 새로운 지방단위로서 확인되는 것이다. 사료 C를 통해 고사주는 5개의 현을 거느린 광역의 지방단위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백제에서는 州制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내용은 백제의 지방통치체제 속에서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료 C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참고 된다. 『삼국사기』 웅진도독부 소속 주·현조의 기사는 백제 멸망 이후 당나라에 의해 재편된 것으로, 기존 백제의 지방통치체제와는 다른 것으로 이해되었다. 오히려 통일신라 이후 백제시기의 것이 어느 정도 복원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백제 목간의 발견으로 백제 당시의 지명이 웅진도독부 시기에도 그대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웅진도독부 시기 당나라는 백제의 지방통치체제를 반영하여 지방을 편제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²¹⁾ 여기에, 백제부흥운동시기 고사성을 중심으로 한 군사 활동이 활발한 것에도 주목하였다. 그것은 고사성을 중심으로 한 중방의 군사적 기반이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백제 고사성을 중방성으로 한 중방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백제 중방의 모습은 웅진도독부 시기 고사주로 남을 수 있었다고 보았다.²²⁾

이렇게 백제의 고부지역은 고사부리성을 중심으로 한 담로에서, 고사성을 중심으로 한 중방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 중방의 성립은 직접 통치의 확대로 기존 담로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담로에서 중방으로의 변화는 백제 지방통치체제의 변화 속에서 좀 더 충분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때 고사성은 지방관 도사의 파견지에서 방령이 파견된 곳으로, 담로의 치소에서 방의 치소인 방성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又有五方 若中夏之都督 方皆達率領之 每方管郡多者至十 小者六七 郡將皆恩率爲之 郡縣置道使 亦名城主(『한원』백제전).

『한원』 백제전에서는 지방관 도사가 확인된다. 方-郡-郡縣의 순서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 군현은 ‘군과 현’ 혹은 ‘군의 현’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군과 현’으로 볼 경우, 도사가 군과 현에 모두 파견되었다고 하였다.²³⁾ 군 가운데에는 군장이 파견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도사가 파견되는 곳도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군현에 앞서 군이 있으므로, 다시 군의 지방관을 중복해서 서술했을지 의문이다. 아울러 군과 현으로 단위가 다른 곳에 같은 지방관이 파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의 현’인 경우, 도사는 소성(현)에 파견된 지방관으로 볼 수 있다.²⁴⁾ 이 경우 ‘군현’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는 않으며, 사비시대 이전 도사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한원』의 군현은 군·현적인 성격을 모두 담아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21) 윤선태,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이야기』, 2007, 주류성, 210쪽 ; 박지현, 「웅진도독부의 성립과 운영」 『한국사론』59, 109~112쪽.

22) 김주성, 앞의 논문, 2016, 44~46쪽.

23) 武田幸男,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体制」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 1980, 48쪽. 이때 군은 군장이 파견된 군사관계를 담당한 곳과 도사가 파견된 행정을 담당한 곳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거나(김주성, 「백제 지방통치조직의 변화와 지방사회의 재편」 『국사관논총』35, 1992, 44쪽 및 앞의 논문, 2016, 42~43쪽), 정치적·군사적 중요도에 따라 군과 현으로 칭호가 달라진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이근우, 「백제의 방군성제 관련사료에 대한 검토」 『한국 고대의 고고와 역사』, 1997, 348~353쪽).

24)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1988, 일조각, 257쪽.

최근, 위 사료의 내용과 능산리사지 목간의 도사를 통해, 담로의 지방관을 도사라고 보았다(노중국, 『백제의 정치제도와 운영』, 2022, 일조각, 113~115쪽).

생각된다.²⁵⁾ 이를 통해 지방관 도사와 함께 지방통치조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서』 백제전에는 담로를 중국의 군현과 같다고 하였는데, 담로는 이후의 郡治이면서 행정성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점차 백제의 지방통치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관 도사의 파견 지역이 늘어나게 되고, 담로의 영역과 구조 역시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제 담로는 새롭게 지방통치 단위인 城으로서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도사가 성주로도 불렸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성주는 ‘성의 주인’을 의미하는 통시적인 의미의 명칭이라기 보다, 방-군-성제 아래의 지방관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 통치 단위인 성이 증가한 결과 새로운 지방통치 단위인 방과 군도 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담로의 변화는 지방관 군령과 성주의 파견을 통해서 더욱 촉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기』에서는 백제 성왕 21~22년(543~544) 任那의 下韓에 파견된 郡令과 城主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540년대 백제의 대가야관계 속에서 군령과 성주가 파견되고, 군과 성이라는 새로운 지방단위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⁶⁾ 그런데, 지방관 군령과 성주의 파견 시기는 좀 더 앞당겨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군령과 성주 모두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지방관으로서, 백제의 대외군사활동과 새로운 영역 확보에 따라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백제의 가야지역 진출은 무령왕 12년(512) 이후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령과 성주는 무령왕대에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들 군령과 성주는 백제와 가야 접경 지역 뿐 아니라, 고구려와의 접경 지역에도 파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²⁷⁾ 이러한 군령과 성주의 파견은 백제 담로제의 변화를 더욱 촉진시켰을 것으로 이해된다.

사료 C를 통해서 고사부리성의 달라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사료 C는 백제의 지방통치 단위를 당나라의 州·縣제에 맞추어 서술한 것이다. 여기서 縣은 실제 백제의 郡급에 해당하는 城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벽골이 碧骨郡으로, 대시산이 大尸山郡으로 확인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²⁸⁾ 고사주의 5현 가운데 平倭縣은 古沙夫村이라고 하였다. 곧 고사부리성이 고사부촌으로 재편된 것이다. 이때 촌의 성격은 행정(성)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사부리촌은 고사성이면서 고사주의 치성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기존에 담로제 하에서 중심이 되었던 고사부리성의 성격에 변화가 있었음을 반영해준다. 기존의 지역 사회를 백제 중앙의 입장에서 다시 편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의 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백제의 촌은 자연촌으로 이해되었다. 이미 성이 행정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²⁹⁾ 특히 금산의 백령산성 등에서 백제의 자연촌락이라고 볼 수 있는 단위가 늦게까지도 확인되고 있다.³⁰⁾ 백제의 촌은 자연촌으로서 지방통치의 말단 단위였던 것이다. 이는 신라의 경우 행정(성)촌이 지방통치단위로서 파악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사료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이 곧 촌으로 확인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백제의 촌 역시 지방통치체제의 변화 속에서 행정(성)촌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³¹⁾ 지방관 도사의 파견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25) 김수태, 「백제의 지방통치와 도사」 『백제의 중앙과 지방』, 1997, 215~217쪽.

26) 김수태, 「백제의 군령과 성주」 『백제문화』31, 2002를 참고하였다.

27) 백미선, 「웅진시대 백제의 성주」 『대구사학』131, 2018.

28) 『삼국사기』37 지리지4 백제 완산주의 주·군·현.

29) 김영심, 앞의 논문, 2007, 263쪽.

30) 이병호, 「금산 백령산성출토 문자기와의 명문에 대하여-백제 지방통치체제의 한 측면」 『백제문화』49, 2013, 82~84쪽.

31) 백제의 행정촌에 대해서는, 김수태, 「사비시대 백제의 자연촌」 『목간과 문자』29, 2022를 참고하였다.

의 성과 촌 역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료 C의 내용은 사비시대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 시기는 좀 더 앞당겨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웅진시대부터 백제에서는 촌에 대한 관심과 民에 대한 편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왕 11년(489)의 南海村人³²⁾과 23년(501) 馬浦村³³⁾ 등 촌의 모습이 확인된다. 이때의 촌은 모두 동성왕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언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위적으로 편제된 행정(성)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또한 무령왕 9년(509)에는 임나의 현읍에 살고 있는 백제백성을 괘출하여 다시 본관지로 옮기게 하였고,³⁴⁾ 무령왕 10년(510)에는 内外의 遊食者들에 대한 귀농조치를 실시하고 있다.³⁵⁾ 이러한 모습들은 백제가 백제민에 대한 파악과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편입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최근 고사부리성의 발굴과 고부 지역의 고고학 발굴 성과가 주목된다. 고사부리성의 발굴 결과 축성 시기는 처음 510년경으로 보기도 하였다. 아울러 고부 은선리고분군에서는 웅진 2식에서 사비식의 석실분들이 발견되고 있다. 웅진시대 백제의 적극적인 진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성벽 축조 방식 등에서 임나 지역의 성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주목되는 것은 백제의 고사부리성이나 은선리고분군 등은 고부지역에서 이전까지 마한계통 중심의 문화가 이어지던 곳과는 지역적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백제가 새롭게 고부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고사주의 관할에 속하게 되는 곳들에서도 확인된다. 역시 辟城縣이 주목되는데, 실제 명칭은 벽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벽성은 사료 B에서의 벽종과 같은 곳으로, 지금의 김제 지역으로 비정되고 있다. 벽성이란 명칭은 백제가 벽종을 축성을 통해 직접 통치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벽성은 벽골군으로서 郡治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벽골군 소속의 5개 현 중에는 武斤村縣이 확인되어, 역시 성(촌)의 재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산 역시 대시산군으로 3개의 현이 속해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도 井村縣이 보인다. 벽골군과 대시산군에 속한 모든 현이 행정성(촌)이었던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들을 통해 군-성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서 주목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백제 고사부리성에서 고사주의 고사성으로의 변화는 담로제를 중심으로 한 지방통치체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 지방관 도사를 중심으로 한 통치에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사성에는 새롭게 방령이 파견되고, 방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중방의 성립과 중방성

고사성을 중심으로 한 지방통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음의 사료는 방성과 그 지방관 방령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다.

D-1. 도성에는 1만 호가 거주하며 五部로 나누었는데, 上部·前部·中部·下部·後部로서 거느린 군사는 5백 명이다. 五方에는 각기 方領 1인을 두어 達率로 임명하고, 郡將은 3인

32) 秋 大有年 國南海村人 獻合穎禾(『삼국사기』26 백제본기4 동성왕 11년).

33) 十一月 獵於熊川北原 又田於泗泚西原 阻大雪 宿於馬浦村(『삼국사기』26 백제본기4 동성왕 23년).

34) 三年春二月 遣使于百濟(百濟本記云 久羅麻致支彌 從日本來 未詳也) 括出在任那日本縣邑 百濟百姓 浮逃絕貫 三四世者 竝遷百濟附貫也(『일본서기』17 계체천황 3년).

35) 春正月 下令完固隄防 驅内外游食者歸農(『삼국사기』26 백제본기4 무령왕 10년).

이 있으니 德率로 임명하였다. 方에서 거느리는 군사는 1천 2백 명 이하 7백 명 이상이었다. 城 내외의 백성들과 餘小城이 모두 여기에 예속되었다(『주서』백제전).³⁶⁾

D-2. 또 五方이 있는데, 중국의 都督과 같으며, 방은 모두 達率이 다스린다. 각 方은 郡을 다스리는데, 많은 것은 열 개에 이르고 적은 것은 예닐곱 개다. 郡將은 모두 恩率로 삼는다. 郡縣에는 道使를 두었는데, 또한 城主라고 하였다. (중략) 또한 나라 남쪽 260리에 고사성이 있는데 성은 사방 150보이며, 이것이 그 (나라의) 중방이다. 방은 병사 1,200인이 둘러싸고 있다. 나라 동남쪽 100리에는, 득안성이 있는데 성은 사방 1리이며, 이것이 그 (나라의) 동방이다. 나라 남쪽 360리에는 변성이 있는데 성은 사방 200보이며, 이것이 그 (나라의) 남방이다. 나라 서쪽 350리에는 역광성이 있는데 성은 사방 200보이며, 이것이 그 (나라의) 서방이다. 나라 동북쪽 60리에는 웅진성이 있는데, 일명 고마성이라고도 한다. 성은 사방 1리 반이며, 이것이 그 (나라의) 북방이다. 여러 방의 성은, 모두 산의 험함에 기대어 쌓았으며, 돌로 쌓은 것도 있다. 그 병사는 많은 것은 1,000인, 적은 것은 700~800인이다. 성 가운데 호가 많은 것은 500가에 이른다. 諸城의 좌우에는 또한 각각 小城을 □□했는데, 모두 각 방이 통솔한다(『한원』백제전).

사료 D는 백제 5방에 대한 『주서』와 『한원』의 내용이다. D-1에서는 5방의 방성에는 방령 1인을 두고 군에는 군장 3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방에서 거느리는 군사가 1,200명~700명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D-2에서는 방이 군을 다스린다고 하여 방과 군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방, 군에 이어 도사가 파견되었던 군현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시기 군현은 방과 군에 이어 성주가 파견되는 성이었다. 그리고 나라 곧 도성으로부터 오방이 위치한 방향과 거리 및 방성과 관할하는 군사의 규모를 전하고 있다.

사료 D를 통해서 방과 군 그리고 성 간에는 일정한 영속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D-1에서는 직접 방과 군의 관계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료의 마지막에 ‘城 내외의 백성과 餘小城이 모두 여기에 예속되었다’고 하였다. 『주서』에서는 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백제의 지방단위를 城으로 표기한 예도 찾을 수 없어서 알기 어렵다. 다만, 내용상 방을 주어로 하고 있으므로, 방과 성의 영속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의 성은 군과 성 단위를 모두 일컫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료 D-2에서는 ‘諸城의 좌우에 小城을 두었고, 모두 方이 통솔한다’고 하였다. 이때 제성은 군을 소성은 성 단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모두 방에 영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³⁷⁾

하지만 방이 처음부터 광역 단위의 지방통치단위로서 군과 성을 통할하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는 임나의 하한에 파견된 군령과 성주의 모습을 통해서도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군령과 성주만 확인될 뿐 방령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방과 군의 설치 순서를 밝히기도 하였다. 군이 방보다 먼저 설치되었기에, 방령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⁸⁾ 그러나 최근 오방과는 또 다른 성격의 방이 확인되어, 방제의 성립 과정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牟氏

E-1. ■道使□□次如逢小吏猪耳其身者如黑也 道使□□彈耶方
牟祿祿耶(능산리목간)³⁹⁾

36) 五方各有方領一人 以達率爲之 郡將三人 以德率爲之 方統兵一千二百人以下 七百人以上 城之內外民庶及餘小城 咸分隸焉(『주서』백제전)

37) 방과 군, 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김영심, 앞의 논문, 1997, 99쪽을 참고하였다.

38) 김수태, 앞의 논문, 2002, 144~145쪽.

39) 판독은 近藤浩一, 앞의 논문, 2004, 92쪽 ; 윤선태,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2007, 주류성,

E-2. 이해 백제가 漢城과 平壤을 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신라가 한성에 들어가 살았으니, 현재 신라의 牛頭方·尼彌方이다(지명은 자세하지 않다). (『일본서기』19, 흥명천황 13년)

사료 E는 백제의 오방과 다른 성격의 방으로 주목된다. 사료 E-1은 능산리사지에서 발견된 목간으로, 여기에는 彈耶方이 확인되는 것이다. 목간에는 백제의 지방관 도사가 2차례 언급되고 있다. 도사의 앞에는 그가 파견된 지방이 쓰여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탄야방 역시 백제의 지방단위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언급된 牟氏와 牟祿祿耶는 탄야방의 주민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사료 E-2에서는 牛頭方과 尼彌方이 보인다. 사료는 551년 백제의 성왕이 신라의 진흥왕과 함께 고구려에게 상실하였던 한성과 한강유역을 공략하여 회복하였다가, 552년 백제가 한성과 평양을 버리고 신라가 한성에 진출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는 신라의 우두방과 니미방이라고 하였지만, 신라에서는 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백제 때 사용하던 명칭을 신라에서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⁴⁰⁾

이때 방 앞의 ‘탄야’와 ‘우두’, ‘니미’는 지명으로 방성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오방과 같이 광역의 범위를 관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탄야방에 소속된 牟氏와 牟祿祿耶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만약 방이 군과 성을 통할하였다면, 이들은 방에 영속된 군 혹은 성의 소속으로 표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⁴¹⁾ 우두방과 니미방의 경우, 백제가 회복한 6군에 해당한다고 보아, 오방제 하의 방과 군의 관계와 동일한 지방행정체제로 보기도 한다.⁴²⁾ 그러나 사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두방과 니미방은 한성에 위치한 방으로서, 백제가 회복한 6군과는 구분되는 지방단위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⁴³⁾

이와같이, 사료 E에 보이는 탄야방과 우두방·니미방은 오방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다. 사료 E-1의 능산리목간은 사비의 동나성이 축조되는 527년경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료 E-2는 552년의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520년대~550년대에는 오방과는 다른 성 단위의 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방의 성격은 우두방과 니미방의 위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우두방과 니미방은 백제 성왕이 한성을 수복하고 설치한 것이다. 이때 우두방과 니미방의 위치는 고구려의 남진을 방어하는 한편, 신라도 견제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인 요충지에 방이 설치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사료 D에서 방의 방령이 군사적 성격이 강한 지방관이었던 것과 부합한다. 비록 탄야방의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그 성격과 설치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고사성 역시 처음부터 중방의 치성인 중방성은 아니었을 것이다. 고사성 역시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 방령이 파견되어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방의 경우 백제의 영

135쪽 ;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나무 속 암호 목간』, 2009, 33쪽 ; 이은솔·이재환, 『능산리사지 출토 문자 자료』 『한국고대문자자료 연구 백제(상)-지역별』, 2015, 주류성 출판사, 236~239쪽을 참고하였다.

40) 김영심, 『백제의 지방통치에 관한 몇 가지 검토』 『한국고대사연구』48, 2007, 252쪽.

41) 사료에서는 탄야방령이나 관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탄야방을 도사가 파견된 성보다 낮은 지방통치단위라고 파악하기도 하였다(홍승우, 『부여 지역 출토 백제 목간의 연구 현황과 전망』 『목간과 문자』 10, 40쪽). 방의 구조를 통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한원』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성의 좌우에는 소성이 있고, 이 소성에 도사가 파견되었다고 보았다. 목간에서 도사만이 확인되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라고 한다. 도사 다음 탄야방인이 기술된 것은 관리-민의 순서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윤선태, 『신출자료로 본 방과 군』, 2013, 60~61쪽). 탄야방인의 성씨 및 성명까지도 기재되고 있는 점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료 보기도 한다(김영심, 앞의 논문, 2007, 264쪽).

42) 윤선태, 앞의 논문, 2013, 51~52쪽.

43) 백미선, 『웅진시대 백제의 한성』 『서울과 역사』99, 2018.

토 중앙에 위치한 까닭에 어떤 이유로 군사적 요충지로서 역할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중방성의 설치 배경을 그 역사지리적 입지와 관련해서 설명한 견해가 주목된다. 고사성은 백제가 충남 일원과 전북 일원을 연결해야 하는 지배 거점으로서 중요한 입지에 있다고 보는 한편,⁴⁴⁾ 구마한권역으로의 영역 확대의 거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⁴⁵⁾ 이에 고사성에 방령을 파견한 것은, 일대의 군사적 반발을 제압하는데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에는 일대의 지방지배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기존에 담로를 통한 지배에서 이제는 군과 성을 통한 지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지방의 세력과 지방관이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군사적 반발을 예상할 수 있으며, 고사성은 방성으로서 그러한 반발을 제압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중방이 성립되면서, 고사성은 군사적 성격의 방성에서 중방의 치성인 중방성이 될 수 있었다. 백제의 영역 인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F. ×書亦從此法爲之凡六¹五方×
 ×²行色也凡作形³中了其× (능산리목간)⁴⁶⁾

사료 F는 능산리에서 발견된 목간의 내용이다. 이 목간의 문구에 대해서는 6부와 5방을 두고 각각 관심이 집중되었다. 먼저 『주서』 등에 언급되었던 5부 5방과 비교해서이다. 이를 통해 백제 왕도 5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도성 및 지방제도의 실제와 맞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 이때 5방에 대한 해석은 6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5방은 역시 백제가 영토를 인식하고 구획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方이라는 용어가 백제에서 지방단위의 하나로 구현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능산리사지 목간의 내용 시기가 이르면 사비천도 이전까지 소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제의 수용 역시 유사한 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⁴⁷⁾ 그렇다면, 고사성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의 단위는 사비천도 이전부터 설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다만, 백제의 5방이 사비천도 이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성 사비를 중심으로 방위가 설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웅진이 도성일 때 중방은 동방을 거쳐서 당도할 수 있는 지리적인 조건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웅진시대 고사성을 중심으로 한 방은 사비천도 이후에 중방으로 자리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중방성은 중방의 치성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백제의 중방이 성립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와 관련해 그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사료 D에서 백제의 오방성은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한다. 방령의 관할 군사 규모에 대해 사료에서는 적게는 700명에서 많게는 1200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방의 경우는 사료 D-2에서 1200명이 둘러싸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굳이 중방의 경우만 따로 군사의 규모를 밝히고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사료 서술 상에 있어서 잘못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다시 한 번 방성의 군사 규모에 대해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중방성의

44) 김근영·정재윤, 앞의 논문, 2019, 61쪽.

45) 지원구, 앞의 논문, 2023, 91쪽.

46) 판독 및 교감은 이은솔·이재환, 『능산리사지 출토 문자자료』 『한국고대문자자료연구 백제(상)-지역별』, 2015, 주류성출판사, 200쪽을 참고하였다.

47) 신라의 주제가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주보돈,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1998, 신서원, 106쪽). 신라에서 552년 광역의 주가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백제에는 주와 같은 광역단위가 설정되었다고 짐작된다.

군사 규모를 1200명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비록 방성의 규모는 5방 가운데 가장 적지만, 가장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백제의 지방군 가운데 중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점을 드러내준다.

중방의 군사적 역할이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백제가 중방성을 설치하고 중방을 둔 배경 역시 군사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무엇보다도 중방성은 5방제의 구상 속에서 설정된 것이다. 그리고 5방은 백제의 사비 천도와 함께 백제의 대외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사비 천도 이후 백제의 대외정책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⁴⁸⁾

- G-1. 가을 9월에 왕은 장군 연희에게 명령하여 고구려의 우산성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삼국사기』26, 성왕 18년)
- G-2. 봄 정월에 고구려 양원왕이 예와 모의하여 한북의 독산성을 공격하였다. 왕은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 왕은 장군 주진에게 명령하여 갑옷 입은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떠나게 하였다. 주진이 밤낮으로 길을 가서 독산성 아래에 이르러 고구려 군사와 한번 싸워 크게 격파하였다. (『삼국사기』26, 성왕 26년).
- G-3. 봄 정월 왕은 장군 달기를 보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도살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3월에 고구려 군사가 금현성을 포위하였다. (『삼국사기』26, 성왕 28년).
- G-4. 성명왕이 말하였다. “옛날 나의 선조인 速古王 賣首王대에 안라, 가라, 탁순의 한기 등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어 통교하고 두텁고 친밀한 우호관계를 맺어 子弟로 삼아 항상 두텁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제 신라에게 속임을 당하여 천황을 분노케 하고, 임나를 분통케 한 것은 과인의 잘못이오. 나는 깊이 후회하고 下部 中佐平 麻鹵, 城方甲背昧奴 등을 보내 가라에 가서 임나의 일본부를 만나 서로 맹세하게 하였다. (후략)”(『일본서기』권19, 흠명천황 2년 4월).

사료 G는 성왕대 백제의 대외정책을 알 수 있는 사료이다. 사료 G-1, 3은 성왕 18년(540)과 28년(550) 백제가 먼저 고구려를 공격한 내용이다. 이러한 모습은 사비로 천도하기 이전 백제 성왕이 고구려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그쳤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성왕 18년의 고구려공격은 백제가 사비로 천도를 단행하고 보이는 첫 대외활동으로 주목된다. 백제가 적극적으로 대고구려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신라와의 군사적 동맹을 통해서였다. 사료 G-2에서는 548년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신라 진흥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제와 신라가 함께 군사활동을 한 것은 동성왕 17년(495) 이후 처음이다. 백제는 무령왕대 단독으로 대고구려전을 수행했던 것과 달리, 성왕대에는 신라와 함께 대고구려전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성왕은 지속적인 대신라외교를 통해 신라의 군사활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리고 사료 G-4는 왜의 흠명천황 2년(541)의 내용이다. 이때 백제 성왕이 근초고왕과 근구수왕대 백제와 가야의 관계를 子弟와 같았다고 회고하며, 지금 그러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백제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서 무령왕대 백제가 가야 지역에 군사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사료에서 언급하였듯이, 성왕은 신라를 고려하여 가야와의 관계에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당시 신라는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여 532년에는 대가야를 복속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백제는 가야와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신라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백제와 가야와의 관계 변화는 대고구려전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백제는 가야와의 국경을 안정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대고구려전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8) 사비천도 이후 성왕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김수태, 『백제의 전쟁』, 2007, 118~133쪽을 참고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백제의 방과 관련한 내용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사료 E-2에는 백제가 한성에 두었다는 우두방과 니미방이 보인다. 백제는 한성을 수복하고, 나아가 한성을 기반으로 대고구려전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곧 우두방과 니미방은 군사적 거점이었을 뿐 아니라 백제의 영역 확장 의지를 담고 있는 지방통치단위였던 것이다. 아울러, 사료 G-4에서는 ‘성방갑배매노’라는 인물이 보인다. 이때 城方은 일찍부터 백제의 방성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백제와 가야의 관계에서 방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왕대 대외정책의 변화 속에서 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방통치단위가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백제의 5방 역시 백제 성왕대 대외정책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백제의 대외정책은 군사 및 지방제도의 변화를 기반으로 가능했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사료 D에서 백제 도성과 지방제도가 정비된 모습이 주목된다. 백제는 왕도에 5부를 두었는데 각 부에는 500명의 군사를 두었다고 한다. 왕도 5부의 성립은 군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왕도 5부의 성립 시기는 처음 사비로 천도 한 이후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웅진시대부터 왕도에 대한 정비가 이뤄졌음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왕도 5부의 성립은 백제 지방제도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D에서 왕도와 함께 5방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왕도 5부의 성립은 도성의 거주민에 대한 파악과 편제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중앙군이 정비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중앙군의 정비는 지방군의 정비를 촉진하였다. 5방의 성립은 지방민에 대한 파악과 군 편제의 정비를 위한 것이었다.

백제가 방이라는 광역의 범위를 설정한 것은 군사의 징발 및 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중방은 백제 지방군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이는 5방 중 중방의 성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5방 중 중방을 제외한 4방의 방은 백제의 국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도가 높았고, 정치적인 안정도가 낮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방민의 통치와 징발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중방은 백제의 영역 중에 위치하여 정치적인 안정도는 높고 군사적 긴장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다. 백제 중방의 경우 대비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에 지방민에 대한 통치와 징발이 안정적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백제의 중방은 사비천도 이후 대외정책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립할 수 있었다. 중방의 성립으로 방성이었던 고사성은 중방의 치성인 중방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백제의 5방제와 중방

백제의 5방의 설치 시점과 과정은 중방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5방이 일시에 설치되었나 아니면, 시기 차이를 두고 설치되었나 하는 것이다. 이는 방의 성격과 관련해서 검토되었다. 백제의 5방은 중방,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인데, 중방을 제외한 4방은 백제가 대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동방은 동방령이 554년 관산성전투에 참전하고 있음을 통해 신라와의 관계에서, 서방은 서해안의 군사적 대비를 위해서, 남방은 가야에 대한 군사적 대비, 그리고 북방은 고구려에 대한 군사적 대비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다. 반면, 백제의 영토 중앙에 위치한 중방은 군사적 필요성을 찾기 힘든 까닭에,

백제의 원활한 지방통치를 위해서 고르게 편제하였다고 보거나,⁴⁹⁾ 4방이 설치된 이후에야 설치되었다고 보기도 하였다.⁵⁰⁾

하지만, 5방은 수도 사비를 중심으로 일원적인 지배 질서를 추구하는 가운데 설치된 것으로, 그 성립 시기가 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의 구획과 방의 치소 방성의 결합 과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료 E에서 5방과는 다른 성격의 방성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통해, 방성의 설치 이후 방제가 시행되기까지 일정한 단계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의 卍와 그 지방관 軍主가 결합해 가는 과정은 많은 도움을 준다. 백제의 방령과 신라의 군주는 모두 중국의 도독에 비견되고 있으며, 신라의 주가 백제의 방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신라의 군주는 처음 군관으로서 주에 파견되었다가, 신라가 광역의 주제를 수용하면서 주의 지방관으로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⁵¹⁾ 최근에는 주와 같은 광역의 범위가 먼저 설정되고, 주치가 설치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⁵²⁾

이러한 모습은 백제의 5방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5방의 성립과 방성의 결합은 일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동방의 경우, 방성인 득안성이 548년에 축성된다.⁵³⁾ 사비로 천도하고 약 10년 뒤에 동방성이 축성되고 있는 것이다. 백제가 사비 천도와 함께 5방을 구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방성은 동방이 설정된 이후에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남방의 경우는 543년까지 군령과 성주만 확인되고, 아직 남방령이 보이지 않는다. 아직 남방의 치소인 남방성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방의 경우 그 관할 범위를 확정하는데에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554년 동방령이 관산성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백제와 신라의 국경 변동 이후 동방의 권역이 정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남방의 경우 대가야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권역에 변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방은 552년 신라가 한성에 신주를 설치하면서, E-2에서처럼 백제의 우두방과 니미방이 폐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웅진성을 방성으로 한 북방의 권역은 이후 확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서방의 경우도 백제가 한강 하류를 상실한 550년대에 그 권역이 재정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방은 방과 방성의 결합이 가장 먼저 가능하지 않았을까. 사료에서 백제의 5방 가운데 중방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비록 기록의 순서를 통해 방의 성립 순서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5방 가운데 중방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동서남북의 4방과 달리, 중방은 군사적인 긴장도가 낮고 정치적인 안정도가 높았기 때문에, 보다 이른 시기에 방의 치소인 중방성이 설치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의 경우 원신라영역이었던 상주에 가장 먼저 卍治가 설치되고 있는 것이 참고가 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백제의 5방 중 중방과 중방성이 가장 먼저 성립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백제 중방의 성격도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는 중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과연 그 설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리적 입지를 통해 사비도성과 가까운 북방, 동방, 서방과 다르게 중방과 남방의 경우는 백제의 남방지역 영역화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⁵⁴⁾ 그러나 이는 백제 수도 사비와 5방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49) 박현숙, 앞의 책, 2005, 195쪽.

50) 김영심, 앞의 논문, 2019, 25쪽.

51) 후보돈, 앞의 책, 1998, 97~110쪽.

52) 전덕재, 『신라지방통치제도사』, 2023, 학연문화사, 271~287쪽.

53) 冬十月 遣三百七十人於百濟 助築城於得爾辛(『일본서기』19, 흥명천황 9년).

54) 중방과 남방의 관계가 지적되고 있다(김근영·정재윤, 앞의 논문, 2019 ; 지원구, 앞의 논문, 2023).

아닌지 의문이 든다. 물론 오방은 백제의 영토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왕도와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 사료에서 방은 군이나 성과 달리 왕도와의 관계 속에서 서술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중방 역시 그렇다. 동서남북 방과의 관계가 아니라, 왕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백제 중방과 관련한 목간과 기와의 발견은 이와 관련해서 주목된다. 관북리 285호 목간에서는 中方向으로 병기를 분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시기는 7세기로 비정된다. 백제의 수도 사비에서 중방의 군사 문제를 관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고사부리성에서 발견된 ‘上卍上巷’명 인장와는 수도 사비에서 중방성을 통해 중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알려준다. 중방은 사비 도성과의 관계 속에서 군제·지방통치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백제의 중방성과 지방지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시기에 따른 고사부리성의 성격 변화를 살펴보았다. 백제 근초고왕이 마한지역을 정벌하고 세운 고사부리성은 담로였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담로의 지방관인 도사가 파견된 지역이었다고 파악하였다. 이후 고사부리성의 모습은 웅진도독부 시기 고사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담로인 고사부리성은 고사부촌인 성(촌)으로서 새롭게 재편되었다. 웅진시대 백제는 도사의 파견을 확대하여 축성을 통한 직접 지배 지역을 늘려갔다. 이 과정에서 담로는 해체되고 새로운 성격의 지방단위인 군과 성으로 변화해 간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촌의 재편을 통해 가능하였는데, 그 모습이 고사부촌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고사부리성 뿐 아니라, 벽골과 대시산에서도 같은 모습이 확인된다. 고부, 김제, 정읍 일대의 지방통치가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고사성은 방성으로서 방령이 파견되었다.

5방제 아래 백제의 방은 군과 성을 통할한다고 한다. 하지만, 고사성이 처음부터 중방의 치소인 중방성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백제의 방과 관련한 새로운 사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처음 방성은 방의 치성으로서만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방은 군·성과 관계없이 군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고사성에 방령이 파견된 이유는, 지리적으로 남방지역의 경영에 있어서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방령은 일대 지역의 군사적 반발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방 일대는 담로에서 군, 성을 통한 직접통치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에 지방관과 지방 세력은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야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반발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비 천도 이후 백제에서 방의 의미는 달라진다. 영역 인식의 변화와 대외전쟁은 광역단위인 방의 설치를 필요로 하였다. 이제 5방의 설정과 함께 고사성은 중방의 치성인 중방성이 된다. 중방의 성립과 중방성의 설치에 보다 많은 인원의 군사 징발을 위한 것이었다. 백제의 중앙에 위치한 중방은 5방 가운데 가장 안정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5방제에서 중방이 어떤 의미와 성격이었는지 살펴보았다. 백제의 5방은 일원적인 지배방식을 지향하며 설정되었다. 하지만, 각 방이 방성을 중심으로 한 광역의 단위로 성립되는 시기는 각기 달랐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해서 신라의 사례는 많은 참고가 된다. 광역의 州制와 지방관 군주의 결합 과정을 정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백제의 경우 변경에 위치한 4방의 성립 시기는 대외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방의 경우는 백제의 중앙에 위치하였고, 고사성이 방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까닭에 보다 이른 시기에 성립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신라의 경우 가장 군사적으로 긴장도가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인 상주에서 주제가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이러한 중방의 성립 시기와 배경은 그간 중방의 성격에 대한 논의에 재고를 요한다. 백제의 중방은 수도 사비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광역 지방단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수태, 『백제의 전쟁』, 2007, 주류성.
-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1988, 일조각.
- 노중국, 『백제의 정치제도와 운영』, 2022, 일조각.
- 박현숙, 『백제의 중앙과 지방』, 2005, 주류성.
- 윤선태,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2007, 주류성.
- 전덕재, 『신라지방통치제도사』, 2023, 학연문화사.
- 주보돈,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1998, 신서원.
- 최완규, 『전북지역 고대문화와 사회』, 2023, 서경문화사.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정읍 고사부리성-종합보고서(1~5차 발굴조사)-』, 2013.
- 정읍시립박물관 제5회 기획특별전, 『백제의 중방문화 고사부리성에서 찾다』, 2013, 정읍시립박물관·전북문화재연구원.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정읍 은선리 고분군』, 2018.
-
- 김근영·정재운, 「백제의 중방성 설치와 그 의미」 『마한백제문화』33, 2019.
- 김병남, 「백제의 '전북지역' 진출 과정과 추이 변화」 『전북사학』58, 2020.
- 김수태, 「백제의 지방통치와 도사」 『백제의 중앙과 지방』, 199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김수태, 「백제 성왕대의 군령과 성주」 『백제문화』31, 2002.
- 김수태, 「사비시대 백제의 자연촌」 『목간과 문자』29, 2022.
- 김영심, 「5~6세기 백제의 지방통치체제」 『한국사론』22, 1990.
- 김영심, 「6~7세기 백제의 지방통치체제-지방관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11, 1997.
- 김영심, 「백제의 성, 촌과 지방통치」 『백제연구』28, 1998.
- 김영심, 「백제의 지방통치에 관한 몇 가지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48, 2007.
- 김영심, 「백제 중방성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마한백제문화』33, 2019.
- 김영심, 「백제의 지방행정과 목간」 『문자와 고대한국』, 2019, 주류성.
- 김주성, 「백제 지방통치조직의 변화와 지방사회의 재편」 『국사관논총』35, 1992.
- 김주성, 「백제 지방통치조직의 변화와 중방성」 『백제문화』55, 2016.
- 김창석, 「7세기 신라 ㅅ의 성격 변화와 수취-명주와 삭주를 중심으로-」 『백제문화』56, 2017.
- 박지현, 「웅진도독부의 성립과 운영」 『한국사론』59, 2013.
- 박현숙, 「백제 사비시대의 지방통치체제 연구」 『한국사학보』1, 1997.
- 백미선, 「웅진시대 백제의 성주」 『대구사학』131, 2018.
- 백미선, 「웅진시대 백제의 한성」 『서울과 역사』99, 2018.
- 심상욱, 「백제 인각와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5, 2010.
- 옥창민, 「전북지역 백제 횡혈식석실분 연구」 『마한·백제연구』23, 2014.
- 윤선태, 「백제목간의 연구현황과 전망」 『백제문화』49, 2013.
- 윤선태, 「신출자료로 본 백제의 방과 군」 『한국사연구』163, 2013.
- 이근우, 「백제의 방군성제 관련사료에 대한 재검토」 『한국 고대의 고고와 역사』, 1997, 학연문화사.
- 이도학, 「백제의 지방통치와 중방성」 『김제 벽골제와 백제의 중방문화』, 2016.
- 이문기, 「사비시대 백제의 군사조직과 그 운용」 『백제연구』28, 1998.

- 이문형·이다운, 「정읍 고사부리성 출토 「상부상항」명 인각와에 대한 연구」『중앙고고연구』28, 2019.
- 장미애, 「백제 5방의 성격과 설치 시점 논의-『괄지지』를 바탕으로」『중원문화연구』29, 2021.
- 전영래, 「백제지방제도와 성곽」『백제연구』19, 1988.
- 정동준, 「백제 5방제의 지방관 구성에 대한 시론」『한국고대사연구』63, 2011.
- 지원구, 「백제의 호남지역 경영과 5방체제」『전북사학』68호, 2023.
- 최완규, 「김제 벽골제와 백제 중방성」『호남고고학보』44, 2023.
- 천관우, 「마한제국의 위치 시론」『동양학』9, 1979.
- 今西龍, 「百濟五方五部考」『百濟史研究』, 1934, 近澤書店.

「백제의 중방성과 지방지배」 토론문

김영심(한국외국어대학교)

** 본 발표는 최근 5방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5방성 중의 하나인 중방성의 설치 과정과 성격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백제의 지방통치에서 중방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동안 담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었던 5방제, 방성, 특히 중방의 성격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한 시도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부족한 자료를 근거로 매우 과감하게, 단정적으로 기술한 부분이 있어 우려되는 면도 적지 않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몇몇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한다.

1. 『周書』의 固麻城, 『隋書』의 居拔城, 『北史』의 居拔城·固麻城 기록

백제의 도읍에 대해 『주서』에는 고마성, 『북사』에는 거발성, 『북사』에는 거발성과 고마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록 5방성의 명칭은 나오지 않지만, 사료의 시기성을 논할 때는 『북사』에 앞서 『수서』를 먼저 언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서』를 언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또한 『주서』에 도성으로 고마성이 언급된 것은 사료 찬자의 단순한 오류로 치부하고 있는 것인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고사부리성의 성격 변화

『삼국사기』 온조왕 36년조의 고사부리성 축조와 사비시대 중방성 고사성 사이, 즉 기록의 공백 기간에 해당하는 시기 고부지역의 상황을 나름대로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의 상황에 대해 “4세기 이후 백제의 지방통치체제가 담로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고사부리성 역시 담로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사부리성 역시 지방통치의 거점으로서 인근의 성과 촌을 관할하였을 것” “담로인 고사부리성에는 지방관 道使가 파견되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고사부리 지역이 4세기 이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백제의 직접지배 영역이 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하다. 고부지역에서 한성시기 백제의 물질문화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토록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 고사성은 지방관 도사의 파견지에서 방령이 파견된 곳으로, 담로의 치소에서 방의 치소인 방성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통치체제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방관 도사를 중심으로 한 통치에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과연 어떠한 변화이며, 변화의 주된 원인 내지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3. 행정촌 문제

古泗州의 5현 가운데 平倭縣을 古沙夫村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백제의 촌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행정(성)촌으로 재편되었다고 보았다. 그 시기는 동성왕 11년조(489)의 國南海村과 23년조의 馬浦村을 근거로 웅진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토론자 또한 『삼국사기』 지리지 백제측 자료에 나오는 촌은 군현의 전신에 해당하는 촌으로 본 바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國南海村과 馬浦村을 행정촌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취약하다. 나라 남쪽 바닷가 마을의 의미, 왕이 특별히 머물렀던 촌이어서 명기된 명칭이라면 자연촌으로 보

아도 큰 문제가 없다.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58城村700'의 村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행정촌의 가능성은 오히려 나주 북암리 <목간 5>의 '大祀村'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4. 『주서』의 “城之內外民庶及餘小城 咸分隸焉”, 『한원』 “諸城左右亦各□小城 皆統諸方” 해석
『주서』의 성은 군과 성 단위를 모두 일컫는다고 기술하였는데, 앞의 내용이 방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성은 '방성'이 아닐까? 발표자는 『한원』의 기록에 대해서 “諸城은 군, 小城은 성 단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모두 방에 영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방이 처음부터 광역 단위의 지방통치단위로서 군과 성을 통할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성 단위로만 표현되어 있는 이들 기록을 토대로 방, 군, 성이라는 통치단위의 영속관계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高麗記』의 기사를 인용하여 諸大城-諸城-諸小城-(城) 순서로 표기하고 있는 『한원』 고(구)려조를 참고하여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한원』 고려조의 기사를 원용하는 것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과 『주서』 및 『한원』 기록에 대한 발표자의 정확한 해석을 듣고 싶다.

5. 方, 方城, 方制

1) 방의 성격

능산리 사지 출토 목간의 시기(527년경)와 『일본서기』 흠명 14년조의 기사를 근거로 520년대~550년대에는 5방과는 다른 성 단위의 방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彈耶'와 '牛頭', '尼彌'는 지명으로 방성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되, 5방과 같이 광역의 범위를 관할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고사성 역시 사비천도 이후 영역 인식의 변화와 대외전쟁으로 광역단위인 방의 설치를 필요로 함에 따라 중방이 성립되면서, 군사적 성격의 방성에서 중방의 치성인 중방성이 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처음에는 고사성이 단지 군사적 요충지에 해당하는 '니미방' 등과 같은 성격이었다가 중방의 치성인 중방성까지 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혹시 우두방, 니미방 같은 성격의 방(성)이 5방의 치성(방성)과 병렬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은 없는가?

2) 방의 설정, 방성의 설치 시점

고사성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의 단위는 사비천도 이전부터 설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하필 고사성이 광역의 단위로 사비천도 이전부터 설정되어 있었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 또 사비천도와 함께 5방은 구상되었는데, 『일본서기』 흠명 9년조의 “冬十月 遣三百七十人於百濟 助築城於得爾辛” 기사를 볼 때 동방성인 득안성은 548년에 축성되었으므로 동방성은 동방이 설정된 이후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남방의 경우도 543년까지 군령과 성주만 확인되므로 아직 남방의 치소인 남방성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 과연 방의 설정과 방성의 설치 시점이 다를 수 있는가? 문헌에 남은 파편적인 기록만을 근거로 어떠한 제도의 상한이나 하한을 파악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정확할지 의문이 든다.

3) 방과 방성의 결합의 의미

중방은 방과 방성의 결합이 가장 먼저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는데, 방과 방성의 결합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중방은 군사적인 긴장도가 낮고 정치적인 안정도가 높았기 때문

에, 좀 더 이른 시기에 방의 치소인 중방성이 설치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치소성으로서의 방성이 설치되는 것을 방과 방성의 결합으로 보는 것인가? 군사적인 성격의 방성에서 중방의 치성인 중방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개념을 좀 더 명확히 기술해주어야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한다.

6. 오타 바로잡기

2쪽 23행 거벌성 → 거발성

6쪽 25행 고사부리촌 → 고사부촌

익산지역의 성곽 유적과 도시 공간¹⁾

김 재 범(육군박물관)

- 目 次 -

- I. 머리말
- II. 익산지역의 성곽 유적 현황
 - 1. 금강 유역의 성곽 유적
 - 2. 동쪽 산악지역의 성곽 유적
 - 3. 만경강 유역의 성곽 유적
 - 4. 익산 성곽 유적의 익산 경영과의 관계
- III. 익산의 도시 공간 범위
- IV. 맺음말

I. 머리말

오늘날의 익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서북단에 위치하여 노령산맥의 지맥에서 분기된 천호산과 미륵산이 동부에, 합라산 줄기가 서북부에 이어져 남서로 향하는 구릉과 대·소하천으로 형성된 비옥한 평원에 자리하고 있다. 북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충남 논산시와 부여군, 동으로는 완주군과 전주시, 서로는 옥구평야와 군산시, 남으로는 만경강을 경계로 김제평야에 접해 있다.²⁾

익산은 수로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어느 한 지역이 역사적 혹은 문화적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통로의 발달이 하나의 요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³⁾ 물론 지금의 익산평야와 옥구평야 등 너른 평야 지대로 둘러싸여 있지만, 지금의 지형구조를 이루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며, 문헌 자료나 익산지역에 남아 있는 물과 관련된 地名, 익산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口傳,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졌던 만경강 제방 수축 공사 등의 기록, 고고학적 자료 등을 통하여 충분히

1) 본 논문은 본인의 박사논문 「백제 사비시기 익산 경영 연구」에서 발췌·수정·보완한 글이다.

2) 익산시사편찬위원회, 『益山市史』上, 익산시, 2001a, 3~4쪽.

3) 김삼룡,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본 익산 - 수로교통로를 중심으로」, 『마한백제문화』 15,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1, 102쪽.

추정할 수 있다.⁴⁾

이러한 수로 교통의 한 축인 금강은 길이 395.9km, 유역면적 9,810km²로 남한에서 낙동강, 한강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강이다.⁵⁾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수분리 신무산(895.6m)에서 발원하는데 고개를 중심으로 북쪽은 금강, 남쪽은 섬진강으로 흐른다. 옥천 동쪽에서 靑川, 조치원 남부에서 美湖川, 기타 草江·甲川 등 크고 작은 20개의 지류가 합류한다.⁶⁾ 강물은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금산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대전광역시, 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논산시, 익산시, 군산시, 서천군을 거쳐 서해로 흐른다.⁷⁾

수로 교통의 다른 한 축인 만경강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동상면과 소양면의 경계인 원등산(713m)에서 발원하여 호남평야의 중심부를 지나 서해로 흘러드는 강으로 길이가 77.4km, 유역면적이 1,527km²에 이르고 있다.⁸⁾ 만경강은 또한 발원지에서 소양천이 합류하는 지점까지를 상류, 소양천 합류 지점부터 마산천 합류 지점까지 중류, 그 이하 하구까지 하류로 구분할 수 있고, 만경강과 접하고 있는 시군으로는 완주군,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등 5개 시군이 있다.⁹⁾

이렇듯 익산은 북으로는 금강이 남으로는 만경강이, 동으로는 험준한 산악지대가 자연적인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익산의 주요 성곽 유적들은 이러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익산의 주요 교통로 주변에서 확인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익산의 성곽들은 익산지역의 방어 및 교통로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후 백제 사비기 익산 경영과도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익산의 도시 공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논고에서는 익산지역 성곽 유적의 특성을 살펴 각 성곽 유적이 갖는 유의미한 지정학적·기능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각 성곽 유적이 익산 도시 공간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익산지역의 성곽 유적 현황

익산지역의 성곽 유적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보덕성 또는 오금산성이라 불리는 익산토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1980년, 1984년 2차에 걸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해 진행되었다.¹⁰⁾ 이어 1986년 익산지역 관내 성곽에 대한 지표 조사가 시행되었으며,¹¹⁾ 1990~91년, 그리고 2004년과

4) 김삼룡, 앞의 논문, 103쪽.

5)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s://me.go.kr/gg>)

6)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s://me.go.kr/gg>)

7)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s://me.go.kr/gg>)

8)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만경강 하천기본계획(보완)보고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1, 2~3쪽.

9) 박영민, 「만경강 및 동진강 유역 고대 성곽의 변천」, 『전북사학』 68, 전북사학회, 2023, 35~46쪽.

10)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보덕성발굴약보고(일명 익산토성)』,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오금산성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5.

2006년 미륵산성을 조사하였다.¹²⁾ 2001년과 2015년에는 금마도토성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고,¹³⁾ 2006년에는 낭산산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행되었다.¹⁴⁾ 그 이후 익산 지역 성곽 유적에 관한 연구가 없다가, 2016년 익산지역 성곽에 대한 1차 정밀지표 조사 이루어졌다.¹⁵⁾ 또한, 2016년부터 매년 익산시가 주최하고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주관한 ‘고도 익산 정체성 확립 학술회의’에서 익산의 성곽 유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⁶⁾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파악해보면 익산에는 현재 총 13개의 성곽 유적이 분포하고 있고, 이 성곽 유적들은 주로 금강 유역 하류를 따라 형성된 함라산 일대, 미륵산과 용화산이 자리한 만경강 유역의 지류천 근처 금마면 일대, 그리고 금강 유역의 지류천 근처인 동쪽 산악지역의 천호산 일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시기에 세워진 2개의 읍성을 제외하면 총 11개의 백제와 연관된 성곽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2개의 성곽 유적이 금강 유역과 연관된 함라면과 웅포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왕궁성 주변 지역인 동쪽 산악지역(낭산면·여산면)에 4개의 성곽 유적이, 만경강 유역(금마면·왕궁면) 지역에는 5개의 성곽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표 1〉 익산지역 관내 성곽 현황¹⁷⁾

번호	성곽명	위치	관련지역	비고
1	어래산성	함라면 신목리 산 114번지 일원	금강 하류	
2	함라산성	웅포면 웅포리 산1번지 일원		
3	용안읍성	용안면 교동리 사 2-1번지 일원		조선시대 축조
4	선인봉산성	여산면 제남리 산 82번지 일원	금강 지류 및 동쪽 산악지역	

1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군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 성곽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6.

12)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미륵산성-동문지주변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1; 원광대학교 박물관, 『익산 미륵산성-건물지 및 남문지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박물관, 2008.

13)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저토성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금마도토성 문화재발굴(표본)조사 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5.

14) 전북문화재연구원, 『益山 郎山山城 南門址 發掘調査 報告書』, 파피루스, 2008.

15)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의 성곽』,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

16) 특히, 2016년 학술회의의 「익산지역 고대 산성의 분포현황과 특징」, 2018년 학술회의의 「도토성과 미륵산성의 사적지정을 위한 방안 모색」, 2019년 학술회의의 「백제 금마저의 지리적 접근과 금마도토성」,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미륵산성의 축조 시기 검토」 등 매년 백제의 성곽 유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익산의 역사 정체성 성립에서 성곽 유적의 중요성이 높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번호	성곽명	위치	관련지역	비고
5	당치산성	여산면 여산리 산 6-1번지 일원		
6	천호산성	여산면 호산리 산 9번지 일원		
7	낭산산성	낭산면 낭산리 산 48번지 일원		
8	익산토성	금마면 서고도리 산 52-2번지 일원	만경강지류	
9	학현산성	왕궁면 동룡리 산 53번지 일원		
10	미륵산성	금마면 신용리 산 124-1번지 일원		
11	용산성	황등면 용산리 742번지 일원		조선시대 축조
12	용화산성	금마면 신용리 산 22-1번지 일원		
13	금마도토성	금마면 서고도리 산 14번지 일원		

1. 금강 유역의 성곽 유적

금강 유역 하류에 분포한 익산의 성곽 유적 2개 중 아래산성은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와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경계지점에 위치한다.¹⁸⁾ 아래산성은 당나라의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할 때 쌓은 보루라 전해진다고 한다.¹⁹⁾ 그러나 금강변에 백제시대 축조된 것으로 전해지는 함라산성이나 오늘날 군산시 지역의 도청산성·관원산성 등과 더불어 아래산성도 백제시대에 금강을 통해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하여 설치했던 성으로 보인다.²⁰⁾ 특히 백제시대의 기와편과 토기편이 수습되기에 백제시대에 존재했던 산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²¹⁾

아래산성의 앞으로는 익산시 황등면을 통하여 칠목재를 거쳐 웅포면 입점리에서 웅포리로 이어지는 지방도 722호선이 개설되어 있다.²²⁾ 황등면이나 익산 시내 또는 임피면 등에서 웅포리로 가기 위해서는 칠목재를 거쳐야 하며, 칠목재를 바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래산성이 있다.²³⁾

또 다른 성곽 유적인 함라산성은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와 함열리의 경계면 일대

17)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앞의 책, 2016, 1쪽.

1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위의 책, 2016, 12쪽.

19) 《咸悅舊誌》“御來山在邑西十里唐蘇定方征百濟時築堡”

20) 익산시사편찬위원회, 『益山市史』 下, 익산시, 2001b, 2376쪽.

21) 익산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1b, 2376쪽.

22)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위의 책, 2016, 15쪽.

23)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위의 책, 2016, 15쪽.

에 위치한다.²⁴⁾ 함라산성은 함라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함라산의 줄기는 금강을 따라 북쪽으로는 익산시 용안면으로부터 남쪽으로는 군산 나포면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다.²⁵⁾ 금강에서 익산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산맥을 넘어야 하므로 자연적인 방어 지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²⁶⁾ 서쪽으로는 금강과 강 건너 충남 서천군과 부여군 일대가, 동쪽으로는 익산시 일원의 저평한 구릉과 평야 지대가 잘 조망된다.²⁷⁾

함라산성의 축성 연유나 연혁을 밝혀주는 사료가 없어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전해지는 근처의 어래산성과 도청산성 및 관원산성 등과 함께 백제시대 쌓은 산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1년 제작된 『益山市史』에서는 백제 관련 유물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시대 이전의 유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조사되었는데,²⁸⁾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2016년 조사에서는 산성 내부와 그 주변에서 다수의 백제시대 토기편들이 확인되어 백제시대의 산성임이 입증되고 있다.²⁹⁾

<표 2> 익산시 금강 유역 성곽 유적 현황³⁰⁾

번호	성곽명	높이 (m)	형식	축성 재료	둘레 (m)	면적 (㎡)	고저차 (m)	축조시기
1	어래산성	180.4	산본식	토석 혼축	485	14,804	23	백제
2	함라산성	240.5	포곡식	석축	1,011	36,652	70	백제

지금까지 살펴본 금강 유역의 함라면과 옹포면에 자리 잡은 2개의 성곽 유적과 관련하여 인근에 있는 군산지역의 성곽 유적까지 연계해보면 금강 유역 방어기지의 역할이 명료해진다. 오늘날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오성산토성과 서수면과 나포면을 잇는 수레재의 관원리산성, 익산 어래산성의 근처인 도청산성 등의 성곽 유적은 익산지역의 어래산성과 함라산성등과 더불어 서해에서 금강을 통해 내륙으로 출입하는 水路 상의 요충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³¹⁾ 더욱이 이러한 산성은 금강을 건너 오늘날 충남 서천군 일대의 송내리산성, 영모리산성 등과 함께 마주 보며 방어에 있어서 금강 유역 하류의 최전선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³²⁾

특히, 함라산성은 금강 유역에 축조된 군산-익산에서 확인되는 산성 가운데 가장

24)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앞의 책, 2016, 27쪽.

25)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위의 책, 2016, 27쪽.

26)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위의 책, 2016, 27쪽.

27) 익산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1b, 2383쪽.

28) 익산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1b, 2382쪽.

29)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위의 책, 2016, 27쪽.

30)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위의 책, 2016, 47~210쪽.

31) 곽장근, 「고고학으로 본 군산의 역동성」, 『전북사학』45, 전북사학회, 2014, 25쪽.

32) 강유나, 「군사 지역의 고대 사회」, 『백제문화』 63,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20, 75쪽.

높은 함라산 정상부에 있는 산성으로 금강 일대는 물론 오늘날의 충남 서천·부여 및 익산의 동부까지 조망권에 들어온다.³³⁾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함라산을 경계로 자연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더불어 개활지로 이어진 익산의 금마 일대까지 육로를 관찰할 수 있는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강 유역의 성곽 유적들은 강 건너 서천지역의 송내리산성, 영모리산성 등과 함께 금강 하구의 방어선을 구축한 최전선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³⁴⁾

2. 동쪽 산악지역의 성곽 유적

익산시 동쪽 산악지역의 성곽 유적 역시 큰 틀에서는 금강 유역의 성곽 유적이라 할 수 있다. 금강의 지류인 제2지류인 강경천과 제3지류인 어량천, 마산천이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이다.³⁵⁾ 하지만 금강 유역의 하류지역과는 다르게 험한 산지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있는 4개의 성곽 유적이 다 산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3> 익산시 동쪽 산악지역 성곽 유적 현황³⁶⁾

번호	성곽명	높이 (m)	형식	축성 재료	둘레 (m)	면적 (㎡)	고저차 (m)	축조시기
1	낭산산성	162	산복식	토석 혼축	870	57,565	75	백제
2	당치산성	185	산복식	석축	683	25,108	49	불명
3	선인봉산성	239	테피식	석축	213	3,326	12	불명
4	천호산성	500	산복식	석축	669	15,712	45	불명

또한, 이 지역은 익산에서 부여로 연결되는 육로 교통로 볼 수 있기에 전략적으로 당시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 방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다음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3년(서기 578) 백제의 關也山城을 주었다(혹은 빼앗았다).³⁷⁾

33) 이문형, 「익산지역 고대 성곽의 분포 현황과 특징」, 『마한백제문화』 2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원, 2016, 127쪽.

34) 강유나, 앞의 논문, 75쪽.

35) 천호산성의 경우는 만경강의 제2지류인 대치천이 동쪽으로 흘러 크게 만경강 유역으로 볼 수 있으나, 천호산성이 위치가 완주군보다 익산시 여산면에 위치에 있기에 서쪽으로 흐르는 금강 유역의 지류로 분류하였다.

36)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앞의 책, 2016, 47~210쪽.

37) “三年 與百濟關也山城”

《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진지왕

이 기사에서 등장하는 백제의 알야산성은 오늘날 익산의 朗山面에 있던 낭산산성으로 추정되는 성으로, 신라가 ‘알야산성을 백제에 주었다’라는 의미에 대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본문의 ‘與’를 ‘侵’의 誤字³⁸⁾, 혹은 ‘擧’의 誤字³⁹⁾ 보고 해석하기도 한다.⁴⁰⁾ 하지만 ‘與’의 誤字와는 관계없이 위덕왕 25년(578) 신라는 백제 도성의 인접 지역까지 진출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⁴¹⁾ 이 기사는 비록 백제 본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신라 선덕왕 5년(636) 백제군이 경주 교외까지 쳐들어온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⁴²⁾

이 낭산산성의 위치는 금마지역과 사비의 직선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낭산산성을 넘어 사비로 가는 북쪽 길목에 바로 ‘陣基’라는 지명의 지역이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에는 위치한 ‘진기’는 ‘진기’라는 지명 외에도 ‘진터·갑옷터’로 불린다고 하는데, 신라와 백제가 대치한 陣據였다는 설이 있기 때문이다.⁴³⁾ 이에 ‘與’를 그대로 해석하여 신라군이 백제의 알야산성을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진기’ 지역까지 나아가 백제군과 대치하다가, 백제에 알야산성을 ‘주고(반납)’하고 후퇴하였을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신라의 알야산성 반납 기사는 이 지역이 신라의 공격으로부터 백제의 도성을 지키는 방어요충지이며, 신라·백제군 관련 지명설화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사실이 아닐까 한다.

오늘날 익산 일대의 지형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금마 일대와 낭산산성 일대는 비교적 높은 지역이지만, 낭산산성을 넘어 사비 방면으로 나아가는 일대는 평야와 낮은 구릉 지역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라가 잠시나마 오늘날의 낭산산성까지 진출하였다고 하면, 낭산산성과 사비의 사이는 평야지대였고 망성을 지나 강경으로 가서 강폭이 좁은 논산천을 넘어 陸路로 진행하면 약 35km의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백제는 신라군의 진출에 어느 때보다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⁴⁴⁾ 이러한 상황은 훗날 백제의 익산경영과도 연관이 되었을 것으

38) 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63쪽.

39) 북한 과학원 고전연구실, 『三國史記』上, 과학원출판사, 1958, 95쪽.

40)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譯註 三國史記』 3 註釋篇 上,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26쪽.

41) 그러나 이 기사를 백제 멸망 이후 백제 부흥군과 신라 사이의 전투 기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譯註 三國史記』 4 註釋篇 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327쪽.)

42) 《三國史記》 6, 신라본기 6 善德王 “五年 夏五月 蝦蟆大集宮西玉門池 王聞之 謂左右曰 蝦蟆怒目 兵士之相也 吾嘗聞西南邊亦有地名玉門谷者 意或有隣國兵潛入其中乎 乃命將軍關川弼吞率兵 往搜之 果百濟將軍于召欲襲獨山城 率甲士五百人來伏其處 關川掩擊 盡殺之”

《三國遺事》 第1卷 奇異 第1 善德王知幾三事 “二 於靈廟寺玉門池 冬月衆蛙集鳴三四日 國人怪之 問於王 王急命角干關川弼吞等 鍊精兵二千人 速去西郊 問女根谷 必有賊兵 掩取殺之 二角干既受命 各率千人問西郊 富山下果有女根谷 百濟兵五百人來藏於彼 並取殺之 百濟將軍于召者 藏於南山嶺石上 又圍而射之 又有後兵一千三百人來 亦擊而殺之 一無子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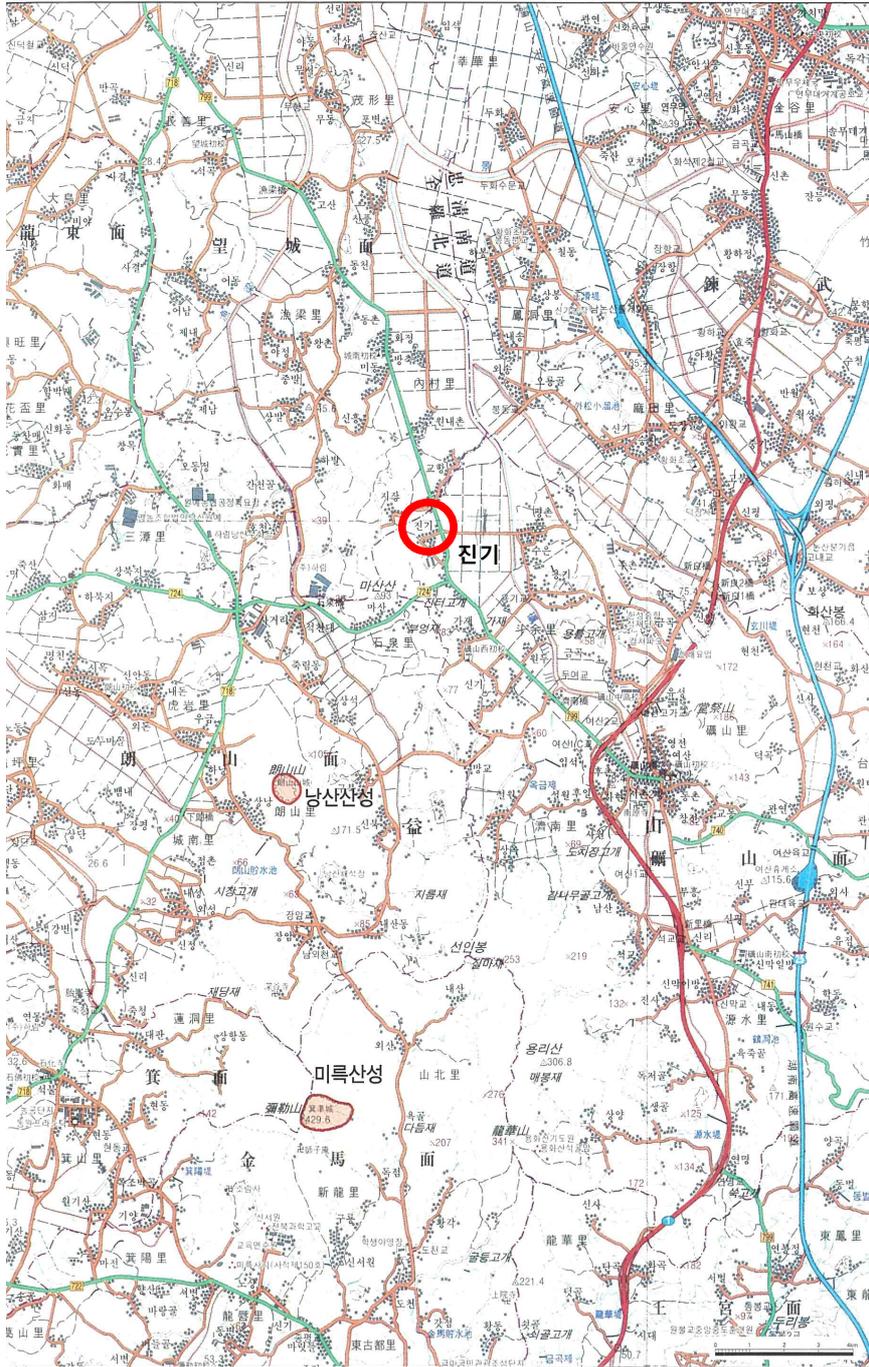
43) 익산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1a, 267쪽.

40년 전까지는 石鏃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삼국 이전의 진터였다는 설도 있다.(익산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1a, 267쪽.)

44) 진기로부터 부여까지는 32km로 그 거리가 더욱 가까워진다.

로 생각된다.

실제로 낭산산성 남쪽의 미륵사지 방향을 제외한 삼면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서쪽으로는 금강에서 함라산을 통과해서 익산방면으로 오는 교통로와 논산에서 익산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⁴⁵⁾



<그림 1> 낭산산성 위치도(1:50,000)⁴⁶⁾

45)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앞의 책, 2016, 47쪽.

46) 전북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7쪽.

선인봉산성, 당치산성 역시 논산~익산방면의 교통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⁴⁷⁾ 다만 천호산성은 그 위치가 익산시와 완주군의 경계에 있어 논산~익산의 교통로를 조망하는 목적보다는 익산에서 완주군을 거쳐 무주로 가는 교통로를 조망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⁴⁸⁾ 그러나 익산지역 관내 동쪽에 있는 가장 높은 천호산(500m)에 있는 산성이기에 익산지역에 산재해 있는 대부분을 조망할 수 있는 거점이라 할 수 있다.⁴⁹⁾

이렇듯 익산시 동쪽 산악지역(낭산면·여산면)의 성곽 유적들은 논산~익산의 교통로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주로 익산 및 완주에서 올라오는 적을 막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익산을 방어하기 위한 성곽 유적이 아니라 부여를 방어하기 위한 성곽 유적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3. 만경강 유역의 성곽 유적

만경강 유역(금마면·왕궁면)에 자리 잡고 있는 5개의 성곽은 위치상 익산 금마면에 있는 미륵사지와 익산 왕궁리 유적과 동일지역이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 다른 두 곳의 성곽들보다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용화산성은 익산지역에 분포한 산성 중 유일하게 주성과 부성(성태봉산성)으로 나누어진 산성이다. 전주·삼례 방면에서 금마면을 거쳐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으며, 오늘날 1번 국도⁵⁰⁾가 지나는 길에 해당한다.⁵¹⁾ 즉, 남북으로 길게 뻗은 용화산 줄기처럼 익산의 북쪽과 남쪽을 조망할 수 있으며, 특히 각각 여산면과 낭산면을 통해 북쪽으로 올라가는 2개의 교통로를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용화산성을 중심으로 익산지역 대부분 성곽이 관측되는데, 서쪽으로는 미륵산성, 북쪽으로는 선인봉산성, 북동쪽으로는 당치산성, 북서쪽은 낭산산성, 동쪽으로는 천호산성, 남쪽과 남서쪽으로는 금마도토성 및 익산토성이 육안으로 확인된다.⁵²⁾

용화산성에 인접한 미륵산성은 북쪽으로는 낭산산성, 동쪽으로는 용화산성과 선인봉산성, 남쪽으로는 익산토성과 금마도토성이 있어 마치 주변 성곽에 둘러싸인 듯한 모습을 띤다.⁵³⁾ 미륵산성이 위치할 미륵산은 익산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천호산에 이어 익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430m) 산이기에, 익산 어느 지점에서든 미륵산은 관측이 된다.⁵⁴⁾ 미륵산 정상에서 사방을 살펴보면 북으로는 논산과 부여가, 서쪽

47)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앞의 책, 2016, 63쪽 및 같은 책 139쪽.

4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위의 책, 2016, 152쪽.

49)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위의 책, 2016, 159쪽.

50) 전라남도 목포시부터 평안북도 신의주시(이는 명목상 기점이며, 실제는 경기도 파주시까지 이어져 있다.)까지를 잇는 대한민국의 세로축 국도다

5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위의 책, 2016, 93쪽.

52)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위의 책, 2016, 88쪽.

53)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위의 책, 2016, 201쪽.

54) 익산의 최북단 중 한 곳인 望城面의 어느 지역에서도 미륵산이 조망된다. 망성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1905년 이후 의병운동이 발발하자 일본 헌병들이 망성면 장선리에 망루대(망성)을 쌓고 경비를 하였던 데에서 찾았다고 한다.[디지털익산문화대전(<https://www.grandculture.net/iksan>), 망성면 편] 하지만 대부분 지역이 해발고도 20m 이내의 낮은 구릉 지대인 면 전 지역에서 미륵산성이 조망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름의 유래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할 법하다.

으로는 군산과 금강이, 남쪽으로는 전주와 김제가, 동쪽으로는 완주가 보인다. 미륵산성 앞으로 낭산면을 거쳐 강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지나고 있지만, 다른 산성 주변의 도로보다는 미륵산의 영향으로 도로의 폭이 좁고 길이 험난하다. 이에 도로로서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그러므로 미륵산성은 교통로를 조망한다는 점보다는 정상에서의 전체적인 익산이 조망이 더욱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된다.

왕궁리유적과 가장 인접한 산성인 금마도토성과 익산토성(금오산성)은 각각 해발 87m와 해발 125m의 낮은 곳에 있다. 이 두 성은 익산지역 성곽 중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특히 익산토성은 익산 경영의 주요유적이라 할 수 있는 왕궁리유적, 쌍릉, 미륵사지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주변의 주요 도로와는 거리가 먼 곳에 있으며, 산성의 북쪽으로 미륵사지 앞을 지나가는 도로가 관망 되며, 남동 방향으로는 1번 국도가 관망 된다.⁵⁵⁾ 금마도토성이 자리 잡고 있는 금마지역은 백제의 金馬漭郡이 설치되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마도토성은 이러한 금마저군의 중심부에 있다.⁵⁶⁾ 이때 금마저군을 통과하는 모든 교통로가 금마도토성의 남쪽에서 교차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으로, 금마도토성에서는 금마를 통과하는 모든 교통로를 감독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⁵⁷⁾

학현산성은 천호산성과 마찬가지로 익산시와 완주군의 경계면에 있다. 왕궁리 유적과 같은 왕궁면이라 거리상은 가깝지만, 주변 교통로는 금마면과 여산면 방향을 향하고 있다. 즉, 왕궁리 유적과의 연관성보다는 방어적인 측면이 더 강한 산성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만경강 유역의 성곽들은 오늘날 익산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교통로의 조망 및 방어를 위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익산시 만경강 유역 성곽 유적 현황⁵⁸⁾

번호	성곽명	높이 (m)	형식	축성 재료	둘레 (m)	면적 (㎡)	고저차 (m)	축조 시기
1	금마도토성	87	테피식	토축	484	17,579	23	백제
2	익산토성	125	산복식	토축	690	26,400	40	백제
3	미륵산성	428	포곡식	석축	1,776	177,109	212	통일신라? 백제?
4	용화산성 (주성)	340	산복식	석축	435	9,846	28	불명
	용화산성 (부성)	324	테피식	석축	189	2,161	16	불명
5	학현산성	214	산복식	석축	700	27,311	67	불명

55)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앞의 책, 2016, 123쪽.

56) 조순흠, 「금마도토성의 축조기법과 연대」, 『2020 고도 익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회의 - 미륵산성과 금마도토성의 사적지정방안』, 익산시·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0, 49~50쪽.

57) 조순흠, 위의 논문, 50쪽.

4. 익산 성곽 유적의 익산 경영과의 관계

지금까지 익산 내 성곽 유적을 살펴본 결과, 익산 경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왕궁리 유적과 직접 관련성이 컸을 성곽을 꼽자면 거리상 가까웠던 익산토성, 금마도토성과 미륵사지의 배후에 있던 미륵산성을 꼽을 수 있다.

거리상 왕궁리 유적과 가장 가까운 익산토성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는 산줄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오금산(해발 125m) 서쪽 봉우리와 능선을 따라 축조된 포곡식산성으로, 성곽의 둘레는 690m 내외이며 전체 면적은 26,400㎡이다. 오금산에 있어 五金山城으로 불리며, 報德城으로도 불리고 있다. 남동쪽으로는 왕궁리 유적(2km), 남서쪽은 쌍릉(1.5km), 북서쪽은 미륵사지(2km), 동쪽으로는 금마도토성(1.4km)이 있어, 지리적으로 익산에 분포한 주요 백제 관련 유적들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⁵⁹⁾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발굴조사 당시 6세기 후반~7세기 초로 추정되는 단경호·직구호·삼족기·개배·벼루 등의 백제시대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毛’, ‘煎’, ‘解’ 등의 명문이 보이는 인장와편이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그림2>의 ‘首府’명 인각와 1점과 ‘北舍’ 명 토기편 1점이다.⁶⁰⁾ 이 중 ‘首府’명 기와가 발견된 예는 1992년 부소산성 군창지 남측 평탄지 조사에서 1점이 출토된⁶¹⁾ 이래 현재까지 모두 18점이 보고되어 있을 뿐이다.⁶²⁾ 이렇게 ‘首府’명 인각와는 한정적인 유물로 왕궁리유적과 익산토성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기도 하다.



<그림 2> 익산토성 출토 토기⁶³⁾

5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앞의 책, 2016, 47~210쪽.

59)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위의 책, 2016, 120쪽.

60) 익산시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hiksanin>) ‘익산토성에서 백제 수도임을 증명하는 「首府」명 기와 출토」

6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소산성-발굴조사중간보고 II-』,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7, 19쪽

62) 부여 출토품은 전술한 부소산성 군창지 1점 이외에 관북리 추정 왕궁지에서 6점이 더 나와 현재 모두 7점이고, 익산 왕궁리유적에서는 11점이 채집되었다.(박순발, 「백제 도성의 시말」, 『중앙고고연구』 13,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a, 23쪽.)

63) 익산시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hiksanin> ‘익산토성에서 백제 수도임을 증명하는 「首府(수부)」명 기와 출토」

‘首府’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먼저 ‘首府’를 ‘ 으뜸’과 ‘관부’의 단순한 합칭으로 여겨 ‘한 나라의 首都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때도 있다.⁶⁴⁾ 또 다른 ‘首府’에 의미는 중국에서 시작한 의미로 ① 지방 행정단위로서 省의 소재지 관부, ② 자치구나 자치주 정부 주재지, ③ 속국 및 식민지 최고 정부 기구 소재지 등의 의미가 있는데, 백제에서 발견된 ‘首府’는 백제 고지 지배를 위해 당이 설치한 관부, 즉 熊津都督府를 뜻한다는 의견이 있다.⁶⁵⁾ ‘首府’가 어떠한 의미가 있더라도 분명 백제 내 중요지역 특히, 도성과 연관된 지역에서 발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익산토성은 익산의 여러 성곽 유적 중 지리적·정치적으로 왕궁리 유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⁶⁾

왕궁리 유적과의 거리가 익산토성과 비슷한 금마도토성은 익산토성과 마찬가지로 해발 87m의 낮은 성곽이며, 전체 면적이 약 17,579㎡로 익산지역 성곽 중에서 선인봉산성 다음으로 작은 산성이다. 1978년 지표 조사와 1991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로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상부대관(上部大官)’명의 명문와가 출토되었다. 또한, 축○(祀○), 지(止), 병(丙), ○조(○助) 등이 적힌 다수의 인장과, 치미룩사(治彌勒寺), 금마저성(金馬渚城), 미룩사(彌勒寺), 관(官), 대신모(大新謀)가 새겨진 명문와가 출토되었다.⁶⁷⁾

금마도토성⁶⁸⁾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금마도토성은 금마를 통과하는 모든 교통로를 감독할 수 있는 위치이며, 이를 통해 익산 경영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미룩사지와 익산 왕궁리 유적 사이의 교통망 관측과 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⁶⁹⁾

마지막으로 미룩산성은 해발 430m의 미룩산 정상부와 북쪽의 봉우리를 포함하여 동쪽 계곡을 감싸는 포곡식 석축산성이며, 그 둘레가 1,776m로 익산지역 성곽 중 가장 큰 규모의 산성이다.⁷⁰⁾ 미룩산성에서 발굴된 유구는 대체로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로 파악된다.⁷¹⁾ 그러나 《고려사》,⁷²⁾ 《세종실록지리지》,⁷³⁾ 《신증동국

6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1997, 294쪽.

65) 박순발, 「사비도성과 익산 왕궁성」, 『마한백제문화』 2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3b, 24~26쪽.

66) 최완규는 부여의 관북리 궁성 추정지와 배후성인 부소산성의 관계를 왕궁리유적과 배후성으로서의 익산토성과 관계하여 보았다. (최완규, 「백제도성과 익산」, 『마한백제문화』 34,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9, 27쪽.)

67) 조순흠, 앞의 논문, 49쪽.

68) 금마도토성의 본 명칭은 ‘都土城’이란 명칭으로 바로 ‘도읍에 가까운 토성, 또는 ‘도성’의 뜻을 갖는 토성, 도성의 역할을 하는 토성이란 뜻에서 이루어진 명칭으로 보았다. 그리고 ‘꺄대숲산성’은 꺄대숲에 있어서 붙여진 명칭이고, ‘성황산성’은 이곳에 ‘성황단’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행정산성’은 고 홍사준선생님의 전언에 의하면 ‘백제시대에는 군대가 상주하는 도성이 있는 마을에는 반드시 후자가 붙은 지명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금마의 도읍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가 상주하던 지역이라는 것이다.(이강오, 「金馬 報德城의 位置에 대한 考察」, 『고고미술』 138·139, 미술사학연구, 1978; 임홍락, 「백제 금마저의 지리적 접근과 금마도토성」, 『2019 고도 익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회의 - 도성체계에서 본 백제왕도, 익산의 관방유적』, 익산시·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9, 71쪽 재인용)

69) 각주 104번 참조

70)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앞의 책, 2016, 201쪽.

71) 원광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2008, 132쪽.

여지승람》⁷⁴⁾ 등에서 확인된 箕準城과의 관련된 이야기를 고려하면 백제시대 유구가 파괴되었을 뿐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축성 가능성 역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미륵산성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미륵산성을 중심으로 다른 8개의 산성이 放射狀으로 배치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왕궁리 유적과는 별개로 산성 방어 중심에는 미륵산성이 있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⁷⁵⁾

하지만 왕궁과 별개로 산성 방어를 구상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고구려가 새로운 수도인 평양으로 천도한 후 대동강변의 자연지형을 이용해 쌓은 장안성은 현재 북성·내성·중성·나성(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 전체적인 지리적 형세는 북쪽으로 산을 끼고 동·서·남으로 大同江과 普通江이 둘러 있으며, 북성과 내성은 산지대를 이용하여 쌓아 지대가 높고 외성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⁷⁶⁾ 백제 사비의 나성은 북나성, 동나성 구간에 남아 있고 서쪽의 백마강과 더불어 도성지 사비를 경계하는 시설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사비도성은 내성 외곽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성은 그중에 외곽의 기능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⁷⁷⁾

이러한 관점에서 익산의 방어 체계는 평양·사비와는 다르게 나성을 축조하기보다는 미륵산성을 중심으로 방사상 형태로 외부와 연결되는 길목에 산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나성을 쌓는 대신 경주분지 주변 곳곳에 산성을 쌓아 방어망을 구축한 신라의 수도 방어 체계와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⁷⁸⁾ 다만 신라의 경주분지 내 산성은 사서 기록과 발굴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축성 시기가 파악되지만⁷⁹⁾ 이에 반해 익산지역 산성은 사서에 남아 있는 기록이 한정적이고, 아직 발굴조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므로 축성 시기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륵산성이 익산토성보다 방어에 유리한 측면이 크다는 점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즉, 익산토성이 왕궁성과 밀접한 곳으로 비상시 피난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72) 《高麗史》卷 57 地 卷 11 地理 2 全羅道 全州牧 金馬郡 “金馬郡本馬韓國 …中略… 有彌勒山石城【諺傳, 箕準始築, 故謂之箕準城】”

73) 《世宗實錄地理志》全羅道 全州部 益山郡條 “彌勒山石城【諺傳箕準始築 謂之箕準城 周回六百八十六步有奇 內有泉十四 冬夏不渴 有軍倉】”

74) 《新增東國輿地勝覽》第33卷 全羅道 益山郡條 “箕準城 在龍華山上 俗傳箕準所築 故名焉 石築 周三千九百尺 高八尺 有溪 有泉井”

75) 이문형은 이러한 익산지역의 방어 체계가 이원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즉, 하나는 왕이 거처하는 왕궁성을 방어하는 체계이며, 다른 하나는 정신의 거처인 미륵사를 방어하는 체계였다는 것이다. 이 이원적 방어 체계는 주변의 자연지형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여 구축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즉, 왕궁성의 방어 체계는 주변의 전통 하천을 이용하며, 미륵사는 동쪽의 산지를 활용하여 조망과 교통로 상에 산성을 배치하여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익산토성과 왕궁성을 연결하고 미륵사를 가시권에 들으로써 이원적 방어 체계의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주장하였다.(이문형, 「백제 무왕시기 익산지역의 방어체계」, 『중앙고고연구』 34, 중앙문화재연구원, 2021, 50쪽.)

76) 김희선, 「高句麗 長安城의 築城過程과 遷都의 背景」, 『역사문화연구』 2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5, 5쪽.

77) 이남석, 「泗泚都城의 景觀과 羅城의 築造背景」, 『백제문화』 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4, 271쪽.

78) 강종훈, 「신라 왕경의 방어체계 - 경주 지역 성곽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2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6, 20쪽.

79) 강종훈, 위의 논문, 13~17쪽.

산성의 규모나 위치, 높낮이 차 등을 볼 때 미륵산성이 더 피난처로 유리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왕궁성은 해발 41.8m의 평지에 가까운 지역에 건설되었는데, 익산토성 역시 해발 125m로 비교적 낮은 곳에 있는 토성이다.⁸⁰⁾ 반면에 미륵산성은 해발 428m의 높은 산성이며, 규모 면에서도 26,400㎡의 익산토성보다 미륵산성이 177,109㎡로 약 6.5배 더 큰 규모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신라의 공격을 대비한 왕궁성의 방어적 측면에서는 익산토성보다는 미륵산성으로 대피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특히 전체 면적 216,862㎡인 왕궁성의 상주 인원이 비상시 면적이 1/10에 불과한 익산토성으로 피난하는 것보다 약간 작은 규모의 미륵산성으로 대피하였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익산토성은 왕궁성과 연관된 행정적 요소 또는 군사적 요소를 보조하는 성이며⁸¹⁾, 금마도토성은 미륵사지와 익산 왕궁성 유적 사이의 교통망을 관장하는 성이며, 미륵산성이 비상시 사용되는 피난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익산의 도시 공간 범위

都城은 왕이 평상시 거주하는 궁성과 관부 및 그 주위를 에워싼 城郭으로, 군사적인 목적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었다.⁸²⁾ 중국의 도성들은 왕이 머무르고 있는 宮殿을 둘러싸고 있는 ‘宮城’과 관부가 밀집된 ‘內城(皇城)’과 병사, 농민, 수공업자 등의 집락이 있는 외부 공간을 둘러친 ‘外郭’으로 구성된 하나의 성곽도시 형태였다.⁸³⁾

중국의 도성은 기본적으로 井田계획의 모형에 따라서 구성되었으며, 궁성을 주체로 중심구를 확립하고 대칭적으로 앞에는 朝廷, 뒤에는 市場, 좌측에는 祖를, 우측에는 社를 안배하였다.⁸⁴⁾ 그리고 궁성의 남북 주축선을 도성 계획의 주축선으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로망을 채용하였는데 九經九緯로 조성된 3개의 큰길을 主干으로 하여 그와 평행하게 남~북, 동~서의 간선도로를 배치하고 외곽의 성벽을 따라 순환도로를 결합해서 구성하였다.⁸⁵⁾

이러한 도성제 관점에서 익산을 살펴보면 왕궁리 유적의 궁성이 남북으로 긴 장방형이며 동서폭과 남북길이가 약 1:2의 비율을 이루고 있고⁸⁶⁾, 궁성의 이러한 평면 형태는 기본적으로 방형 또는 장방형 구획을 위주로 하는 중국 도성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상황을 알 수 있다.⁸⁷⁾ 이에 더하여 앞서 검토한 익산이 가진 도성 유적을

80) 익산 지역 백제와 관련된 성곽 11개 중 2번째로 낮은 곳에 있는 상황이다.

81) 익산토성에서 ‘首府’명 인각와 1점과 ‘北舍’명 토기편 1점이 발견된 것 역시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82)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 포털 한국고고학사전(2001)(<https://portal.nrich.go.kr>)

83)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 포털 한국고고학사전(2001)(<https://portal.nrich.go.kr>)

84)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 포털 한국고고학사전(2001)(<https://portal.nrich.go.kr>)

85)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 포털 한국고고학사전(2001)(<https://portal.nrich.go.kr>)

86) 김용민, 「益山 王宮城의 造營과 空間區劃에 대한 考察」, 『古代 都市와 王權』, 서경문화사, 2005, 249쪽.

고려해보면 익산은 근본적으로 도성으로 경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익산의 도성구조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방룡은 익산 왕도의 범위에 대해 왕궁리 유적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제석사지, 서쪽으로는 쌍릉, 북쪽으로는 나성의 역할을 하는 楮土城과 益山土城, 서북쪽으로는 미륵사지와 연동리사지, 남쪽으로는 왕궁면 왕궁리 우물 등이 분포하는 지역이라고 주장하였다.⁸⁹⁾ 최완규는 익산 왕도의 범위에 대해 북쪽으로는 익산토성과 금마도토성, 서쪽으로는 옥룡천, 동쪽으로는 부상천 그리고 남쪽으로는 부상천·옥룡천 합수 지점을 설정하였다.⁹⁰⁾ 더불어 익산지역에는 왕흥사인 미륵사나 묘사인 제석사 외에도 왕궁, 왕릉, 성곽 등이 완벽하게 남아 있어 백제 수도로서의 면모를 잘 살필 수 있고, 익산이 《주례》考工記의 ‘左祖右社面朝後市’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⁹¹⁾ 김용민은 왕궁리 유적이 중국 동위·북제의 업남성이나 당대의 장안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⁹²⁾ 박순발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다만 백제가 업남성을 참고로 왕궁리 유적을 만들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중국 도성사의 전개 속에서 당대 중국 도성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⁹³⁾ 특히 북위 평성의 鹿苑이나 당의 장안성 禁苑의 연장선에서 금마시가지지를 포함한 배후의 미륵산과 용화산 일대를 익산도성의 禁苑區로 설정하였다.⁹⁴⁾ 이경찬은 익산지방의 지형특성과 <그림 3>의 백제유적 분포상황을 연계하여 백제시대 익산도성의 계획구역을 분석했는데, 자연 친화적인 도성 계획을 채용한 앞 시대 도성의 형태를 취하였고, 특히 중국 고대 도성과 맥을 같이한다고 주장하였다.⁹⁵⁾

이 중 일정한 도시 공간의 범위를 예시를 들어 제시한 박순발과 이경찬의 의견을 검토해 보겠다. 먼저 박순발은 쌍릉과 제석사의 위치를 근거로 고대 익산의 도시 공간 범위를 추정하였다.⁹⁶⁾ 박순발은 서쪽으로는 경계구역에 포함할 수 없는 쌍릉을 경계구역의 한계로 삼았는데, 이 지점이 왕궁으로부터 2km가량 떨어져 있었기에, 이를 대칭으로 하여 동쪽으로 2km 지점에 있는 제석사 경계구역 바깥쪽을 서쪽 경계구역의 한계로 삼았다.⁹⁷⁾ 이를 근거로 박순발은 <그림 4>와 같이 고대 익산의 동서 범위를 왕궁을 중심으로 각각 2km, 즉 동서 폭 4km의 범위를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였다.⁹⁸⁾ 경계구역의 남북길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서는 없으나, 박순발은

上,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4, 134쪽.

89) 박방룡, 「백제 익산 왕도의 성립과 위상」, 『마한백제문화』19,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0, 83쪽.

90) 최완규, 앞의 논문, 28쪽.

91) 최완규, 위의 논문, 2012, 95쪽.

92) 김용민, 앞의 논문, 2005, 254쪽.

93) 박순발, 『백제의 도성』, 충남대학교출판부, 2010, 318~319쪽.

94) 박순발, 앞의 논문, 2013b, 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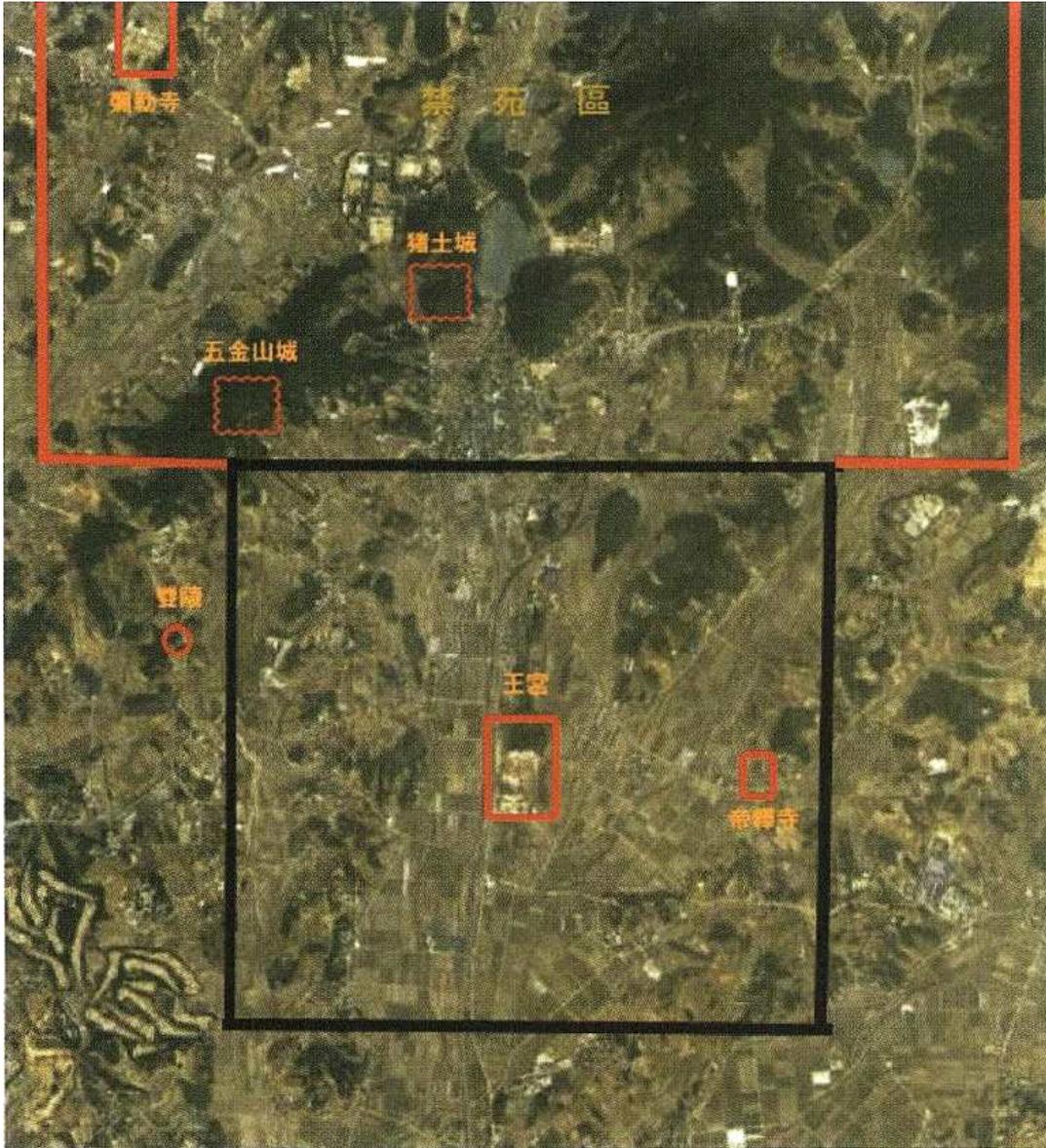
95) 이경찬, 「백제 후기 익산도성 조영계획모델에 대한 도성계획사적 해석」, 『건축역사연구』 24-3, 한국건축역사학회, 2015, 36~40쪽.

96) 박순발, 「동아시아 도성사에서 본 백제도성」, 『왕궁성 : 고대 동아시아 도성과 익산』 上,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4, 32쪽.

97) 박순발, 위의 논문, 2014, 32쪽.

98) 박순발, 위의 논문, 2014, 32쪽.

익산토성 및 저토성의 위치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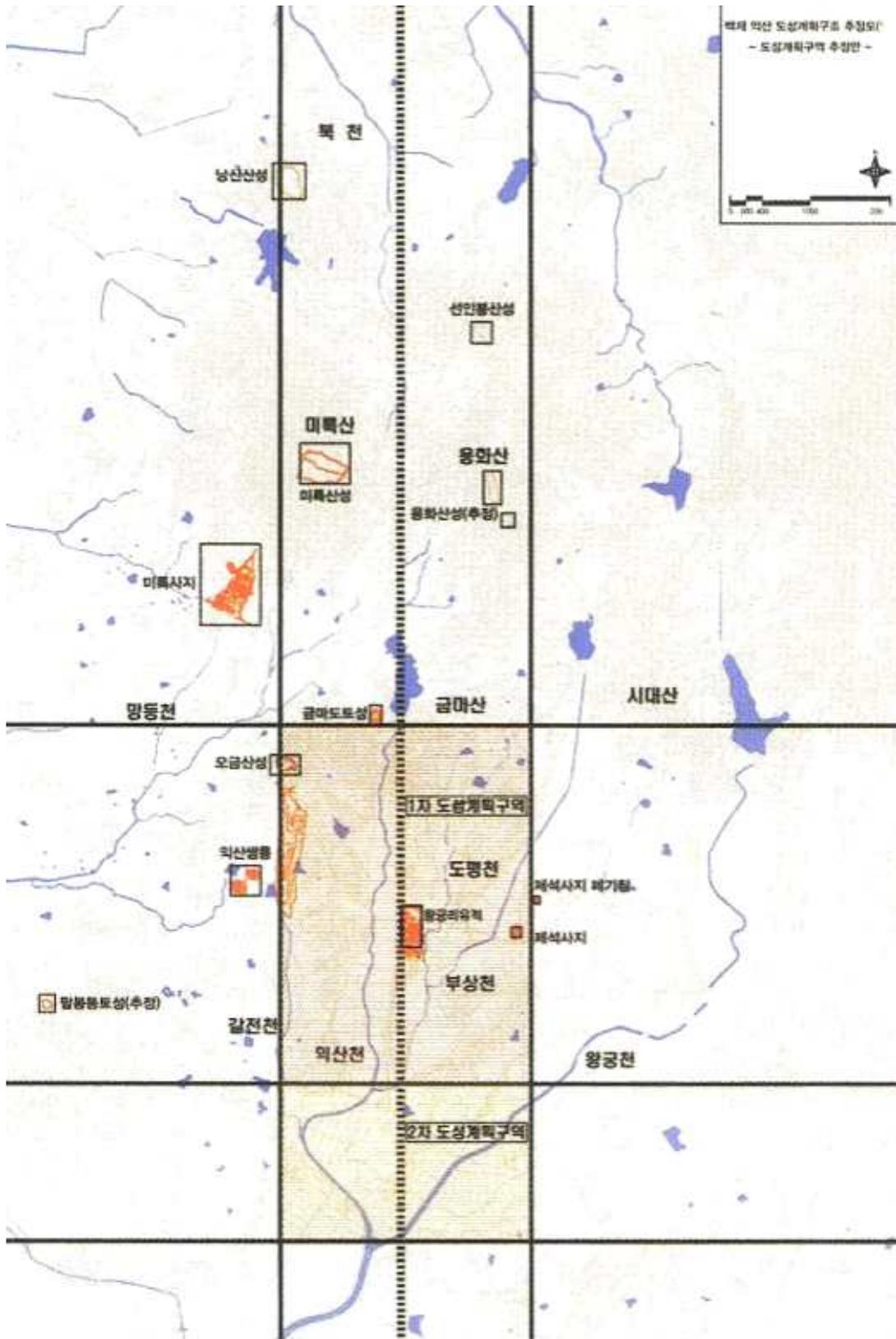


<그림 4> 고대 익산의 도시 공간 범위(박순발 案)¹⁰⁰⁾

99) 박순발, 위의 논문, 2014, 32쪽.

이 두 산성은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산성 유적 가운데 백제시대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성을 도성의 경계구역에 포함하기는 어려우나, 왕궁의 배후에 있는 점은 사비도성의 技蘇山城 위치와 비교된다. 부소산성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아직 없으나, 왕궁과의 근접성으로 미루어 後苑의 기능과 함께 일단 유사시 왕이 대피할 수 있는 군사적 방어력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역대 도성사에서 보면, 왕궁 북쪽의 넓은 지역을 皇室 전용의 후원, 즉 禁苑으로 설정한 예가 있다. 북위 평성의 鹿苑은 도성 경계구역의 북쪽에 위치하는데 그 범위는 무려 남북 25km에 달한다. 내부에는 離宮, 狩獵場, 佛寺 등이 조영되어있다. 그리고 당 장안성의 배후에도 약 4km(약 120만 평)에 달하는 넓은 금원이 있다. 물론 한반도 고대 삼국의 예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나, 사비도성 부소산성의 존재로 보아 익산토성 및 저토성은 도성 후원에 있는 禁軍 혹은 방어군의 주둔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박순발, 앞의 논문, 2014, 32~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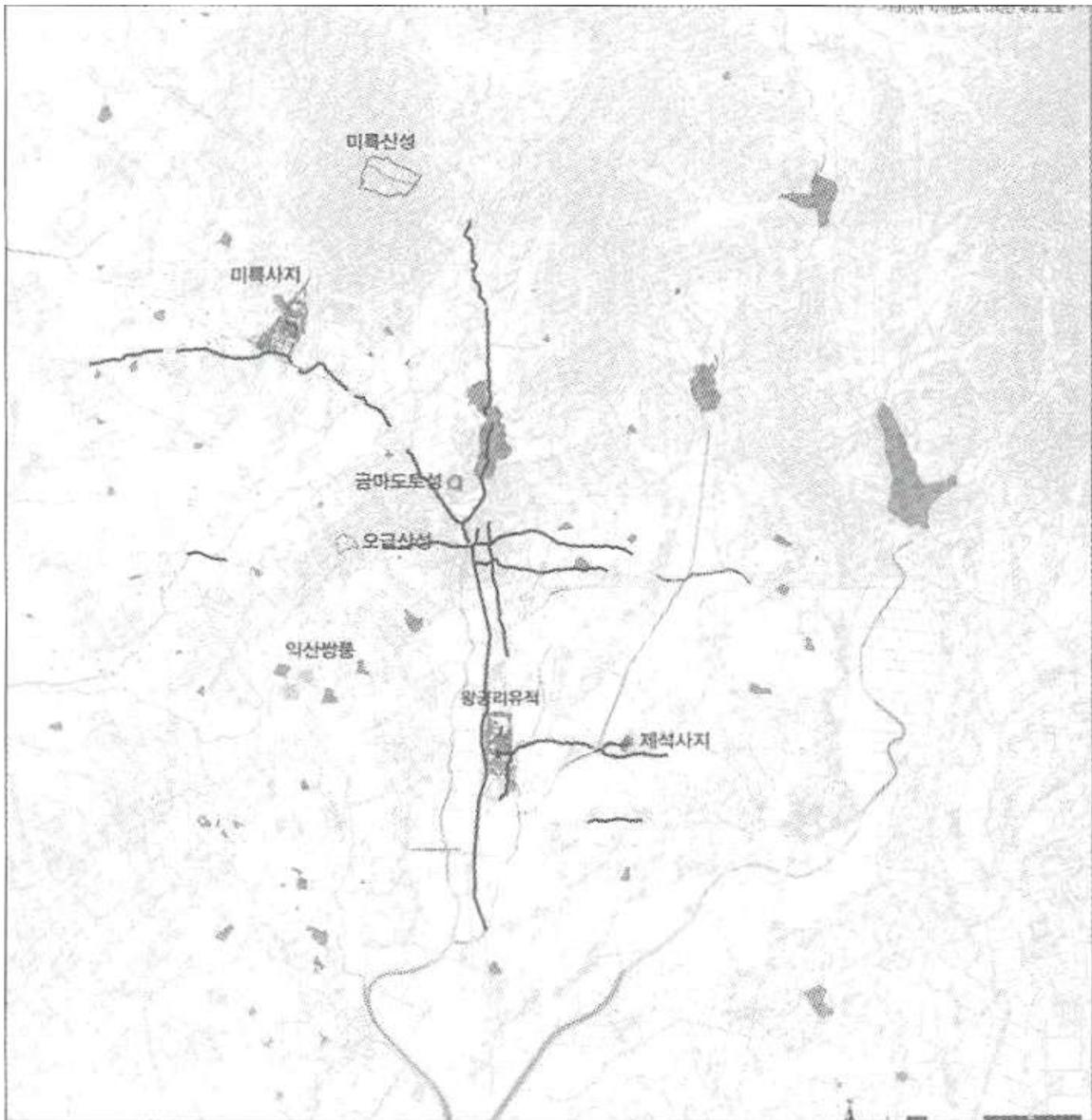
100) 박순발, 위의 논문, 2014, 32쪽.



<그림 5> 고대 익산의 도시 공간 범위(이경찬 案)¹⁰¹⁾

101) 이경찬, 앞의 논문, 2014, 137쪽.

이경찬은 익산지방의 지형특성과 백제유적 분포상황을 연계하여 <그림 5>과 같이 백제시대 익산도성의 계획구역을 분석하였다. 우선 서쪽으로 익산 쌍릉을 외곽에 두고 익산도성으로부터 갈전천으로 이어지는 선, 동쪽으로 제석사지 동회랑지와 인접한 동쪽 남북축선으로, 북측으로는 금마도토성과 시대산을 연결하는 선상으로 동서축선이 설정된다.¹⁰²⁾ 한편 남측으로는 일차적으로 익산천과 부상천의 합류 지점을 통과하는 동서축선, 이차적으로 익산천과 왕궁천의 합류 지점을 통과하는 동서축선이 설정된다.¹⁰³⁾



<그림 6> 익산지역 주요 도로(1915년 지적원도)¹⁰⁴⁾

102) 이경찬, 앞의 논문, 2014, 135쪽.

103) 이경찬, 위의 논문, 2014, 135쪽.

104) 이경찬, 위의 논문, 2014, 134쪽.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림 6>의 1915년 지적원도에 보이는 익산지역 주요 도로와 일본의 후지와라쿄(藤原宮)·후지와라쿄(藤原京)의 조영과 관계된 내용이다.

먼저 1915년 지적원도에는 왕궁리 유적을 지나 북쪽의 미륵산과 미륵산성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 왕궁리 유적에서 제석사지로 동쪽으로 가는 도로, 익산토성 아래쪽에 있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명확하게 보인다. 이러한 도로는 익산지역의 주요 산성을 향해 있으며, 이는 유사시 피난로로 사용된 것 같다. 특히 익산토성이 가장 근접한 피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보통 산성을 도성의 경계구역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익산 도성 경계구역의 북쪽은 익산토성 아래쪽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경계가 될 것이다.

또한, 7세기 말 조영된 일본의 후지와라쿄(藤原宮)·후지와라쿄(藤原京)에서 익산 도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지토(持統) 8년(694) 12월 6일, 지토 천황은 궁을 아스카노 기요하라노 미야(飛鳥淨御原宮)에서 후지와라쿄(藤原宮)로 옮겼는데, 이것은 일본 도성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었다.¹⁰⁵⁾ 그 이유는 후지와라쿄(藤原京)의 한 구획에 궁을 조영하도록 설계한 일본 최초의 계획 도성이었기 때문이다.¹⁰⁶⁾

후지와라쿄(藤原京)는 도성의 한 가운데 왕궁을 배치한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재하는 중국의 도성이 아닌, 《周禮》考工記에 나오는 이상적인 도성을 모델로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⁰⁷⁾ 이 후지와라쿄(藤原宮)·후지와라쿄(藤原京)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백제의 멸망과 ‘백촌강싸움’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¹⁰⁸⁾ 즉, 663년의 ‘백촌강싸움’에 의해 백제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자 백제로부터 많은 ‘백제 유민’이 倭國으로 건너오게 되었고, 이들의 영향으로 일본은 울령국가라는 고대국가의 완성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울령국가의 초입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694년의 후지와라쿄(藤原京)의 건설이라는 것이다.¹⁰⁹⁾ 즉, 후지와라쿄(藤原宮)·후지와라쿄(藤原京) 건립에 있어 백제의 영향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병호는 <그림 7>의 후지와라쿄(藤原宮)·후지와라쿄(藤原京) 건립에 있어 경주와 후지와라쿄(藤原京)가 유사한 정치과정 속에서 조영되었고, 도성 조영의 배경이나 구성 요소들에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주장하였다.¹¹⁰⁾ 그리고 백제에는 후지와라쿄(藤原京) 조영에 《주례》가 부각되는 배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¹¹¹⁾

105) 深澤芳樹, 「藤原宮·京의 成立」, 『마한백제문화』 2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3, 133쪽.

106) 深澤芳樹, 위의 논문, 133쪽.

107) 이병호, 「백제와 신라, 일본 고대 도성의 비교 연구」, 『마한백제문화』 36,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0, 71~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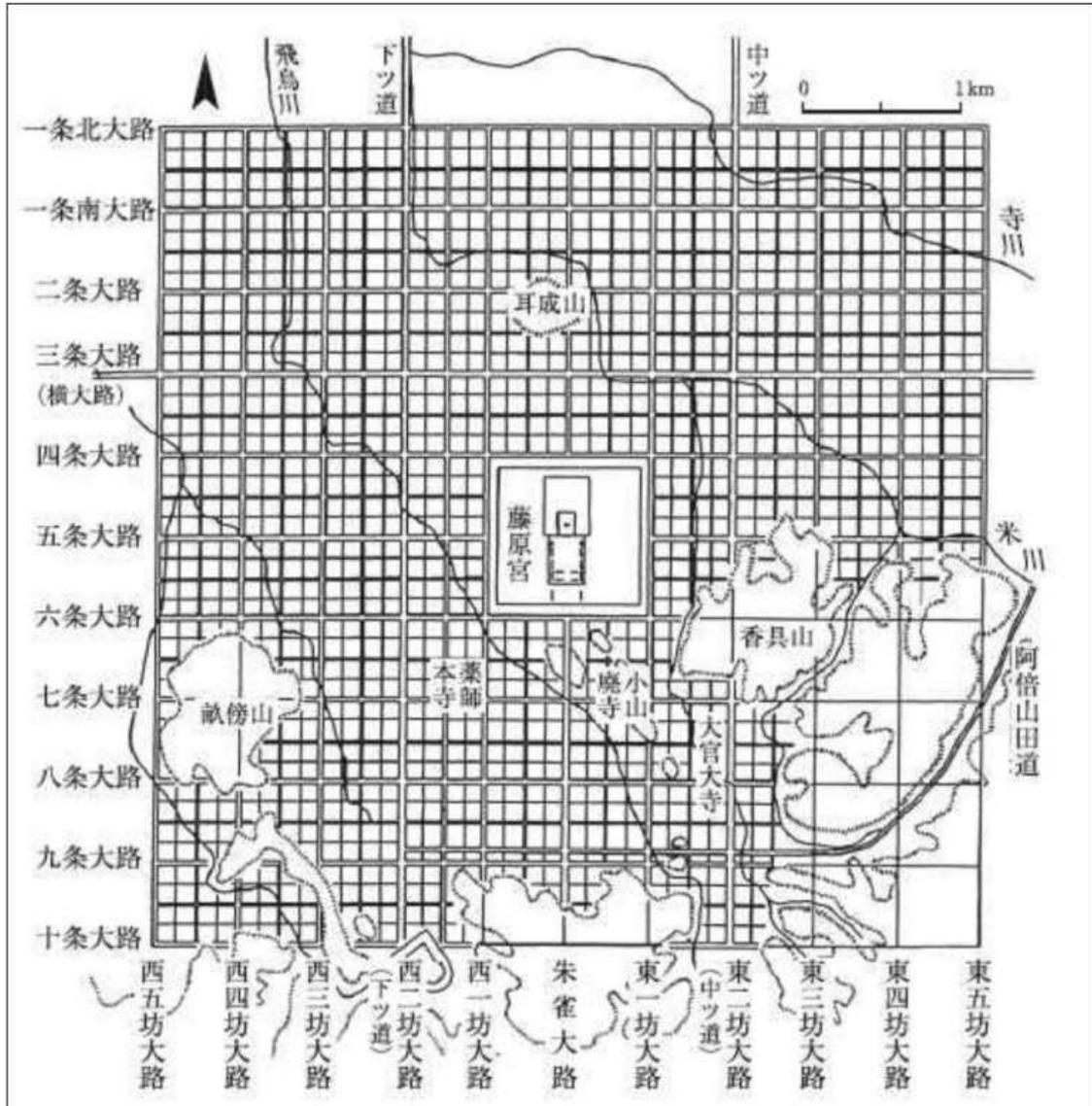
108) 송완범, 「고대일본의 宮都에 대하여 - 변천과 의미를 중심으로 - 」,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8, 62쪽.

109) 송완범, 위의 논문, 2008, 262쪽.

110) 이병호, 위의 논문, 2020, 72쪽.

111) 이병호, 위의 논문, 2020, 74쪽.

이병호는 백제의 도성에서는 조방제가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飛鳥京 및 그 주변과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고, 7세기 후반 전면적인 가로구획이 시행된 신라의 경주는 藤原京의 조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飛鳥時代의 왕궁과 정원, 사원, 공방 등이 백제의 부여나 익산의 도성 관련 유적과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이병호, 위의 논문,



<그림 7> 藤原宮의 조방과 왕궁의 위치¹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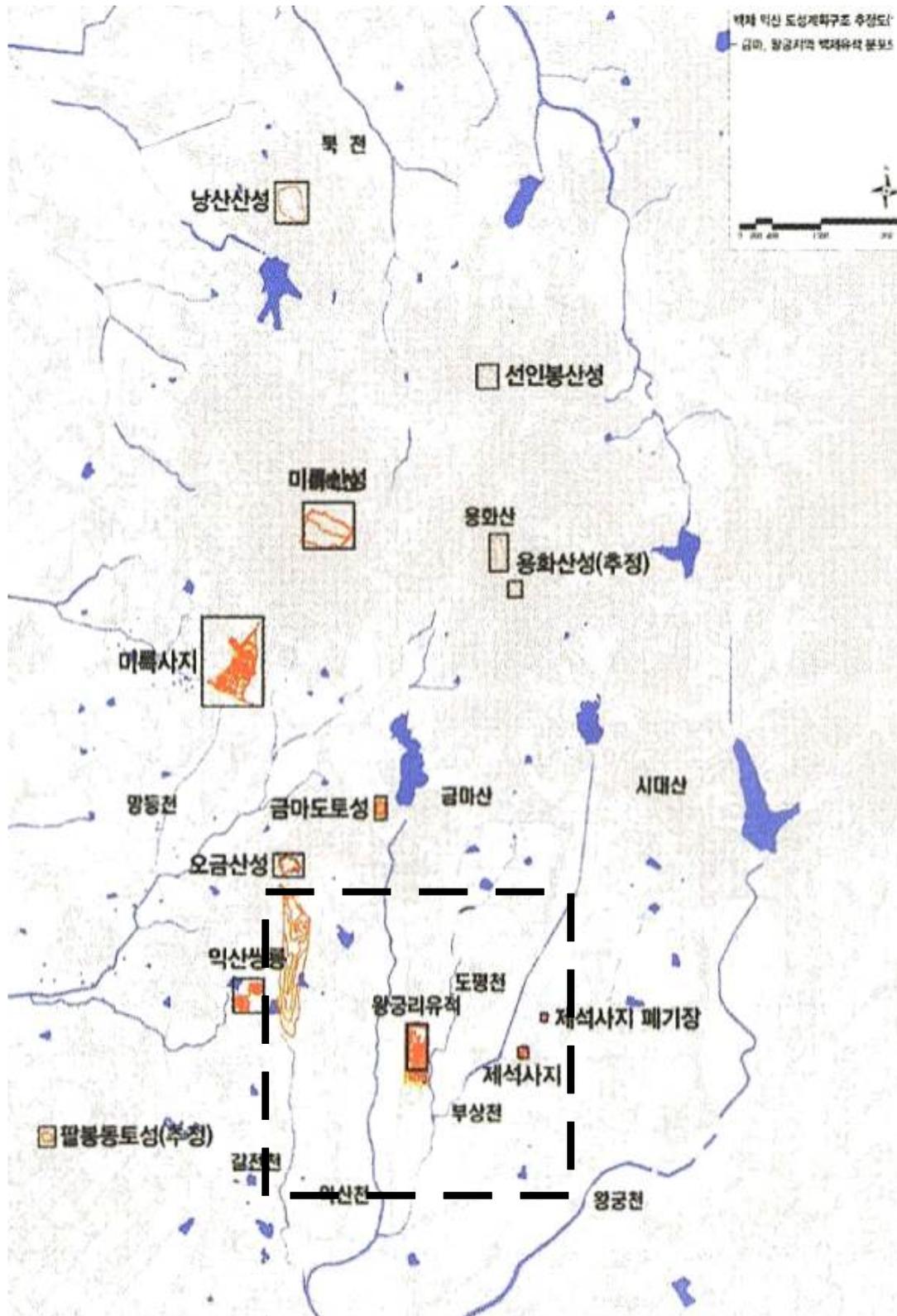
현재까지 백제 도시구조에 완전한 조방제가 도입되었는지 나타난 확실한 유적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궁남지 서북편, 군수리, 능산리·가탑리 일대, 쌍북리 280-5번지·북포·현내들 등의 도로 유구를 근거로 사비시대에 도성 전역에 대한 일정한 구획, 즉 조방제의 존재를 시사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¹¹³⁾ 더불어 왕궁리 유적 동남쪽 약 315m 떨어진 지점의 탑리 마을에서 확인된 도로 유구는 남북 도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동서 도로가 교차하고 있는 격자 형태를 띠고 있다.¹¹⁴⁾ 그리고 통일신라

2020, 68~72쪽.)

112) 小澤毅, 『古代宮都と関連遺跡の研究』, 吉川弘文館, 2018, 28쪽.

113) 박순발, 「泗泚都城의 京觀에 對하여」, 『古代 都市와 王權』, 서경문화사, 2005, 11~15쪽.

114) 최완규, 앞의 논문, 2019, 28쪽.



<그림 8> 고대 익산의 도시 공간 범위(박순발 案 보강)¹¹⁵⁾

115) 지도의 기본 구조는 이경찬, 앞의 글, 2014, 134쪽 참조. <그림 8> 고대 익산의 도시 공간 범위는 큰 틀에서 박순발이 주장한 익산의 도시 공간 범위와 그 범위는 같다. 다만, 박순발은 경계구역의 남

에서 계획된 것으로 알려진 무진주(오늘날 光州)의 방리 안에서도 백제 후기와 통일신라 초기의 유물과 유구가 연속되듯이 나옴에 따라 조방제가 반영된 무진주의 도시계획은 백제가 기원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¹¹⁶⁾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익산의 도성 구조 역시 조방제를 근간으로 하여 구성된 것 같다. 특히 일본의 후지와라쿄(藤原宮)·후지와라쿄(藤原京) 건설에 있을 때 ‘백제 유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때 익산의 도성을 건축한 경험까지 영향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그림 7>의 후지와라쿄(藤原宮)·후지와라쿄(藤原京)의 구조와 <그림 6>의 1915년 도로 지적원도를 근거로 익산 도성의 공간 범위를 산정해보면 <그림 8>과 같이 북쪽은 익산토성 아래쪽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경계로, 서쪽으로는 쌍릉을 경계구역의 한계로, 동쪽으로는 제석사 사역 바깥쪽을 서쪽 경계구역의 한계로, 남쪽으로는 익산천과 부상천의 합류 지점 경계로 하여 왕궁을 중심으로 동서 폭 4km, 남북 폭 4km의 《주례》 고공기에 나오는 도성의 모습을 구현한 것이다.

IV. 맺음말

익산에는 현재 총 13개의 성곽 유적이 분포하고 있고, 조선시기에 세워진 2개의 읍성을 제외하면 총 11개의 백제와 연관된 성곽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성곽 유적은 금강유역과 연관된 함라면·웅포면에 2개, 왕궁성 주변 지역인 동쪽 산악지역(낭산면·여산면)에 4개, 만경강 유역(금마면·왕궁면) 지역에 5개가 분포되어 있다.

금강유역의 함라면과 웅포면에 자리잡은 2개의 성곽 유적은 인근에 있는 군산지역의 성곽 유적 및 강 건너 서천지역의 송내리산성, 영모리산성 등과 함께 금강 하구의 방어선을 구축한 최전선이며, 익산으로 가는 육로를 관찰한다.

익산시 동쪽 산악지역의 4개의 성곽 유적은 모두 산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4개의 성곽 유적은 논산~익산의 교통로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주로 익산 및 완주에서 올라오는 적을 막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익산을 방어하기 위한 성곽 유적이 아니라 부여를 방어하기 위한 성곽 유적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만경강유역에 자리 잡고 있는 5개의 성곽은 위치상 익산 금마면에 있는 미륵사지와 익산 왕궁리 유적과 동일지역이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 다른 두 곳의 성곽들보다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그 위치가 오늘날 익산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 산성은 주 기능이 교통로의 조망 및 방어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중 왕궁리 유적과 거리상 가까웠던 익산토성, 금마도토성과 미륵사지의 배후

북길이에 대해 구체적인 단서는 없이 익산토성 및 금마도토성의 위치를 참고하여 설정하였고, 보강안은 1915년 도로 지적원도를 근거로 하여 북쪽 경계를 익산토성 아래쪽에 있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는 도로를 경계로 익산의 도시 공간 범위를 세웠다는 차이가 있다.

116) 도도로키 히로시, 「지적원도를 활용한 신라 무진주(무주) 경관 복원」, 『한국고지도연구』 12-1,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20, 19쪽.

에 있던 미륵산성을 익산 경영과 관계된 주요 성으로 꼽을 수 있다. 익산토성은 왕궁성과 연관된 행정적 요소 또는 군사적 요소를 보조하는 성, 금마도토성은 미륵사와 익산 왕궁성 유적 사이의 교통망을 관장하는 성, 미륵산성은 비상시 사용되는 피난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여러 성곽으로 둘러싸인 익산의 상황에서 그 도성 구조를 조방제를 근간으로 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일본의 후지와라큐(藤原宮)·후지와라쿄(藤原京) 건설에 있을 때 ‘백제유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때 익산의 도성을 건축한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익산 도성 유적 및 후지와라큐(藤原宮)·후지와라쿄(藤原京)의 구조와 1915년 도로 지적원도를 근거로 익산 도성의 공간 범위 산정이 가능했다. 북쪽은 익산토성 아래쪽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경계로, 서쪽으로는 쌍릉을 경계구역의 한계로, 동쪽으로는 제석사 사역 바깥쪽을 서쪽 경계구역의 한계로, 남쪽으로는 익산천과 부상천의 합류 지점 경계로 하여 왕궁을 중심으로 동서 폭 4km, 남북 폭 4km의 도성 범주가 나왔다. 이는 《주례》 고공기에 나오는 도성의 모습을 구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문

《高麗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咸悅舊誌》

2. 단행본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소산성-발굴조사중간보고 II-』,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7.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만경강 하천기본계획(보완)보고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1.
- 박순발, 『백제의 도성』, 충남대학교출판부, 2010.
- 북한 과학원 고전연구실, 『三國史記』上, 과학원출판사, 1958.
- 小澤毅, 『古代宮都と關連遺跡の研究』, 吉川弘文館, 2018.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금마 도토성 문화재발굴(표본)조사 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5.
- 『보덕성발굴약보고(일명 익산토성)』,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1.
- 『익산 미륵산성-동문지 주변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1.
- 『익산군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 성곽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6.
- 『익산오금산성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5.
- 『익산의 성곽』,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
- 『익산저토성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1.
- 원광대학교 박물관, 『익산 미륵산성-건물지 및 남문지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박물관, 2008.
- 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 익산시사편찬위원회, 『益山市史』 上, 익산시, 2001.
- 익산시사편찬위원회, 『益山市史』 下, 익산시, 2001.
- 전북문화재연구원, 『益山 郎山山城 南門址 發掘調査 報告書』, 파괴루스, 2008.
-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譯註 三國史記』 3 註釋篇 上,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 『譯註 三國史記』 4 註釋篇 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3. 논문자료

- 김삼룡,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본 익산 - 수로교통로를 중심으로」,
『마한백제문화』 15,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1.
- 강유나, 「군사 지역의 고대 사회」, 『백제문화』 63,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20.
- 강종훈, 「신라 왕경의 방어체계 - 경주 지역 성곽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2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6.
- 곽장근, 「고고학으로 본 군산의 역동성」, 『전북사학』 45, 전북사학회, 2014.
- 김용민, 「益山王宮城의造營과空間區劃에대한考察」, 『古代都市와王權』,
서경문화사, 2005.
- 김희선, 「高句麗 長安城의 築城過程과 遷都의 背景」, 『역사문화연구』 2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5.
- 도도로키 히로시, 「지적원도를 활용한 신라 무진주(무주) 경관복원」,
『한국고지도연구』 12-1,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20.
- 박방룡, 「백제 익산 왕도의 성립과 위상」, 『마한백제문화』 19,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0.
- 박순발, 「泗泚都城의 京觀에 對하여」, 『古代 都市와 王權』, 서경문화사, 2005.
- , 「백제 도성의 시말」, 『중앙고고연구』 13,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 , 「사비도성과 익산 왕궁성」, 『마한백제문화』 2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3.
- , 「동아시아 도성사에서 본 백제도성」, 『왕궁성 : 고대 동아시아 도성과
익산』 上,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4.
- 박영민, 「만경강 및 동진강 유역 고대 성곽의 변천」, 『전북사학』 68,
전북사학회, 2023.
- 송완범, 「고대일본의 宮都에 대하여 - 변천과 의미를 중심으로 -」,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8.
- 深澤芳樹, 「藤原宮·京의 成立」, 『마한백제문화』 2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3.

- 이강오, 「金馬 報德城의 位置에 대한 考察」, 『고고미술』 138·139, 미술사학연구, 1978.
- 이경찬, 「백제 후기 익산 왕궁리유적의 도성계획사적 의미」, 『왕궁성 : 고대 동아시아 도성과 익산』 上,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4.
- , 「백제 후기 익산도성 조영계획모델에 대한 도성계획사적해석」, 『건축역사연구』 24-3, 한국건축역사학회, 2015.
- 이남석, 「泗泚都城의 景觀과 羅城의 築造背景」, 『백제문화』 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4.
- 이문형, 「백제 무왕시기 익산지역의 방어체계」, 『중앙고고연구』 34, 중앙문화재연구원, 2021.
- , 「익산지역 고대 성곽의 분포 현황과 특징」, 『마한백제문화』 2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
- 이병호, 「백제와 신라, 일본 고대 도성의 비교 연구」, 『마한백제문화』 36,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0.
- 임홍락, 「백제 금마저의 지리적 접근과 금마도토성」, 『2019 고도 익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회의 - 도성체계에서 본 백제왕도, 익산의 관방유적』, 익산시·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9.
- 조순흠, 「금마도토성의 축조기법와 연대」, 『2020 고도 익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회의 - 미륵산성과 금마도토성의 사적지정방안』, 익산시·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0.
- 최완규, 「백제말기 무왕대 익산천도의 재해석」, 『마한백제문화』 20,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2.
- , 「백제도성과 익산」, 『마한백제문화』 34,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9.

4. 기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 포털 한국고고학사전(<https://portal.nrich.go.kr>)
 디지털익산문화대전(<https://www.grandculture.net/iksan>)
 익산시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hiksanin>)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s://me.go.kr/gg>)

‘익산지역의 성곽 유적과 도시 공간’에 대한 토론문

이문형(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오늘 발표는 익산에 분포한 성곽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곽이 익산지역의 방어 및 교통로와 연관되어 결과적으로 익산의 도시 공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논고입니다. 오늘 발표자이신 김재범 선생님은 석사와 박사 학위 모두 백제 익산 경영과 관련하여 논문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논고를 무척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흔쾌히 토론에 응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이번 논고의 전개가 너무 추상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토론자는 익산지역의 여러 유적을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익산토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면서 기존에 가졌던 많은 인식이 선입견이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논고를 읽고 토론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의문을 구하고 선생의 견해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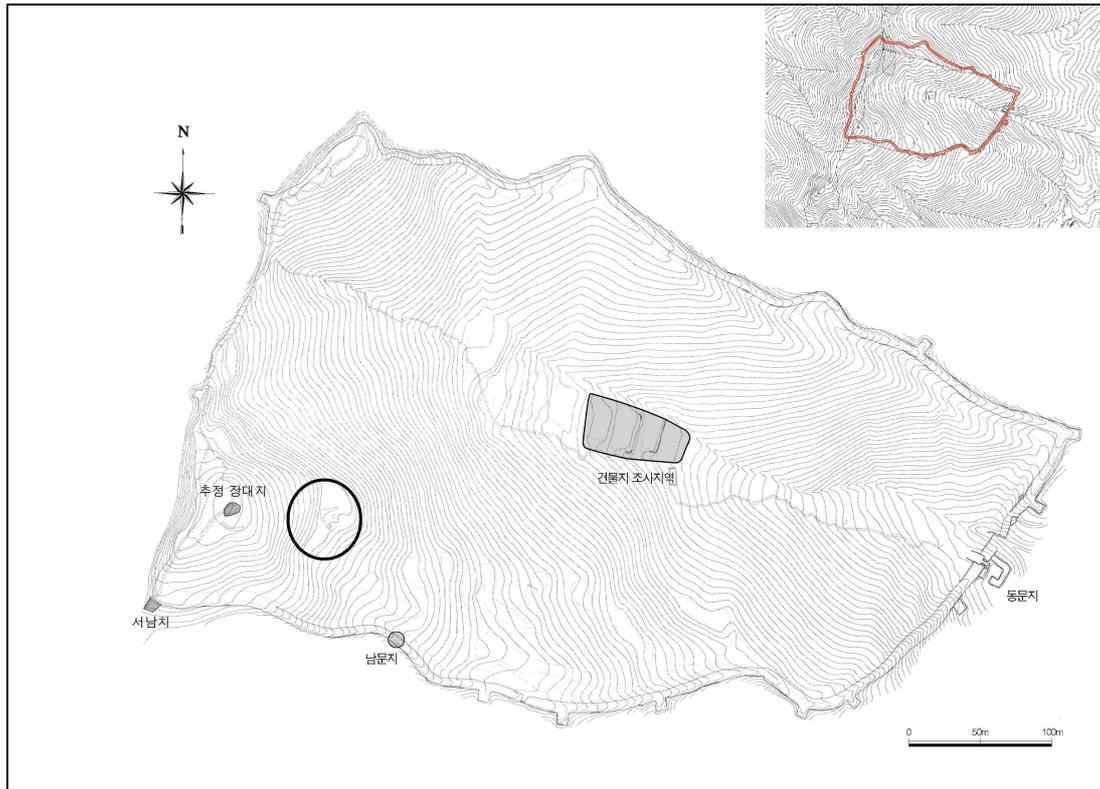
1. 미륵산성의 축조 시기와 성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익산토성(益山土城)은 왕궁성과 연관된 행정적 요소 또는 군사적 요소를 보조하는 성으로, 금마도토성(金馬都土城)은 미륵사지와 왕궁성 유적 사이의 교통망을 관장하는 성, 미륵산성(彌勒山城)은 유사시 사용된 피난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륵산성의 경우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건물지 등이 조사되었으나(圖面 1), 문헌에 기록된 ‘箕準城’과의 기록을 들어 현재 1,776m 둘레의 대규모 축성이 백제시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 볼 때 백제와 연관된 그 어떤 가시적인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정상부에 한정된 지역에 백제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일부 정상부의 제한된 지역에 백제시기와 관련된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¹⁾. 더욱이 신라와 치열한 전투 하에 상대적으로 낮은 성벽이 동쪽으로 축성된 점도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西高東低로 그 차이는 212m 내외). 결과적으로 이는 방어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왕궁의 피난성으로 해석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토론자는 미륵산성이 아닌 미륵사지(彌勒寺址)를 중심으로 6개의 산성이 방

1) 최근 미륵산성 추정 장대지 하단 평탄지형에서 통일신라시대보다 상회하는 토루시설과 최소 4차례에 걸쳐 수개축된 석축저수조 등이 보고된 바 있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23, 익산 미륵산성(평탄지)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의자료). 토론자도 정상부 일부 지역에 한해 백제시기의 관방유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선상으로 배치되어(圖面 3) 국찰(國刹) 미륵사지를 방어하기 위한 체계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이문형, 2021).



圖面 1. 미륵산성 위치 및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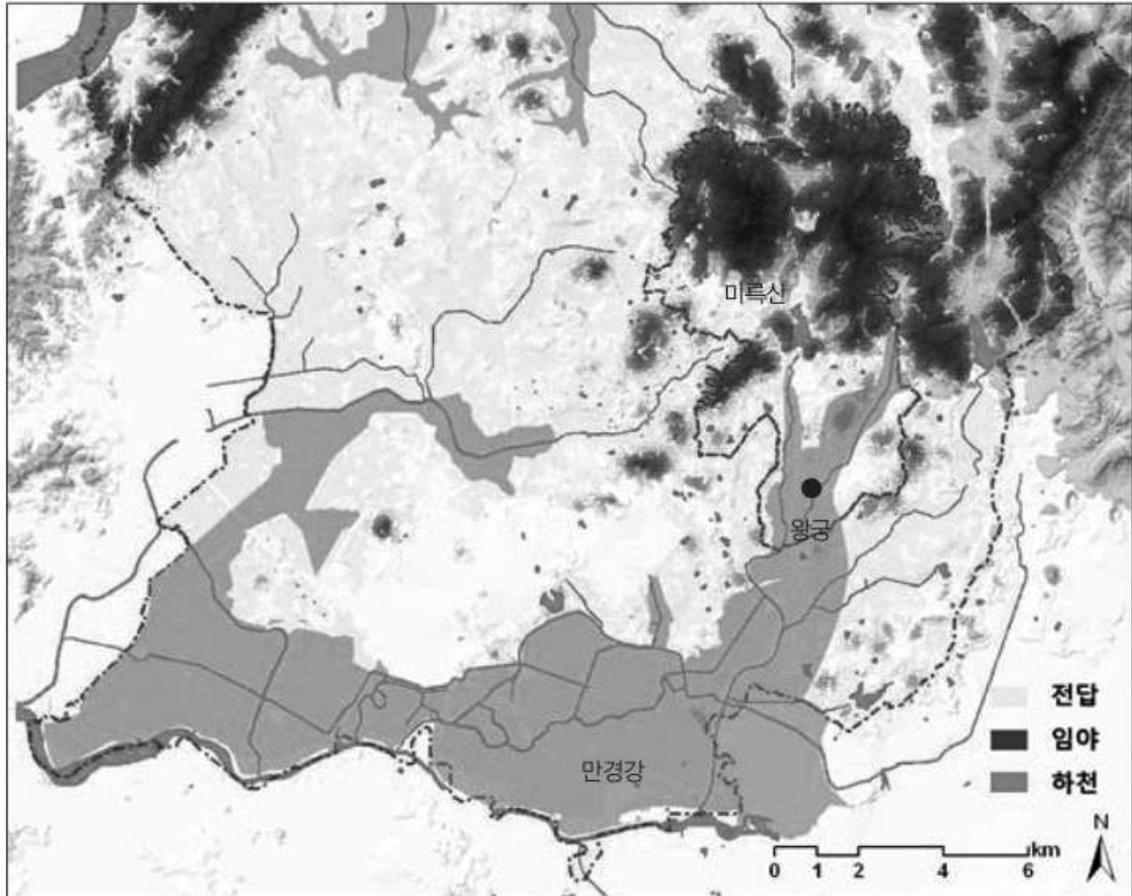
2. 익산의 도시 공간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논고에서 일제강점기(1915년) 익산지역 지적원도의 교통로를 들어 7세기 말 조영된 일본의 후지와라쿠(蘇原宮)/후지와라쿄(蘇原京) 건립에 백제의 영향을 상정하여 조방제의 가능성을 상정, 익산 왕궁리 유적 탐리마을 도로유적에서 그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림 8> 익산 도시공간 범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제시한 圖面 2는 일제강점기 만경강 제방이 축조되기 이전 왕궁리유적 일대의 해수유입 추정도입니다. 이 도면으로 볼 때 발표자가 제시한 도시 공간 범위는 기존 연구자의 의견과 별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왕궁리유적의 앞 탐리마을까지 배가 왕래한 이야기, 논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배(船)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부분 만경강 해수유입에 따른 익산천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하천 지형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익산이 조방제를 근간으로 도시 구획이 되었다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발표자가 제시한 것처럼 탐리마을에서 도로유적으로 보이는 유구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 유구에 대한 성격도 이견(異見)이 있으며, 더불어 왕궁 그 어떤 여타 주변지역에서도 조방제와 연관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금마면 소재지 내 어느 지점에서든 백제와 연관된 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조선시대 유구만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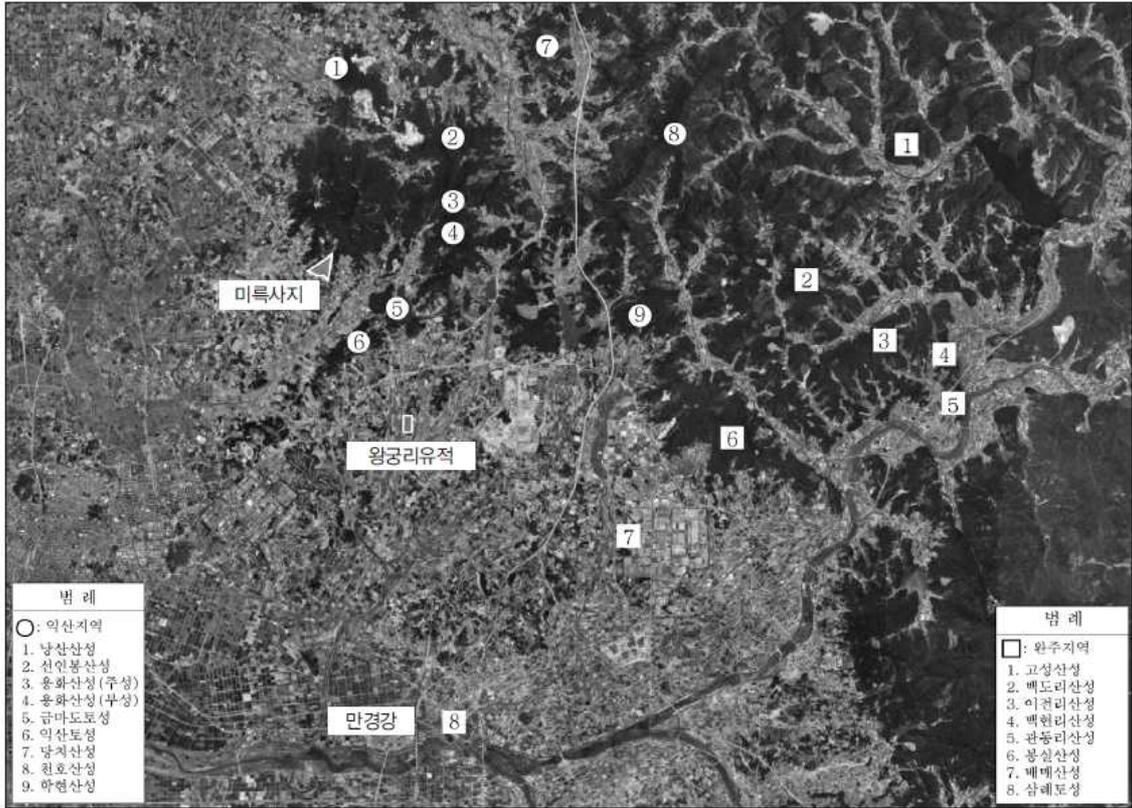
圖面 2. 1920년대 만경강 제방축조 이전 해수유입 추정도(익산시 2009)

3. 방어적인 측면의 관방유적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유적의 분포 위치를 어디까지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국가의 방어체계는 좁게는 지방의 치소(治所)를 포함하고 넓게는 수도 도성(都城)까지 함께 연계한 종합적인 방어체계를 갖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행정구역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구역은 물론, 주변지역의 관방유적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발표자는 낭산산성의 지리적 교통망의 우위를 들어 익산을 방어하기 위함이 아닌

부여(扶餘)를 방어하기 위한 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무왕시기 (재위 600~641) 왕궁으로 인식하는 왕궁리유적의 방어하기 위해 만경강유역, 지금의 완주-전주 일대의 분포한 관방유적과 연계하여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圖面 3. 익산 금마 및 완주 일대 주변 산성분포도(2021, 이문형)

마지막으로 토론자가 오늘 토론에 있어 발표자 선생님의 논고에 오해가 있었다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기회를 주신 한국고대사학회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고대 전북의 해양 신앙과 불교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을 중심으로-

신선혜(호남대)

1. 머리말
2. 죽막동 제사유적 출토 유물과 해양 신앙의 양상
3. 백제의 관음신앙 전래와 해양 신앙의 확산
4. 신라 복속 후 죽막동 제사유적의 변화상
5. 맺음말

1. 머리말

전북 서해안은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잇는 동북아시아 교류의 현장이다. 그만큼 이곳에 자리 잡았던 이들은 이른 시기부터 대외교류를 통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었다. 특히 백제의 웅진, 사비로의 천도는 전북 서해안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배가시켰는데,¹⁾ 한강 하류를 이용하던 이전 시기와 달리 남천 후 백제는 금강 하구를 이용하여 중국 남조와 교류하는 노선을 개척하였기 때문이다. 금강 하류를 통해 군산 군도, 위도를 지나 남쪽으로 향해하면 중국 남조에 다다를 수 있었기에 먼 바다로 향해하는 수많은 배들이 드나들었던 곳이 바로 전북 서해안이었다.

이러한 환경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양 신앙의 발달을 촉발하였다. 해양 신앙이란 해양신인 어업신, 항해신, 船神 등에게 풍어 및 안전 등을 기원하는 신앙으로, 항로 상의 해양 환경이 거칠어 난파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이 중에서도 항해의 안전을 비는 신앙이 발생하게 된다. 본고에서 해양 신앙의 중심지로서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이하 죽막동 유적)을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죽막동 유적은 변산반도 내 서쪽 돌출된 부분에 자리하면서 약 20km 거리 이내에 위도, 식도, 비안도, 고군산열도 등 많은 섬들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3세기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에 걸친 유물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백제, 중국 남조 및 가야, 왜 양식의 제의가 동 시기에 거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만큼 그곳에서 행해진 제의는 전 국가적, 나아가 동아시아 질서에 있어 다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특히 죽막동에서 제사가 진행된 중심 시기는 불교가 국가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때이면서도 해양 신앙으로서 관음신앙의 양상 역시 확인되는 시기이다. 이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 신앙과 그 속에서 발견되는 불교와의 상관성, 그리고 신라 복속 후 제사 및 신앙의 변화 양상을 살핍으로써 고대 전북 해양 신앙의 특징과 변화의 일면을 발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 백제가 고대 동아시아 국제 해상 교역의 지킴이 역할을 하였으며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 발달과 국부 증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기도 한다.(강봉룡, 2002, 「고대 동아시아 해상교역에서 백제의 역할」, 『한국상고사학보』38, 77쪽)

이를 위해 먼저 전북 해양 신앙의 시작으로 죽막동 유적의 성격에 대해 기존 연구성과를 일별하여 살펴보고,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 해양 제사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불교의 전래, 특히 관음신앙의 백제 전래가 죽막동 제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구해 보려 한다. 이를 통해 백제 관음신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죽막동 유적에서 신라 복속 직후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 점과 신라 四海 제장에 죽막동 유적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신라 복속 후 죽막동 제사의 위상 변화를 살피고자 한다.

문헌에 보이지 않으나 불교와 해양 신앙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죽막동 유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나 여러 해석에 대한 실증 자료를 제시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를 통해 죽막동 유적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죽막동 제사유적 출토 유물과 해양 신앙의 양상

죽막동 유적의 제사 양상은 출토 유물에 따라 토기 중심의 노천 제사가 진행된 3~4세기, 향아리 중심의 대형 토기에 공헌용의 금속 유물을 넣고 제사를 지낸 5~6세기 전반, 短頸壺, 병, 장군 등만 사용하여 공헌한 6세기 중반~7세기 전반으로 시기 구분된다. 신라 복속 직후의 유물은 발견되지 않고, 8~9세기 대로 편년되는 기와가 출토됨으로써 이 시기에 건물 내 제사로 다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죽막동 유적의 고대 양상은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²⁾

이 중 3~4세기의 제사 양상은 이 지역 해양 제사 및 신앙 전통의 시작이라는 시각에서 주목된다. 죽막동 유적의 입지는 연안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연안 반류가 흐르고, 조류가 급한 데다가 주변에 섬들이 많아서 조류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곳이다. 이 때문에 물의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며, 겨울에는 계절풍이 심하게 불어와 큰 파도가 형성된다.³⁾ 항해에 상당히 위험한 곳이라 하겠다. 이러한 환경에서 원거리 항해가 아니더라도 조업을 위한 선박을 조망하며 바다의 신이 도와주기를 기원하는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당시 제사를 주관한 세력은 4세기 초가 되어야 백제가 전북 일원을 장악해 갔음을 생각해 본다면⁴⁾ 전북 일대의 마한 세력으로 볼 수 있다.⁵⁾ 서남해안을 끼고 소국을 형성하고 있던 마한은 삼한 내 뿐만 아니라 주호, 왜, 나아가 중국 서진과 교류한 다수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⁶⁾ 이때 마한의 실체가 소국 중 어디인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차치하더라도, 마한 諸國들이 일찍이 해로를 통해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죽막동 제사는 발생 당시부터 어로풍어신이 아니라 항해보호신에 대한 제사였다고 볼 수 있다.⁷⁾

2) 죽막동 유적의 시기별 출토 유물은 국립전주박물관의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1994)을 참고하였다.

3) 고창군, 1992, 『고창군지』, 218-219쪽 ; 부안군, 1995, 『부안군지』, 442-443쪽.

4) 정재윤, 2022, 「문헌 속 호남 지역의 마한과 백제」, 『호남고고학보』72. 백제의 마한 복속과 관련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노중국(2018, 「문헌사에서 본 마한 연구동향」, 『마한고고학개론』, 진인진) 및 권오영·요시이 히데오(2018, 「마한과 주변 세력과의 교섭」, 『마한고고학개론』, 진인진)의 글과 강봉룡(2021, 「중국 사서를 통해 본 마한에 대한 몇 가지 문제」, 『한국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진인진) 및 야콥 타일러(2021, 「문헌 자료 속의 마한:역사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진인진)의 글에 정리되어 있다.

5) 천관우(1989,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412-413쪽)에 따르면, 마한 소국 중 支婁이 부안에 있었는데, 369년에 백제에 항복하였다고 한다.(『일본서기』 권9 신공 49년조)

6) 『진서』 권97 열전16 동이 마한, “武帝太康元年 二年 其主頻遣使入貢方物 七年八年十年 又頻至 太熙元年 詣東夷校尉何龕上獻 咸寧三年復來 明年又請內附”.

7) 송화섭, 1998, 「백제의 국가제사와 죽막동 제사유적의 성격」에 대한 토론,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연

5~6세기에 이르면 이전 시기에 비해 유물의 양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중국 및 왜와 관련된 유물, 더하여 금속 유물이 집중되며 무기류의 비중 역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죽막동 유적의 성격 및 위상이 변화함을 시사하는데, 특히 무기류와 더불어 마구류 유물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유적의 군사적 성격이 강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⁸⁾ 아울러 이러한 중요성에서 이 시기 죽막동 유적은 백제 국가제사 체계 속에 편성되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⁹⁾

이와 관련하여 공산성 내 건물지에서 출토된 통형 기대 파편과 거의 같은 형식의 제사용 기대가 죽막동 유적에서 출토된 점을 통해 이 시기에 백제 중앙의 관리가 죽막동 제사를 관장하였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¹⁰⁾ 다만 유적을 군사적 성격으로 해석하기에는 주변에 성곽과 같은 요새의 성격을 지닌 시설이 없다는 점과 유적 바로 밑에 서해 큰 바다와 바로 연접한 포구로서 격포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힘들다.¹¹⁾ 즉 방어적 기능보다는 오히려 개방적인 교역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¹²⁾ 무기류나 마구류 역시 군사적 유물이라기보다는 봉헌용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 그 쓰임을 짐작할 수 있다.

- a. 바닥에 암초가 있어 그것과 서로 부딪혔다. 해안의 바위와 배 밑에의 돌들에 부딪혀 배가 파열될 지경이었다. ... 해질 무렵에 큰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왔다. 천둥이 치고 번갯불이 번쩍거리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배 위의 여러 창과 큰 칼 등을 휘두르면서 목청껏 부르짖으며 벼락을 막으려 하였다.¹³⁾

이처럼 무기류나 마구류는 해양에서 霹靂을 쫓아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¹⁴⁾ 백제는 이 지역을 차지하고 제사를 주관함으로써 마한의 해양 신앙 체계를 포섭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지배력 강화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주목되는 유물로 석제모조품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것이 일본 오키노시마 제사유적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시기 제사에 왜인이 참여했음을 방증하는 유물로 주목하였다. 석제모조품은 가락바퀴, 도끼, 短甲, 곡옥, 방울, 刀子, 거울, 鎌 등의 실물 대신 돌을 재료로 간단하게 축소한 것으로, 몸체 중앙이나 끝 부분에 소형 구멍이 1~2개 뚫려있는 것으로 보아 神木에 공헌의 의미로 달아두었던 것

구』, 국립전주박물관, 42쪽.

- 8) 김길식, 1998,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삼국시대의 제사양상과 변천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연구』, 국립전주박물관, 55쪽.
- 9) 최광식, 1998, 「백제의 국가제사와 죽막동 제사유적의 성격」,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연구』, 국립전주박물관, 136-138쪽.
- 10) 우재병, 2019, 「죽막동유적과 일본 오키노시마유적」, 『부안 죽막동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방안』, 호남고고학회·호남문화재연구원, 15쪽 ; 2022, 「5세기 후엽~6세기 전엽경 백제 죽막동 제사에 왜양식 제의가 포함된 배경」, 『선사와교대』70, 32-33쪽.
- 11) 죽막동 유적의 아래쪽에는 호남 서해안에서는 보기 드물게 서해의 큰 바다와 바로 연접한 포구로서 격포가 있다. 고대에 격포는 이 부근을 향해하는 선박이 반드시 들러야 할 해양지리적 조건을 갖춘 포구였다. 영광의 칠산바다와 금강 하구를 남북으로 오갈 때 혹은 곰소만 깊숙이 위치한 보안면 포구에서 서쪽 외해로 빠져 나가고자 할 때, 해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선박이 피항해야 되는데 격포는 그 길목에 위치한 안전한 피항처였다.
- 12) 송화섭, 1998, 「백제의 국가제사와 죽막동 제사유적의 성격」에 대한 토론,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연구』, 국립전주박물관, 152쪽.
- 13) 『入唐求法巡禮行記』 권2 개성4년 6월 3일, “下棹指張不能制之 底有潛石相共衝當 ... 暮際大風洪雨雷聲電光不可視聞 舶上諸人振鋒鏑大刀亦竭音呼叫 以遮霹靂”.
- 14) 김주성, 2003, 「죽막동유적의 쇠퇴와 태안마애삼존불」, 『한국상고사학보』40, 60쪽.

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5세기를 중심으로 고개, 바다, 호수 등과 관련된 제사유적과 고분, 주거지에서 유사한 석제모조품이 다량 확인되고 있어 연관성이 제기되었다.¹⁵⁾

그런데 신성한 지역임을 표시하면서도 외부에서 제사의 양상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장대에 무언가를 매다는 방식은 마한에서도 발견된다.

- b. 귀신을 믿으며 나라의 도읍에 한 사람이 천신에게 제사를 주관하였다. 이름을 천군이라 하였다. 또 여러 소국에 각기 별읍이 있는데 이름을 소도라 하였다. 대목을 세우고 방울, 북을 걸었다.¹⁶⁾

b사료에서 소도의 높은 장대에 방울이나 북을 걸어두는 것이 죽막동 유적의 양상과 유사하다. 향해 중인 입장에서 죽막동 유적의 장대를 올려보면 높은 산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향해의 기준점으로 삼기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6세기 중반부터 신라에 복속되기 전까지 죽막동 유적에서는 전 단계의 화려한 유물이 자취를 감추고 평이한 유물들이 발견된다. 이에 대해 백제가 시조나 국조모, 서해신 등에 대한 제사를 축소하며 죽막동 제사 역시 규모가 작아진 것으로 파악하거나,¹⁷⁾ 태안반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대중 항로가 태안반도로 이동함에 따라 해양 신앙의 중심지가 변화했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¹⁸⁾ 후자는 그 증거로 태안 마애삼존불의 관음보살에 주목하였다.

불교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시기가 되면 신앙의 중심지가 해안가와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사찰로 옮겨진 듯하다. 여기에는 신라의 양상이기는 하나 『삼국유사』에 보이는 望海寺 창건 사례가 참고된다.¹⁹⁾

- c. 일을 맡은 관원에게 명하여 용을 위하여 근처에 절을 짓게 했다. … 왕은 이미 돌아와 영축산 동쪽 기슭의 경치 좋은 곳을 점지하여 절을 세우고 望海寺라고 하였는데, 또는 新房寺라고도 이름하였으니, 곧 용을 위해 세운 것이다.²⁰⁾

헌강왕은 자신의 巡幸 시 나타난 동해용의 조화를 해소하고자 용이 출현한 개운포 근처에 절을 지었다. 그 후 영축산에 좋은 터를 골라 용을 위해 望海寺를 지었는데, 이는 新房寺라고도 불렀다는 것이다. 사찰 이름이 ‘望海’라면 바닷가에 세워지기 마련인데, 바다와 관련짓기 힘든 장소인 영축산에 사찰이 세워졌다. 이때 영축산은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법한 곳으로, 신라에서는 존망에 처한 나라를 구원해 준 용과 관련한 사찰이 영축산에 다수 건립되었다. 고려 때에도 영축산에 약사도량을 열어 바닷길을 평화롭게 하고자 한 사례가 찾아진다.²¹⁾

15) 유병하, 1998, 「백제의 국가제사와 죽막동 제사유적의 성격」에 대한 토론,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연구』, 국립전주박물관, 15-16쪽. 오키노시마 유적과의 관련성은 우재병의 최근 논고(2022, 「5세기 후엽~6세기 전엽경 백제 죽막동제사에 왜양식 제의가 포함된 배경」, 『선사와고대』70)를 참고하기 바란다.

16)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전, “信鬼神 國邑各一人 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懸鈴鼓”.

17) 유병하, 1998, 「부안 죽막동유적에서 진행된 삼국시대의 해신제사」,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연구』, 221-223쪽.

18) 김주성, 2003, 「죽막동유적의 쇠퇴와 태안마애삼존불」, 『한국상고사학보』40, 62-73쪽.

19) 신선혜, 2017, 「『삼국유사』 기이편 「처용랑 망해사」조의 이해」,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38, 163-167쪽.

20) 『三國遺事』 권2 기이2 處容郎 望海寺, “勅有司 爲龍叻佛寺近境 … 王既還 乃卜靈鷲山東麓勝地置寺 曰望海寺 亦名新房寺 乃爲龍而置也”.

불교 전래 후 해양 제사는 바다라는 제장에서 다소 떨어진 장소에서 행해졌고 이러한 영향이 죽막동 유적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듯 죽막동 제사는 해당 지역의 마한에서 백제로의 변화와 불교의 전래라는 요인에 의해 양상의 변화를 겪었다.

3. 백제의 관음신앙 전래와 해양 신앙의 확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죽막동 유적의 제사 양상은 불교 전래와 더불어 변화하였다. 그러나 변화의 시기는 백제에 불교가 전래된 5세기가 아닌, 6세기에 들어 영향을 끼쳤던 점이 발견되는데, 여기에는 관음신앙의 백제 전래가 관련된다.

『법화경』 「보문품」에 따르면 관음신앙의 대상인 관음보살은 일체중생이 그를 일심으로 부르면 곧 음성을 관하고 해탈을 얻도록 하는 존재이다. 현세이익의 대표적 성자인 것이다. 특히 중생이 보배를 구하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일어 그들의 배가 羅刹鬼들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 사람들이 다 나찰의 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여²²⁾ 해양신앙으로서 관음신앙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관음보살은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도 보인다. 여기서는 관음의 상주설법처를 규정하여 남방 보타낙가산에 상주하며 설법하는 보살로 그리고 있다. 『화엄경』의 전파와 더불어 자신의 국토에 보타낙가산이 실재한다고 생각하고 관음 상주처를 구하는 양상으로 관음신앙이 전개된 것이다.²³⁾

백제 관음신앙의 시작은 백제 승려 發正의 행적에서 찾을 수 있다. 양나라 때 찬술된 『觀世音應驗記』와 당나라 때 문헌 『法華傳記』에는 백제 사문 발정의 관음신앙 전래 양상이 기록되어 있다.

- d. 백제 사문 발정은 天監 연간에 책 상자를 메고 바다를 건너서 스승을 찾아와 도를 배워 매우 의해에 정통하고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고 양나라에 30여 년 머물렀다. ... 발정은 越州界에 관음도량이 있는 산에 관세음보살의 窟室이 있다고 하여 가보니 거기에는 서까래가 다 삭고 허물어져 담장만 남아 있었다. 예전에 두 명의 도인이 함께 입산하여 한 사람은 『화엄경』을 읽고 한 사람은 『법화경』을 읽으면서 각기 한 골짜기를 차지하여 도실을 지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독송을 끝내기로 약속하였다. ... “항상 나에게 밥을 가져다 주는 노인이 있는데...” 그제야 그는 노인이 관세음보살임을 알고는 곧 오체투지로 정성스레 예배하고 쳐다보니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이 사람이 본담장은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으며, 사문 발정은 그것을 몸소 보았던 것이다.²⁴⁾

발정은 6세기 초 양나라 천감 연간에 중국에 들어가 30년간 수행하다 귀국하는 길에 관음도량을 찾아 관음보살의 영험함을 확인하였다. d사료에 따르면 발정은 당시 양나라에 퍼져있던 『법화경』과 『화엄경』에 바탕을 둔 관음신앙을 백제로 들여왔음을 알 수 있다. 越州界는 현재 절강성 항주만 남쪽 紹興이 중심지였고, 서쪽으로 항주와 인접하고 동쪽으로는 寧波와 인

21) 『三國遺事』 권5 감동7 仙桃聖母隨喜佛事, “本朝屈弗池龍 託夢於帝 請於靈鷲山長開藥師道場 □平海途”.

22) 『法華經』 권7 「보문품」 25(대정장2, p.56c5).

23) 정병삼, 1982, 「통일신라 관음신앙」, 『한국사론』8, 6-21쪽 ; 2009, 「고려 후기 體元의 관음신앙의 특성」, 『불교연구』30, 44-46쪽.

24) 『觀世音應驗記』의 내용을 가독성을 고려하여 발췌, 요약한 것이다.

접해 있는 지역이다. 중국 남조와의 교류 속에서 관음신앙이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백제에서 관음신앙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찾기 힘들지만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한 聖王 대 이후 일본 백제사에 관음본존을 모신 사례나 성덕태자가 관음의 화신으로 받아들여지고 백제 장인이 관음상을 조성한 기록²⁵⁾ 등을 통해 백제 관음신앙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이렇듯 전래 당시 관음신앙은 『법화경』과 『화엄경』에 의거한 양상으로 전래되었으나, 전래 초 백제에서는 『법화경』적 관음신앙이 중심이 되어 확산하였던 점이 일본에 남겨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의 『北辰妙見菩薩靈應篇』과 『鎮宅靈符緣機集說』, 『鷲頭山舊記』, 『妙見社略緣起』, 『後太平記』 등에 따르면 백제 26대 성왕의 제 3왕자로 생각되는 琳聖太子가 일본 推古女主 5년(597) 곧 백제 위덕왕 44년에 渡日하여 일본에 관음신앙 및 특히 妙見信仰과 靈符信仰을 처음으로 전한 개조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²⁷⁾ 이때 묘견보살은 북극성의 불교적 신격으로, 관음보살의 화현으로 간주된다.²⁸⁾ 즉 관음보살이 보이는 수많은 변화신 가운데 북극성에 가탁된 존명인 것이다. 그런 만큼 중생이 심한 괴로움과 번뇌가 있을 때 묘견보살을 부르면 모두 해탈케 된다.

특히 묘견보살은 해양과 관련한 안전을 기원해준다는 점에서 『법화경』적 관음신앙을 보여주는 데, 일본에서 이러한 사례가 찾아진다.

e. 延歷 2년 가을 8월 19일 밤에 키노쿠니 아마노코오리(紀伊國海部郡) 내의 이와타키지마(伊波多岐島)와 아와지노쿠니(淡路國)의 사이의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漁師는 아홉 명이었는데 세 배에 나누어 타고 있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그 세 배는 부서져 여덟 명은 빠져 죽었다. 그때 나니모마로는 바다에 표류하면서 일심으로 妙見菩薩에게 귀의하여 소원을 세우고 “저의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제 몸을 재어 等身の 묘견보살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맹세하였다. ... 이것은 확실히 묘견보살의 큰 도움과 표류한 자의 신앙심의 힘임을 알 수 있다.²⁹⁾

f-1. 본국의 상공이 본국 화공 3명을 시켜 개원사에서 묘견보살과 사천왕상을 그리게 했다. 이것은 바다에서 표류하며 침몰하려 할 때 발원했던 일이다.³⁰⁾

f-2. 밤에 본국 상공이 바다에서 발원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 개원사 당내에 1000개의 등불을 밝히고 묘견보살과 사천왕을 공양했다. 거둬 맹세하기를 “지난해 바다에서 표류할 때 문득 발원하기를 육지에 도착하는 날에 자신의 몸 높이를 만한 묘견보살 10구, 약사불 1구, 관세음보살 1구를 그리겠다고 했습니다.³¹⁾

25) 『扶桑略記』 推古條.

26) 신선휘, 2023, 「전남 지역 관음신앙의 전개와 완도」, 『한국고대사탐구』44, 105-106쪽.

27) 琳聖太子에 대해 그 후손인 多多良 및 大內氏가 지금까지도 있다는 점에서, 성왕의 3자가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태자는 아니었지만, 일본 불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태자로 칭해졌다고 파악하기도 한다.(김영태, 1985, 「묘견신앙과 그 일본전파」, 『백제불교사상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18-227쪽)

28) 김일권, 2002, 「불교의 북극성 신앙과 그 역사적 전개」, 『불교연구』18, 76쪽.

29) 『일본영이기』 권하, “그물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은 남자가 바다에서 조난당하였는데 妙見보살에게 기원하여 목숨을 살린 이야기”

30) 『입당구법순례행기』 권1 개성4년 3월 1일, “奉國相公令 奉國畫工三人 於開元寺 畫妙見菩薩·四天王像 是海中漂沒之時 所發願也”.

31) 『입당구법순례행기』 권1 개성4년 3월 3일, “夜頭奉國相公為遠海中所發之願 於開元寺堂裏點千盞燈 供養妙見并四天王 便令重誓 去年漂沒之時更發願 到陸之日准己身高畫妙見并十·軀·藥師佛一軀·觀世并一軀”.

e사료는 9세기 초, 奈良 약사사의 승려 景戒가 편찬한 일본 최초의 불교설화집인 『日本靈異記』에 실린 것이다. 총 3권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e사료는 나라시대 후기의 稱徳天皇에서 平安京으로 천도한 桓武天皇 대까지를 범위로 하는데, 延曆 2년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783년의 일이라 하겠다. 한편 일련의 f사료는 839년에 항해의 안전을 묘견보살에게 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묘견신앙을 백제가 일본에 전해준 점에서 백제 재래의 해양 신앙이 묘견신앙을 위시한 관음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임을 알려준다.³²⁾

이러한 시각에서 죽막동 유적의 해양 신앙적 측면은 태안반도로 옮겨갔고, 이를 보여주는 것이 태안 마애불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태안 마애불의 중앙보살상인 봉보주보살상을 관음보살로 보아 원거리 해양 안전을 담당하는 신격과 장소가 6세기 중반 이후 바뀌게 되었다고 파악하였다.³³⁾ 항로의 변화에 따라 해양 신앙의 장소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이것은 비단 태안 방향으로의 전환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왕 대 이르러 惠現은 『법화경』持誦者로서 북부 수덕사에 머물다 남방의 達拏山으로 거처를 옮겨 수행하였다. 남방의 달나산은 사료에 따라 강남 달나산으로도 표기되는데,³⁴⁾ 달나산은 우리말의 '달[월]이 나오는[출] 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현재 전남 영암군과 강진군에 걸쳐 있는 월출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⁵⁾ 혜현이 월출산으로 移居한 배경에 대해 사료에서는 공통적으로 조용히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바닷가에 위치한 월출산이 조용한 수행처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移居의 이유를 상정할 수 있다. 바로 해당 지역에 관음보살의 영험함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월출산이 있는 영암 지역 역시 중국은 물론이고 일찍이 왜와의 통교 창구로서도 중요시되었다. 王仁의 설화가 그곳에 남아 있는 점이나 고고학적으로도 장고분에서 스에키, 중국 자기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볼 때³⁶⁾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영암 일대를 통해 왜를 비롯하여 중국과 빈번하게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이 점차 백제의 영역에 병합되어 가면서 교통로로서의 중요성을 백제 역시 인식하고 있었고, 해로로의 교류 상 안전을 위한 신앙으로서 관음신앙의 흥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⁷⁾

다만 이러한 관음신앙의 백제 전래와 확산은 기존 해양 신앙의 대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전 시기에 비해 축소되어 제사가 진행되었지만 죽막동 제사는 지속되고 있었다. 해양 신앙이 불교적 대상과 재래신을 함께 신앙하는 양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圓仁의 신라 입국 시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圓仁 일행은 항해 중 天神地祇에 제사하고, 순풍을 위해 『灌頂經』에 의지한 다라니 법회를 진행함과 동시에 五方龍王에게 제사하였다. 또한 일본의 住吉大神, 八幡神과 함께 諸山嶋神에도 船上에서 제사하였다.³⁸⁾ 이렇듯 안전 항해를

32) 복진묘견이 북극성을 의미하므로, 나침반과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한 당대에 별자리를 이용함으로써 항해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해양 신앙적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33) 김주성, 2003, 「죽막동유적의 쇠퇴와 태안마애삼존불」, 『한국상고사학보』40,

34) 혜현의 사적은 『당고승전』 독송편과 『삼국유사』 피은편에 실려 있는데, 전자에는 남방, 후자에는 강남으로 기록되어 있다.

35) 이도학, 1989, 「사비시대 백제의 四方界山과 호국사찰의 성립」, 『백제연구』20 : 2010, 『백제사비성 시대연구』, 일지사, 246쪽 ; 최완수, 1994, 「무위사」, 『명찰순례』3, 대원사, 456쪽 ; 최인선·최선주, 1998, 『호남의 불교문화와 불교유적』, 백산서당, 182-185쪽 등.

36) 국립나주박물관, 2019, 「한국의 장고분 연구성과」, 『한국의 장고분』, 192-204쪽.

37) 혜현의 달나산 이거 이유를 지명법사가 추구한 미륵신앙과의 갈등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노중국, 2010, 「미륵사 창건과 지명법사」,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그러나 신앙 간 갈등양상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덕사 지역 역시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므로 혜현이 타의에 의해 달나산으로 갔을 가능성은 낮다.(길기태, 2005, 「백제 사비시기 법화신앙」, 『대구사학』80, 23-25쪽)

38) 『入唐求法巡禮行記』 권1 개성 4년 4월 1일, 4월 14일, 권2 개성 4년 5월 2일, 5월 6일, 5월 11일,

위한 제사는 승려들임에도 불교적 대상뿐만 아니라 각종 신을 포함하고 있었다.³⁹⁾ 죽막동 제사의 재래신의 역할은 관음신앙의 전래 및 확산과 함께 지속되고 있었다.⁴⁰⁾

4. 신라 복속 후 죽막동 제사유적의 변화상

앞서 언급하였듯이 죽막동 유적에서는 3세기 이후 조선시대까지도 제사 관련 유물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신라 복속 직후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 시기에 제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⁴¹⁾ 백제를 대표하는 해양 제사가 복속 후 배제되었다면 통일된 체제를 구축하려는 신라의 의도에 부합되지 않는 성격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는 통일 후 국가제사 체계의 정비를 단행하였다. 『삼국사기』 제사지에 따르면 신라는 명산대전제사를 大祀, 中祀, 小祀로 나누고 중사는 五岳, 四鎮, 四海, 四瀆과 표제명이 없는 제장들로 정리하였는데 이 중 사해가 바다에 대한 국가제사를 말한다. 그런데 신라는 백제에서 기존에 이를 진행하고 있던 죽막동 지역이 아닌, 미릉변, 즉 미산군에 설정하였다.⁴²⁾ 미산군은 지금의 군산 임피면으로, 미릉변은 임피면 서쪽 해안가로 추정된다.⁴³⁾

中祀의 제장이 국토의 주위를 둘러 가며 국경을 이루고 있는 양상임을 생각할 때 죽막동 유적은 백제의 중사에 편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임에도 신라에서는 그곳이 아닌, 군산 지역을 제장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죽막동 유적이 백제의 군사적 성격을 띠는 제장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군사적 요충지의 개념과 달랐던 이유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⁴⁴⁾ 그러나 유적의 군사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죽막동 제사를 통한 백제인들의 신앙적 결속이 강했기 때문에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라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 배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⁵⁾

6월 5일 및 권4 회창 7년 9월 8일조 참고.

39) 『高麗圖經』에서도 徐兢이 고려로까지 오는 과정에서 기착지마다 海神에게 안전 항해를 빌고 있음이 확인된다. 사절단은 명주 정해현에 이르러 總持院에서 7주야 도량을 가졌고, 동해 龍君인 顯仁助順 淵聖廣德王祠에서 宣祝하였으며, 招寶山에 올라 동해를 향해 재배하였다. 바람을 기다리는 沈家門에서는 장막을 치고 祀沙 곧 岳瀆神에 제사하였다. 그리고 배마다 작은 배를 만들어 불경과 탑승자의 성명을 적어 바다에 던져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원하였다. 보타도 梅岑山 기슭에 있는 寶陀院의 관음상에 나아가 항해의 안전을 빌었다. 해로초에 이르러서는 13부적을 바다에 던져 순조로운 항해를 빌었다. 동해신, 악독, 관음 등이 제사의 대상이며 이들이 항해의 안녕을 맡고 있다고 믿었다. 송사신단의 해양 신앙은 불교신앙만이 아닌 주술, 해신, 악독 등의 신앙을 포괄하였다.(신선혜, 2023, 「신안 흑산도 무심사선원의 불교신앙적 위상-신라의 구법 양상과 관련하여-」, 『사총』108, 14쪽)

40) 능가산 내소사, 도솔산 선운사, 위도 내원암 등을 관음신앙처로 설정하기도 하지만, 시기가 불명확하다.(송화섭, 2020, 『줄포만과 변산반도의 해양문화』, 전북연구원)

41) 국립전주박물관, 1994,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260쪽.

42)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에 보이는 구 백제 지역 산천제사는 다음과 같다.

- 中祀 五岳 南地理山(菁州) 西雞龍山(熊川州)
- 四鎮 西加耶岬岳(馬尸山郡)
- 四海 西未陵邊(屎山郡)
- 四瀆 西熊川河(熊川州)
- 上助音居西(西林郡) 烏西岳(結巴郡) 清海鎮(助音島)

小祀 月奈岳(月奈郡) 武珍岳(武珍州) 西多山(伯海郡難知可縣) 冬老岳(進禮郡丹川縣) 加林城(加林縣)

43) 국가통합의 필요성에서 백제의 근거지에서 기존의 제사체계를 무너트리지 않고 제사를 지냈다고 할 수 있다.(노중국, 1988, 「통일기 신라의 백제 고지 지배」, 『한국고대사연구』1)

44) 최광식, 1998, 「백제의 국가제사와 죽막동 제사유적의 성격」에 대한 토론,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연구』, 국립전주박물관, 138-140쪽.

45) 사해의 제장이 군사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때 죽막동 유적이 제장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적의 군사적 성격이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신라 복속 이후 죽막동 유적이 위치한 변산반도 일대의 상황을 알려주는 기록이 있어 참고 된다.

- g-1. 정월 壬辰日에 처음 변산에 들어가니, 층층한 봉우리와 겹겹한 뿔부리가 솟았다 옆뿔다 구부렸다 폼다 하여, 그 머리나 꼬리의 놓인 곳과 뒤축과 팔죽지의 끝난 곳이 도대체 몇 리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옆에 큰 바다가 굽어보이고 바다 가운데는 群山島, 獺島, 鳩島가 있는데, 모두 조석으로 이를 수가 있었다. 海人들이 말하기를, “순풍을 만나 쓴살같이 가면 중국을 가기가 또한 멀지 않다.”고 한다.⁴⁶⁾
- g-2. 다음날 扶寧縣令 李君 및 다른 손님 6~7인과 더불어 元曉房에 이르렀다. ... 곁에 한 암자가 있는데, 속어에 이른바 ‘蛇包聖人’이란 이가 옛날 머물던 곳이다. 元曉가 와서 살자 蛇包가 또한 와서 모시고 있었는데, 차를 달여 曉公에게 드리려 하였으나 샘물이 없어 딱하던 중, 이 물이 바위 틈에서 갑자기 솟아났는데 맛이 매우 달아 젓과 같으므로 늘 차를 달였다 한다. ... 방 한가운데를 막아 內室과 外室을 만들었는데, 내실에는 佛像과 원효의 眞容이 있었다.⁴⁷⁾

g사료는 고려의 이규보가 자신이 관직을 제수받은 첫 부임 지역인 전주 및 전북 지역의 유적지를 방문한 후 남긴 기록이다. 이 자료는 보덕과 전주 경복사, 변산 내소사와 원효, 사복, 진표와 부사의방 등 백제 지역의 고대사, 특히 불교사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g-1사료를 통해 변산반도 일대는 고려 때에도 대중국 항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상 『高麗圖經』에는 1123년에 북송의 사신단이 주산군도 정해현 매잡에서 출발하여 줄포만의 죽도, 위도에 기항하였다가 군산도에 기항하여 고려의 공식적인 사신 영접 의식을 받았음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g-2사료는 이규보가 변산 내소사 근처 원효방을 방문한 후 원효와 관련하여 남긴 기록이다. 여기에는 원효와 사포, 즉 사복이 변산 지역에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까지 원효의 진용이 그곳에 남아 있다고 한다. 원효, 사복에 대한 여타 기록에는 변산과 관련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료의 의미를 짚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원효와 사복이 이곳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변산 지역에서 원효와 사복에 대한 신앙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신라 통일의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른 변산 지역민들에 대한 종교적 위무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었을 것이다.⁴⁸⁾

이러한 위무의 방법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원효의 『법화경』적 관음 신앙이다. 신라의 관음신앙은 대개 의상의 낙산행을 기점으로 관음보살이 신라의 국토에 상주한다는 인식, 즉 『화엄경』적 관음신앙이 자리잡고 있었다. 『삼국유사』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에 따르면 원효는 낙산사를 방문함으로써 의상의 관음신앙을 이해하고자 했으나 끝내 관음진신을 친견하지 못하였고, 낙산으로 향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장애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46) 『동국이상국집』 권23 기 南行月日記, “正月壬辰 初入邊山 層峯複岫 昂伏屈展 其首尾所措 跟肘所極 不知幾許里也 旁俯大海 海中有群山島獺島鳩島 皆朝夕所可至 海人云 得便風直若激箭 則其去中國亦不遠也”.

47) 『동국이상국집』 권23 기 南行月日記, “明日 與扶寧縣宰李君及餘客六七人至元曉房 ... 傍有一庵 俗語所云蛇包聖人所昔住也 以元曉來居故 蛇包亦來侍 欲試茶進曉公 病無泉水 此水從巖罅忽湧出 味極甘如乳 因嘗點茶也 ... 障其中爲內外室 內室有佛像元曉眞容”.

48) 조법종, 2010, 「이규보의 <남행월일기>에 나타난 고대사 사료 검토-보덕, 원효, 진표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13, 286-288쪽. 원효가 주석한 상주 사불산 백련사에 진영이 봉안된 사실과 연결하여 이곳 역시 실제 방문, 거주하였다고 본다.

이는 원효와 의상의 사상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원효는 中古期부터 이어져 온 『법화경』적 관음신앙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⁴⁹⁾ 관음의 화신인 廣德의 처가 嚴莊에게 원효를 소개시켰고, 원효가 관음진신을 친견하려 낙산으로 가는 길에 벼 베는 여인이나 빨래하는 여인 등 관음보살의 應身을 만났다는 내용에서 원효의 관음신앙이 현세 구제를 위한 『법화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⁰⁾ 이와 함께 원효의 행적은 瑤石과의 결혼을 통한 당대 왕실과의 결합, 황룡사에서 『金剛三昧經』 강설, 분황사 주석 등⁵¹⁾ 왕경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⁵²⁾ 이러한 원효의 사상을 매개로 백제에 퍼져있던 『법화경』적 관음신앙을 신라 왕경과의 연결고리로 삼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신라 복속 직후 죽막동 제사가 실행되지 않은 것은 백제 신앙 체계와 결속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있었지만 한편으로 신라는 이를 원효의 사상을 통해 포섭하려는 의지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8~9세기 경 죽막동 제사는 다시 진행되었다. 이전 시기와 다른 점은 기와가 출토되어 노천제사를 벗어나 건물 내에서 제사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⁵³⁾ 이에 대해 신라 하대 중앙집권력이 떨어지면서 토착세력에 의해 다시 제사됨으로써 지역민들의 단합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⁵⁴⁾

그런데 이 시기를 전후하여 중국 항주만 남단 보타낙가산 해양 제사가 해변굴 제사 형태를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죽막동 유적에 해식동굴이 없었다면 해양 제사 유적이 조성될 수 있었을가에 대한 의심도 제기되었듯⁵⁵⁾ 이곳의 해변굴은 중국 보타산 신앙이 성립된 이후 다시 주목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중국 보타산에는 불공거관음원이라는 사찰이 있는데, 『고려도경』에 따르면 오대산으로부터 관음상을 본국으로 모셔 가려던 신라 상인이 보타산 앞 바위에 좌초되어 내려놓게 되었고 이를 전각으로 모시자 이후 해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염원에 감응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는 한-중 간 활발한 교류 속에서 남겨진 것으로, 불공거관음원의 관음신앙이 신라 및 고려에 영향을 주었음을 말해 준다. 한편 여기에는 ‘潮音洞’이라는 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佛祖統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h. 그 산에 潮音洞이 있어 바닷물을 밤낮으로 머금었다 토하여 밤낮 큰소리를 낸다. 굴 앞에 석교가 있어 참배자들이 기도를 하며 ... 굴에서 6-7리 떨어진 곳에 큰 사원이 있다. 이 사원도 해동의 여러 나라 사신들이 조공을 하고,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면 건너지 못함이 없다.⁵⁶⁾

49) 원효는 『法華經宗要』 1권, 『法華經 方便品料簡』 1권, 『法華宗要』 1권 등 『법화경』 주석서를 저술했다고 하므로 그가 『법화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0) 김복순, 2008, 『신사조로서의 신라 불교와 왕권』, 경인문화사, 127-128쪽.

51) 『宋高僧傳』 권4 唐新羅國黃龍寺元曉傳 및 『삼국유사』 권4 의해5 「元曉不羈」.

52) 신선혜, 2015, 『삼국유사』 탐상편 「백률사」조의 종합적 검토,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36, 52-56쪽.

53) 국립전주박물관, 1994,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260쪽.

54) 최광식, 1998, 「백제의 국가제사와 죽막동 제사유적의 성격」에 대한 토론,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연구』, 국립전주박물관, 140쪽.

55) 송화섭, 2020, 『줄포만과 변산반도의 해양문화』, 전북연구원, 53쪽. 여기서는 죽막동 유적이 이미 6세기 후반에 관음성지로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는데, 중국 보타산 신앙이 9세기는 되어야 성립된다는 점에서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

56) 『佛祖統紀』 권42 大中 12년조.

이에 따르면 조음동은 불공거관음원과 6-7리 떨어져 있는데, 바닷물이 밤낮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큰 소리를 냈으므로 ‘조음’이라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보타산 신앙은 이 지역의 국제적 성장을 통한 대외 교류 속에서 해양 안전을 기원하는 신앙으로 발전하여 바다를 통해 오가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다. 이렇듯 당시 관음성지화 된 명주 보타산 지역과의 빈번한 왕래를 통해 죽막동 유적의 해양 재래신이 관음보살로서 신앙되었다고 보이는데, 해신과 관음신앙이 함께 보이는 양상은 동해안 낙산의 사례와 동일하다. 즉 앞서 살폈던 『삼국유사』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에는 몽골 침입 시 성물로 보관된 수정염주와 동해의 용이 바친 여의보주 등 두 보주를 궁중으로 모셔온 사실이 보이는데 동해용 신앙이 불교에 융합된 것을 의미한다.⁵⁷⁾ 죽막동 유적은 해변굴의 존재가 관음보살의 주처로 인식되면서 다시금 해양 제사를 이어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⁵⁸⁾

이렇게 죽막동 유적은 신라에 복속된 전후 시기에는 백제의 해양 신앙을 대표하는 제장으로 인식되었지만, 신라 하대에 들어 낙산신앙의 확대와 중국 보타산과의 교류를 통해 해변굴이라는 지형적 공통점을 매개로 관음신앙처화되었다.

5. 맺음말

죽막동 유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발굴된 유물의 출토 양상을 통해 시기적으로 그 특징을 짐작해볼 수 있을 뿐 실증 자료의 영성함으로 인해 많은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지만, 본고에서는 제사 양상의 변화를 불교, 특히 관음신앙과의 관련성 속에서 계기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죽막동 유적의 유물 출토 현황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해양 신앙의 양상을 살폈다. 3~4세기의 제사 양상은 이 지역 해양 제사 및 신앙 전통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 일대 마한 사람들은 죽막동 유적에서 항해보호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며 대중국 교류를 진행하였다. 5~6세기는 본 유적의 중심 시기로 이전 시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왜 양식의 유물이 발견되어 백제-왜 간 교류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백제가 전북 지역의 마한을 복속한 때로, 마한의 해양 제사 체계를 백제로 포섭하고자 하였다. 한편 6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유물의 숫자가 적어지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데, 이는 불교의 영향으로 죽막동 유적에서의 제사 비중이 적어졌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즉 죽막동 유적은 해당 지역의 마한에서 백제로의 변화와 불교의 전래라는 요인에 의해 양상의 변화를 겪었다.

6세기 중반 이후 해양 제사 비중의 축소는 불교의 전래를 넘어 백제 관음신앙의 성립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백제 관음신앙의 시작은 발정으로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현세구복적인 『법화경』적 관음신앙과 보살주처를 구하는 『화엄경』적 관음신앙이 함께 전래되었다. 그러나 이후 백제에서는 『법화경』적 관음신앙이 확산되었다. 이는 일본에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백제의 관음신앙, 특히 북극성이 보살로 화현한 묘견보살신앙이 유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묘견신앙이 해양 안전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법화경』적 관음신앙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리

57) 한기문, 2022, 「고려시대 해로 사원과 해양불교신앙」, 『역사교육논집』79, 340쪽.

58) 한자는 다르지만 청해진을 ‘助音島’로 불렀음이 『삼국사기』에 보인다.(『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中祀) 완도는 장보고 당대에 청해진으로 불렸지만 이후에 전개된 관음신앙의 양상이 중국 보타산 관음원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동일하게 ‘조음도’로 불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례는 나말여초 완도 관음신앙과 중국 보타산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신선혜, 2023, 「전남 지역 관음신앙의 전개와 완도」, 『한국고대사탐구』44, 126-128쪽)

한 관음신앙은 변산반도 이외에 새로운 대중국 향로의 등장으로 그 중심지가 태안반도 혹은 전남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이러한 양상이 기존 해양 신앙의 대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죽막동 제사의 재래신의 역할은 관음신앙의 전래 및 확산과 함께 지속되었다.

한편 죽막동 유적은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에 신라의 제사 체계로 편제되어야 했는데, 예상과 달리 구백제 지역의 제장으로 군산이 설정되었고, 오히려 죽막동 제사는 중지되었다. 여기에는 죽막동 제사를 통한 백제인들의 결속을 저지하려는 신라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백제 해양 신앙 체계에 대한 견제책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변산반도 지역에 원효의 사상을 이식함으로써 백제에서 유행한 『법화경』적 관음신앙을 신라 왕실의 그것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백제 신앙 체계에 대한 포섭책이라 할 수 있다.

중지되었던 죽막동 제사는 8-9세기가 되면 재개된다. 여기에는 죽막동 유적에 해변굴이 있었던 점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 보타산에서는 해변가 사찰인 불공거관음원에 있는 해변굴을 관음보살의 주처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신앙이 이 지역과 신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동해 낙산사의 해변굴과 함께 죽막동 유적의 해변굴이 관음주처지로 인식되면서 죽막동 유적은 관음신앙처화되고 제사가 재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죽막동 유적은 마한-백제-신라의 영역에 속하면서 제사의 양상을 달리하였고, 특히 관음신앙의 확산과 변형에 의해 관음신앙과 융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본고를 통해 전북의 해양 신앙과 불교의 특징을 죽막동 유적의 변화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고대 전북의 해양 신앙과 불교」에 대한 토론문

진정환(국립익산박물관)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확인된 제사유적으로서, 3세기 후반부터 7세기 전반까지 마한·백제·가야·왜·중국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고고학계에서 출토품의 분석을 바탕으로 해양제사의 양상 변화와 의미를 연구한 적은 많았습니다. 신선혜 선생의 이번 발표는 죽막동 유적의 제사 양상 변화와 불교의 관계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연구라 생각합니다. 부안 죽막동 유적이 마한→백제→신라의 영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제사의 양상이 변모하였으며, 백제를 멸망 이후에는 관음 신앙과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신선혜 선생의 논지에 대해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토론자의 말은 바를 다하기 위해 토론자의 견해 및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5~6세기 전반 죽막동 유적의 성격과 제의 주관자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자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立大木 懸鈴鼓”와 죽막동 유적 출토 석제모조품의 용도와 의미를 연결하여, ‘5~6세기 죽막동 제사를 백제가 마한의 해양 신앙 체계를 포섭하고, 이 지역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발표자의 논지는 마한에서 행해지던 입대목 제의를 마한 멸망 후 백제가 마한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죽막동 유적에서 재현하고자 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입대목 제의의 등장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서 『삼국지』 동이전의 “立大木 懸鈴鼓”가 백제가 이 지역을 점령하기 한참 전인 기원 전후의 양상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해,¹⁾ 백제가 그러한 형태의 제의를 인식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5~6세기 죽막동 유적이 백제의 국가적 제의 공간이었다면, 가야, 왜, 중국의 유물이 이곳에 발견된 것도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제 유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유물이 등장하는 것은 5~6세기 전반 백제와 남중국, 백제와 왜의 빈번했던 교류에 힘입어 해양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집단에 의해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5~6세기 죽막동 유적은 국제교역항로의 중요 거점에 있던 국제적 祭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6세기 중반 이후 죽막동 유적에서 5~6세기 전반보다 평범한 유물이 발견되는 이유가 불교 전래 이후 해양제사는 바다라는 제장에서 다소 떨어진 장소에서 행해졌기 때문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든 울주 망해사와 태안 마애삼존불의 입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망해사의 海(바다)가 불교의 四海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백화산 정상부에 있는 태안 마애불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륙으로 해양제사의 제장이 옮겨왔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발표자가 든 사례 외에 내륙 해양제사 관련 제장 혹은 사찰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발표자가 고려 때에도 여전히 죽막동 일대가 국제 항로의 중요한 곳이라고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서공의 사행 항로가 실상은 섬과 섬을 잇는 방식이었던 점, 선유도 오룡묘 유적을 비롯한 서해 연안의 여러 섬에서 해양제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볼 때, 오히려 항해술

1)李宗哲, 「立大木·솟대 祭儀의 등장과 전개에 대한 試論」 『韓國考古學報』 106(2018), 8~45쪽.

이 점차 발달하면서 해양제사의 제장이 바닷가에서 연안의 섬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발표자는 신라의 四海의 제장 가운데 서쪽에는 未陵邊(屎山郡, 군산 임피)에 있었던 이유로 신라가 죽막동 유적 일대를 복속한 후 백제 신앙 체계에 대한 견제 때문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 7세기 후반 이후 죽막동 유적이 제장으로 활용되지 못한 점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국제 항로 상 부안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부차적으로는 부안 일대가 백제 부흥세력의 근거지였다는 점도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발표자는 이규보의 「南行月日記」에 元曉房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원효의 사상으로 부안지역을 포섭하고자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변산 일대에는 원효방 외에도 의상암과 같은 신라 고승의 이름을 곳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찰이 창건주로 원효와 의상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변산 원효방 관련 이야기는 후대의 각색일 가능성도 매우 커 보입니다. 발표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효의 사상으로 이 지역을 통합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 8~9세기 죽막동 제사의 재개와 관련하여, 격포 해변의 해식동굴을 근거로 중국 보타산 신앙의 영향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보타산 신앙 제례의 양상은 어떤 것인지, 죽막동 유적의 기와 건물 및 출토품과 보타산 신앙 제례와의 관련성은 무엇인지, 변산 일대에서 보타산 신앙과 관련된 佛蹟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토론자가 발표자의 논점을 잘 못 이해했다면,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안 죽막동 유적을 중심으로 고대 전북의 해양 신앙 변화에 있어 불교와의 관련성을 밝힌 발표자의 이번 발표가 향후 죽막동 유적 연구가 심화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토론을 끝맺겠습니다.

후백제사의 몇 가지 문제 - 견훤의 신라 인식 및 금석문 자료에 대한 단견

박수정(동서대)

<목차>

1. 머리말
2. 견훤의 신라 인식과 존왕의 의
3. 고려 초 선사비의 후백제·견훤 관련 기록
4. 맺음말

1. 머리말

後百濟는 그 존재 기간이 길지 않지만 『三國史記』列傳 甄萱, 『三國遺事』紀異 後百濟甄萱 등의 사료에 견훤의 역동적인 활동과 역사 인식에 대한 내용이 전하고 있다. 물론 이들 사료만으로 후백제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後三國史 전공자 또한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훤의 출자, 세력 형성 과정과 豪族 연계, 대신라·고려 인식과 상호관계, 吳越·後唐 및 日本과 대외교류, 고려 초 후백제 遺民의 동향 등 정치·사회사뿐 아니라 都城과 불교미술 같은 고고·문화 요소, 견훤 관련 기록의 原典, 여타 자료의 발굴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관련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또한 근래에는 이를 종합한 후백제 연구사 및 자료 현황 검토가 이루어져 현주소와 과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¹⁾

본 발표에서는 앞서 정리된 연구사 관련 논고들을 참고하여 다음의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발표자는 고대사를 공부하고 있지만, 후백제 혹은 견훤 관련 연구 현황에 대한 폭넓은 논평이나 심화된 주제를 다룰 만한 입장은 못 된다. 다만 최근 견훤의 自署 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후백제사에 대한 한 두 가지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짧은 생각을 드러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는 견훤의 신라 인식 및 ‘君臣關係’ 설명에 대한 검토이다. 일찍이 弓裔와 견훤이 신라에 대해 시종 적대적 태도를 취했다는 이해에 대해 새롭게 비판이 가해지면서, 자서에 ‘신라’를 관칭하고 신라의 관제를 그대로 사용하며 ‘尊王’을 강조했던 견훤은 신라와 백제를 시종 군신관계로 인식했다는 견해가 나오게 되었다.²⁾ 이후 견훤의 전제군주적 측면이나 왕권 신성화 방안 등이 주목되고 900년 ‘後百濟王’을 칭할 때의 발언 및 관련 기록이 재검토되면서 군신 인식의 실제 또한 드러나게 되었으나, 후백제의 대신라 관계를 다룬 글들에서는 여전히 군신관계나 陪臣 서술이 많이 보인다. 여기에는 927년 견훤이 왕건에게 보낸 편지에 ‘존왕’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점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군신관계 의논은 한편으로

1) 조법중, 2006, 「후백제와 태봉 관련 연구동향과 전망」 『新羅文化』 27; 신호철, 2015, 「후백제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국립전주박물관 편), 공감; 이도학, 2021, 「후백제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허인욱, 2021, 「후백제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전북학연구』 4,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홍창우, 2023, 「후백제 관련 자료의 현황과 쟁점」 『지방사와 지방문화』 26권 1호, 역사문화학회.

2) 신호철, 1993, 『後百濟 甄萱政權研究』, 일조각.

종래 중요하게 여겨졌던 견훤의 백제 계승 및 一統三韓 의식과 모순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단순히 명분론으로만 취급하는 것도 아쉬운 듯하여,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는 고려 초 세워진 禪師碑에 나타난 견훤 관련 기록에 대한 분석이다. 선사비는 그 대상과 목적이 불교로 제한되는 관계로 후백제·견훤에 대한 언급이 단편적이며, 서술 시기의 문제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이미 선사비를 다양하게 인용해 왔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문구의 해석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몇 가지 내용을 재검토해 보려 한다. 내용이 많이 부족하지만, 후백제사에 흥미를 갖게 된 사람이 하나 더 늘었다는 점을 기특히 여기고 질정해 주시길 바란다.

2. 견훤의 신라 인식과 존앙의 의

『삼국사기』에서 견훤의 흥기와 신라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처음 기록은 다음의 견훤전 내용일 것이다.

A. 唐 昭宗 景福 원년(892). (중략) 이때 견훤이 몰래 왕위를 넘겨다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무리를 불러 모아 왕경 서남 주현을 가서 치니, 이르는 곳마다 호응하여 한 달 사이에 무리가 오천 인에 이르렀다. 드디어 武珍州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다만 감히 공공연히 稱王하지 못하고 自署하여 新羅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 持節 都督全武公等州軍事 行全州刺史 兼御史中丞 上柱國 漢南郡開國公 食邑二千戶라고 하였다. 이때 北原 梁吉의 세력이 강해지자 弓裔가 스스로 그 휘하에 투항하였다. 견훤이 듣고 양길에게 遙授하여 裨將으로 삼았다.³⁾

기존에 지적되었듯이, 견훤이 신라 서남지역을 중심으로 거병하여 본격적으로 독자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889년부터였다고 여겨진다.⁴⁾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볼 때,⁵⁾ 적어도 당대 후백제는 889년을 건국 시점으로 의미있게 여겼던 것 같다. 그러나 견훤이 무진주를 도읍으로 삼고 自王·자서하며 새로운 나라를 연 실질적인 시기는 892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⁶⁾ 당시 견훤이 아울렀던 ‘京西南州縣’,⁷⁾ ‘武州東南郡縣’⁸⁾은 대체로 광주와 연결되는 여

3) 『三國史記』 권50 열전10 견훤, “唐昭宗景福元年 (中略) 於是 萱竊有覲心 嘯聚徒侶 行擊京西南州縣 所至響應 旬月之間 衆至五千人 遂襲武珍州 自王 猶不敢公然稱王 自署爲新羅西面都統 指揮兵馬制置 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 行全州刺史 兼御史中丞 上柱國 漢南郡開國公 食邑二千戶 是時 北原賊梁吉 雄強 弓裔自投爲麾下 萱聞之遙授梁吉職爲裨將”.

4) 신호철, 1993, 앞의 책, 37~43쪽.

5) 『三國遺事』 권2 기이2 후백제견훤, “於是萱竊有叛心 嘯聚徒侶 行擊京西南州縣 所至響應 旬月之間 衆至五千 遂襲武珍州自王 猶不敢公然稱王 (中略) 龍化元年己酉也 一云景福元年壬子”, “四十二年庚寅 萱欲攻古昌郡[今安東] 大舉而石山營寨 太祖隔百步而郡北瓶山營寨”.

6)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唐昭宗景福元年 是新羅眞聖王在位六年 (중략) 遂襲武珍州 自王 猶不敢公然稱王 自署爲新羅西面都統 指揮兵馬制置 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 行全州刺史 兼御史中丞 上柱國 漢南郡開國公 食邑二千戶”, 『삼국유사』 권1 왕력, “景福[壬子]二 後百濟 甄萱[壬子始都光州]”, “天福[丙申]八年 是年國除[自壬子至此 四十四年而已]”. 강봉룡, 2001, 「甄萱의 勢力基盤 擴大와 全州 定都」,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85~86쪽; 김갑동, 2001, 「後百濟 甄萱의 戰略과 領域의 변천」, 앞의 책, 187~192쪽; 변동명, 2023, 「甄萱의 擧兵과 光州 定都」, 『호남학』 73, 128~132쪽; 박

수·순천 등의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⁹⁾ 그가 이곳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군하여 왕경에 들어갔다가 서남해 防戍로 부임하여 공을 세우고 裨將이 되었던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⁰⁾ 견훤이 892년 자서할 때 맨 앞에 ‘新羅西面道統 指揮兵馬制置’를 내세웠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가 흥기했던 근거 지역이 ‘왕경서남주현’이었던 사실과 밀접히 관련될 것이다.¹¹⁾

그런데 이 자서는 견훤이 새로운 나라를 꾸리면서도 신라 왕조의 권위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신라 지방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되어 왔다. 견훤이 신라의 군인으로서 독립하고 신라를 관칭하는 관함을 썼다는 점은, 그가 왕건과 대척점에 있으면서 신라에 적대적이거나 반신라적인 정책을 취하였다는 이해를 부정하는 첫 번째 증거로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여기에 927년 견훤이 왕건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중 ‘존왕’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더하여, 그가 스스로 후백제왕을 칭하면서도 신라 왕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왕실과 제후의 관계 즉 ‘군신관계’의 입장을 취하였다는 설명이 나왔다.¹²⁾

나아가 견훤이 백제계승자로서 池龍 설화를 취하고 백제 부흥과 삼한 통합을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의 선대를 신라 왕실과 연결시키고 신라에 대한 尊王의 義를 강조했던, 이 이중적 역사 인식이 후백제 자체의 한계였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¹³⁾ 불교와 관련해서도 견훤이 신라로부터 인정 받기 위해 왕실과 접촉이 필요하였고, 이에 신라 왕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선종 산문을 주목했다는 설명이 있었다.¹⁴⁾ 최근에는 견훤은 신라의 陪臣이자 계승자, 수호자임을 자처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로부터 受禪하고자 했던 것이며, 그 배경에는 무력을 통한 신라 강제 합병이 민심의 이반과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901년 건국해 노골적으로 신라에 적대적 입장을 표방했던 궁예의 後高句麗를 제압하고 호족들을 포섭하고자 했던 의도, 신

수정, 2023, 「甄萱 自署의 변화 과정과 그 의미」 『남도문화연구』 50,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47~48쪽 등.

- 7) 주 5)의 『삼국유사』 후백제견훤조.
- 8) 진성왕 6년(892) 完山賊 견훤이 주를 근거로 스스로 後百濟라 일컬으니 武州 동남쪽의 군현들이 그에 투항하여 복속하였다(『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6년, “六年 完山賊甄萱 擡州自稱後百濟 武州東南郡縣降屬”).
- 9) 이도학, 2001, 「진훤의 출신지와 그 초기 세력기반」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69~72쪽. 견훤이 왕경 서남쪽 주현을 치고 무진주를 장악한 것(『삼국사기』 견훤전)과 무주 동남쪽 군현이 항복해 소속된 것(『삼국사기』 신라본기 진성왕 6년)을 선후 관계의 사실로 파악해, 견훤이 처음 봉기한 지역을 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목포를 잇는 해안선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배재훈, 2010, 「견훤의 군사적 기반」 『新羅文化』 36, 182~183쪽). 흥미로운 견해이긴 하지만, 왕경서남주현과 무주동남군현은 모두 견훤이 초기에 공략했던 지역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아무래도 같은 지역을 일컫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10)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從軍入王京 赴西南海防戍 枕戈待敵 其勇氣恒爲士卒先 以勞爲裨將”.
- 11) 후대의 일이지만, 고려 무신정권기인 高宗 4년(1217) 서경에서 군졸 崔光洙가 상장군 崔兪恭에게 항명하고 난을 일으키면서 ‘句高麗(高句麗)興復兵馬使 金吾衛攝上將軍’를 자칭한 적이 있다. 이는 고구려 계승을 자처한 고려 조정에 대한 반란으로서 다시 고구려 부흥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데, 기본적으로 지역적 연고가 강한 고구려를 회상시킴으로써 많은 사람의 동조를 얻고 나아가 최충헌 일가에 의해 허수아비가 된 고려의 왕권 실추를 비판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이해된다(민현구, 1989, 「高麗中期 三國復興運動의 역사적 의미」 『韓國史市民講座』 5, 일조각, 96~97쪽). 당시 신라, 백제부흥운동도 함께 일어났으므로 그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지만, 반란을 꾀할 때 그곳의 역사성에 기반하는 것이 지역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12) 하현강, 1988, 「後三國關係의 展開와 그 實態」 『韓國中世史研究』, 일조각, 59~60쪽; 신호철, 1993, 앞의 책, 106~109쪽.
- 13) 신호철, 2014, 「후백제의 역사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74, 6쪽, 24~25쪽.
- 14) 조범환, 2001, 「後百濟 甄萱政權과 善宗」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350쪽.

라 유화책을 견지하였던 王建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다.¹⁵⁾

확실히 ‘신라서면도통 지휘병마제치’는 대외적으로 신라를 앞세워 견훤 스스로 반역자가 아님을 강조하고, 그가 지역의 혼란을 잠재우고 민심을 수습하는 역할을 했음을 드러내기 위해 택한 관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견훤이 892년 武珍州를 습격해 스스로 왕이라 하였으면서도 감히 공공연히 칭왕하지 못했던 것은 그 자신 이전에 신라 무관으로 출발했던 데다 처음 흥기가 신라 조정의 실정과 기근, 도둑과 유망 등으로 이반한 백성들의 마음에 기반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唐末 고위 관직자에게 병용 제수되어 군대를 통솔, 지방의 반란이나 봉기를 진압하고 지역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맡았던 도통·지휘·병마·제치 등을 차용했던 것이다.¹⁶⁾

그렇지만 당시 견훤은 실질적으로 신라와 구별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도 함께 드러냈던 것 같다. 신라본기에서는 892년 견훤의 자립을 ‘후백제를 자칭했다’고 기록했는데,¹⁷⁾ 물론 이 기사는 그를 完山賊으로 표현하는 등 오류가 없지 않지만 신라 역시 견훤이 이때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⁸⁾ 기실 신라가 직접 내리지도 않은 지방관의 관함을 스스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신라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로 비춰지기도 한다.

관련해서 견훤이 자왕·자서 후 곧바로 北原賊 梁吉에게 비장직을 遙授한 것도 참고가 된다. 요수는 실제 취임 없이 이름만 내리는 것이었으므로, 이제 갖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견훤이 주변에 그 위의를 내세우기에 좋은 수단이라고 여겼을 수 있다. 이를 견훤이 양길과 손을 잡으려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¹⁹⁾ 이후 그가 양길과 직접적으로 교섭하려 했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신경 썼던 지역도 우선은 무진주·完山州·公州 등 인근 지역에 집중되었던 것 같다.²⁰⁾ 요수의 사례 중 양자 간 교류 없이 자기 과시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공표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어차피 요수는 이름만 내리는 것이므로 대부분 조정의 힘이 약하거나 정치적 기강이 해이해질 때 이루어졌고 관직도 나이 많은 사람, 변방 이민족 등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이 기사를 가지고 견훤이 5小京 장악을 꾀했던 것이라고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혹은 신라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다.

이후 견훤은 900년 완산에 도읍하고 정식으로 후백제왕을 칭하였다. 900년 후백제 개국 당시 견훤의 인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료는 역시 다음의 기사이다.

15) 이도학, 2021, 「후백제 진훤의 受禪 전략」 『민족문화논총』 78,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6) 박수정, 2023, 앞의 논문, 49~50쪽.

17)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6년, “完山賊甄萱 擄州自稱後百濟 武州東南郡縣降屬”.

18) 이는 신라본기에서 궁예의 자립과 칭왕에 대해 조금 다르게 기록한 것과도 비교된다. 즉 궁예가 본격적으로 자립을 내세웠던 894년에는 ‘스스로 장군이라 칭했다’(진성왕 8년, “衆至六百餘人 自稱將軍”)라 했을 뿐이고 901년 후고려를 건국했던 일에 대해서도 ‘궁예가 왕을 칭하였다’(효공왕 5년, “弓裔稱王”)라고 하였다. 『삼국사기』의 찬자가 본기에서 의도적으로 궁예가 연관된 ‘고려’ 표현을 삭제했을 가능성은 충분하고(윤경진, 2014, 「고려의 건국과 고구려 계승 의식-‘弓裔의 高麗’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홍창우, 2022, 「『삼국사기』의 후고구려 인식-왕조의 ‘계승’과 ‘극복’이라는 양면성의 맥락에 유의하여」 『한국중세사연구』 68) 나아가 궁예의 개국 자체를 폄하하고자 했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와 비교하면 892년 견훤 자왕의 선명도가 더욱 두드러진다.

19) 이도학, 2021, 앞의 논문, 418~420쪽. 여기서는 견훤이 수선 전략 중 하나로 양길과 손을 잡거나 예하로 편입하여 남원경, 금관경, 복원경, 중원경 등 4소경 장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구상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비장직을 양길에게 수여한 것이 신라를 존중하고 기존 질서 속에서 운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설명하였다.

20) 문안식, 2003,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전남지역 호족세력의 추이」 『경주사학』 22, 121~124쪽.

B. 견훤이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에 이르니 주의 백성들이 환영하고 위로하였다. 견훤이 인심을 얻은 것을 기뻐하여 좌우에게 말하기를, “내가 삼국의 시초를 찾아보니, 馬韓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赫世教興하였으니 고로 辰韓과 卞韓이 그를 따라 일어났다. 이에 백제는 金馬山에서 개국하여 6백여 년이 되었는데, 總章 연간에 당 高宗이 신라의 요청으로 장군 蘇定方을 보내 군사 13만 명을 배에 실어 바다를 건넜고, 신라 金庾信이 흙먼지를 날리며 黃山을 지나 사비에 이르러 당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지금 내가 감히 완산에 도읍하여 義慈王의 오래된 울분을 씻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스스로 후백제왕이라 칭하고 說官分職하니 이때가 당 光化 3년, 신라 孝恭王 4년(900)이었다. 吳越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자 왕이 답사를 보냈다. 이에 檢校太保의 관직을 더하고 나머지는 전과 같이 하였다.²¹⁾

여기서 견훤은 마한이 진한·변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저 일어났다는 점, 백제가 나당연합에 의해 멸망했다는 점, 완산에 도읍하는 것은 신라에 대한 의자왕의 울분을 씻기 위해서라는 점을 차례로 언급하며 백제와 신라의 대립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백제가 금마산에서 개국했다고 한 것은 마한과 백제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부분으로,²²⁾ 견훤이 전주 부근 백성들의 호응을 얻고자 호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광주-전주로 연결되는 과거 백제 지역에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던 마한계승의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²³⁾

이 중 ‘赫世教興’ 부분은 마한이 먼저 일어난 후 ‘혁거세가 발흥했다’로 해석하는 경우와 ‘누대로(대대로) 발흥했다’(마한이 먼저 일어나고 이어서 진한과 변한이 쫓아서 흥기했다)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의 논란이 있다. 그런데 위 견훤의 언급이 백제와 신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부분은 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한 뒤 瓠公을 마한에 사신으로 보냈을 때 마한왕이 진한과 변한은 그 속국이니 제대로 직공하라고 꾸짖었던 일²⁴⁾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도 보인다. 결론이야 달라지지 않겠지만, 견훤이 굳이 마한과 혁거세, 금마산을 연이어 언급한 것은 백제의 역사가 신라보다 오래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신라에 대한 백제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²⁵⁾

21)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萱西巡至完山州 州民迎勞 萱喜得人心 謂左右曰 吾原三國之始 馬韓先起 後赫世教興 故辰卞從之而興 於是 百濟開國金馬山 六白餘年 總章中唐高宗 以新羅之請 遣將軍蘇定方 以船兵十三萬越海 新羅金庾信卷土 歷黃山至泗泚 與唐兵合攻 百濟滅之 今子敢不立都於完山 以雪義慈宿憤乎 遂自稱後百濟王 設官分職 是唐光化三年 新羅孝恭王四年也 遣使朝吳越 吳越王報聘 仍加檢校太保 餘如故”.

22) 여기에는 고조선 準王의 남래 지점으로서 익산 및 금마산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고조선(준왕)의 역사적 계통성이 마한 - 백제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삼국시대 이후 존재하고 있었고, 견훤 역시 그 계통성을 염두에 두고 백제가 금마산에서 개국했다고 표현했을 것이라고 한다(조법중, 1999, 「후백제 甄萱의 역사계승인식-高句麗 및 百濟의 馬韓계승인식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8·59합(乃雲崔根泳博士停年紀念論文集), 492~493쪽).

23) 조법중, 2023, 「후백제 견훤왕의 왕권 신성화 방안 검토-정통성 표방, 연호 건원, 대왕 호칭, 시조신화 신성화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51, 8~9쪽.

24)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 거서간 38년, “三十八年 春二月 遣瓠公聘於馬韓 馬韓王讓瓠公曰 辰卞二韓 爲我屬國 比年不輸職貢 事大之禮 其若是乎”.

25) 이 금마산 관련 발언에 대해, 마한과 백제가 한 뿌리임을 강조하면서 정통성 확보와 국가 통합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견훤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익산, 정읍 등 백제 왕도나 지방 거점이 있었던 지역의 백제귀족의식과는 다른, 웅관묘 문화를 이룩한 영산강 일대의 마한 귀족의식까지 아우르기 위한 마한-백제 일체 의식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는 것이다(진정환, 2019, 「後百濟王 甄萱의 900~901年 言行의 意味」 『전북사학』 57, 124~127쪽). 흥미로운 견해라 생각되지만, 어쨌든 백제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영산강 유역에 대해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백제와 구분될 정도의 별도 비중으로 보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으리라 이해해도 좋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어서 백제의 멸망과 의자왕의 올분을 든 것은 신라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는 견훤이 ‘백제’라는 나라 이름을 세우고 정식으로 왕이라 칭했던 조처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언급으로, 견훤은 이때 정식으로 ‘신라’를 관칭하는 관함을 버리고 백제-신라의 대등한 관계를 분명히 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라고 이해된다.²⁶⁾ 설관분직²⁷⁾이나 연호 사용,²⁸⁾ 大耶城 공격 등도 모두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조처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실 견훤은 892년부터 자왕의 의지가 없지 않았으므로, 이는 900년에 신라에 대한 인식이 변했던 것이라 하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던 신라에 대한 생각이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된 결과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925년 견훤이 후당의 책명을 받을 때 전례에 따라 기존 관함을 인정받았는데, 이때의 관명은 ‘海東四面都統 指揮兵馬制置’로 되어 있다. ‘해동사면’은 당대 이후 고구려-백제-신라 삼국(혹은 신라-발해)을 지칭하던 표현인 ‘해동삼국’²⁹⁾을 떠올리게 하는데, 당시 해동과 삼한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므로³⁰⁾ 이는 곧 견훤이 일통삼한의 의식을 표방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견훤은 927년 고려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바라는 바는 平壤의 누각에 활을 걸어 놓고, 溟江에서 말에게 물 먹이는 것이다’라고 언급했으므로³¹⁾ 이즈음에는 통합의 목표가 확고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관련해서 900년 천도 시 견훤이 내세운 백제계승자로서의 국가 정체성이 925년 무렵부터는 신라의 대체자이자 통일의 완성자로 재정립되었고, 이 목표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후당에 사신을 파견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기도 하다.³²⁾ 매우 흥미로운 견해이지만, 한편으로 900년 견훤이 내세운 개국의 변에서 마한-백제-후백제를 언급한 이면에 古朝鮮에서 비롯된 해동의 전 역사 공간이 고려되었을 수 있고, 또한 그가 이미 그 이전 신라 하대부터 일어났던 새로운 일통 의식 즉 고구려(발해)를 포함시키는 삼한일통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³³⁾ 이 점을 참고하면, 이 ‘해동사면’의 관칭은 이미 900년 후백제왕 선포 당시부터 이루어졌던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³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훤이 여전히 신라와 상호 군신관계라고 규정했다거나 혹은 신라의陪

26) 김수태, 2015, 「후백제의 대신라-고려 관계」 『한국중세사연구』 41, 132~133쪽. 견훤이 신라 왕실과 관계를 군신관계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은 ‘자서기’의 상황이며, 후백제왕을 칭하고 의자왕의 명분을 갖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을 때에는 신라에 대한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신라와 대등한 관계를 설정했다고 하였다.

27) 설관분직의 경우 이후 견훤 세력이 사용했던 관등이 신라의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신라에 대한 소속감을 탈피하지 못했던 사실을 보여준다는 설명이 있지만, 견훤이 자서한 관직 자체 기존 신라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金摠의 관직이 引駕別監이었던 점도 참고할 수 있다.

28) 金包光, 1928, 「片雲塔과 後百濟의 年號」 『佛敎』 49, 佛敎社, 33~35쪽; 신호철, 앞의 책, 1993, 53쪽.

29) 추명엽, 2005, 「高麗時期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한국사연구』 129.

30) 김한규, 1994, 「우리나라의 이름 ‘東國’과 ‘海東’ 및 ‘三韓’의 개념」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일조각; 윤경진, 2018, 「고려 건국기의 三韓一統意識과 ‘海東天下’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5.

31)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所期者掛弓於平壤之樓 飲馬於溟江之水”.

32) 진정환, 2023, 「후백제의 정체성 변화에 따른 외교 전략」 『2023년 5개 역사학회 연합학술대회 지역과 국제관계 발표집』, 호남사학회·대구사학회·부산경남사학회·전북사학회·호서사학회·전남대 인문학연구원·한국학호남진흥원, 95~96쪽. 여기서는 920년 대야성 공략에 성공하고 922년 백제 계승 완수를 기념하는 미륵사 개탑 사업을 진행하는 등 920~922년 사이 국내적으로 후백제의 백제 계승자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졌다고 하였다.

33) 이강래, 2004, 「후백제의 당대 인식-토대와 지향의 맥락에서」 『한국고대사연구』 35, 28~36쪽, 46쪽. 참고로 궁예의 경우 901년 칭왕 당시 언급에서는 일통의 의식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른바 王昌璫의 古鏡 일화에서 진한과 계림, 마한과 압록을 연결하는 이해가 보이므로, 마한-고구려를 중심에 둔 삼한-삼국 연계 경향 자체가 궁예 정권 내부에 존재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홍창우, 2023, 「궁예의 『(後)高麗』 국호 제정과 ‘一統三韓’의 지향」 『신라사학보』 59, 296~300쪽).

34) 박수정, 2023, 앞의 논문, 64쪽.

臣으로 자처하고 있었다는 설명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927년 견훤과 왕건이 주고받은 편지에 보이는 ‘존왕’ 표현 때문이라 할 것이다. 관련 사료는 다음과 같다.

C. 그러므로 (927년) 12월 중에 태조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였다. “지난번 國相 金雄廉 등이 장차 足下를 불러 서울에 들어오게 한 것은 마치 작은 자라가 큰 자라의 울음에 응답하는 것[鼈應龜聲] 같았으나, 이는 종달새가 송골매의 날개를 걸치려고 한 것[鷓披隼翼]이니 반드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宗社를 폐허로 만들 것이었다. 나는 이런 까닭으로 먼저 祖鞭을 잡고 홀로 韓鉞을 휘둘렀으며, 모든 신료들에게 맹서하기를 밝은 해처럼 하고 6部를 의로운 가르침으로써 타일렀거늘, 뜻밖에 간신들은 도망하고, 임금이 돌아가시는 변이 생겼다. 드디어 景明王의 외사촌 동생이자 獻康王의 외손을 받들어 권하여 尊位에 오르게 하였으니, 내 뜻은 위태로운 나라를 바로잡고 잃었던 임금을 다시 세우는 데 있었던 것이다. (중략)

그러나 지난달 7일에 오월국 사신 班尙書가 와서 왕의 조서를 전하여, ‘(중략) 지금 오로지 이를 위해 사신을 보내 경의 나라에 가게 하고, 또 고려에도 서신을 보내니 마땅히 각기 서로 친하게 지내 길이 복을 누리라’고 하였다. 나는 의리를 돈독히 하여 尊王하고 마음 깊이 事大하는지라, 이 조칙의 권유를 듣자 곧장 삼가 받들어 행하고자 한다.³⁵⁾

D. 나는 위로는 천명을 받들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추대에 못 이겨 과분하고 외람되게 장수의 권한을 맡고, 천하를 다스릴 기회를 얻었다. (중략)

의리를 지켜 尊周함에 누가 桓公·文公의 패업과 비슷하겠는가. 틈을 타서 漢을 도모함에 오직 王莽·董卓의 간사함을 볼 뿐이다. 왕의 지존함을 굽혀 족하에게 자식이라 칭하게 하기에 이르렀으니 尊卑가 질서를 잃고 上下가 함께 걱정하게 되었다. 元輔의 忠純이 아니면 어찌 다시 사직을 안정시킬 수 있겠는가. 나는 마음에 악함을 숨기지 않았고 뜻이 尊王에 간절하므로, 장차 조정에 끌어 두어 나라의 위태로움을 붙들게 했던 것이다. 족하는 털끝만 한 작은 이익을 보고 천지의 두터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君王을 베어 죽이고 궁궐을 불 질렀으며, 卿士를 살륙하고 士民을 죽였다. 또 姬姜은 곧 붙잡아 같은 수레에 태우고, 珍寶는 곧 빼앗아 가득 실어 갔으니, 큰 죄악은 桀紂보다 더하고, 불인함은 獯鬻보다 심하였다. (중략)

나의 원한은 임금이 돌아가심(崩天)에 극에 달하였고 정성은 해를 물러나게 할 정도로 깊어, 매가 참새를 쫓는 것을 본받고 犬馬의 부지런함을 바치기로 맹세하였다.³⁶⁾

이는 927년 가을 견훤이 신라 왕경을 침범해 景哀王을 해하고 敬順王을 즉위시킨 뒤 왕건

35)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故十二月日 寄書太祖曰 昨者國相金雄廉等 將召足下入京 有同鼈應龜聲 是欲鷓披隼翼 必使生靈塗炭 宗社丘墟 僕是用先着祖鞭 獨揮韓鉞 誓百寮如嚙日 諭六部以義風 不意奸臣遁逃 邦君薨變 遂奉景明王之表弟 獻康王之外孫 勸即尊位 再造危邦 喪君有君 於是乎在(中略) 然以前月七日 吳越國使班尙書至 傳王詔旨(中略) 今專發使臣 赴卿本道 又移文高麗 宜各相親比 永孚于休 僕義篤尊王 情深事大 及聞詔諭 即欲祇承”.

36)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僕仰承天假 俯迫人推 過叨將帥之權 獲赴經綸之會(中略) 仗義尊周 誰似桓文之霸 乘間謀漢 唯看莽卓之奸 致使王之至尊 枉稱子於足下 尊卑失序 上下同憂 以爲非有元輔之忠純 豈得再安於社稷 以僕心無匿惡 志切尊王 將援置於朝廷 使扶危於邦國 足下見毫釐之小利 忘天地之厚恩 斬戮君王 焚燒宮闕 菹醢卿士 虔劉士民 姬姜則取以同車 珍寶則奪之輶載 元惡浮於桀紂 不仁甚於鏡鬻(中略) 僕恐極崩天 誠深却日 誓効鷹鷂之逐 以申犬馬之勤”.

과 싸운 公山 전투에서 승리한 뒤, 견훤과 왕건 사이에 오간 서간 중 존왕의 의와 관련된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C는 견훤의 글, D는 왕건의 글에 해당한다. 먼저 C에서 견훤은 신라의 종사를 폐허로 만들지 않기 위해 한월을 휘둘렀으나 뜻밖에 왕이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위태로운 나라를 바로잡고 잃었던 왕을 다시 세웠다고 말하고 있다. 또 종사가 폐허가 될 만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국상 김응렴이 왕건을 신라 왕경으로 불러들이려고 했기 때문이며, 견훤은 이를 막기 위해 왕건보다 먼저 신라에 갔다고 하였다. 신라의 책동이 경애왕의 의도였을 것임에도 국상 김응렴을 앞세우거나 신라의 요청에 고려가 응한 것을 큰 자라의 울음에 작은 자라가 답한 일에 비유한 것,³⁷⁾ 본인이 신라의 임금을 다시 세웠고 ‘義篤尊王’하였다고 언급한 것에서 군신관계적 인식이 간취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러한 언급이 견훤의 일방적 주장이며 명분론에 불과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미 신라와 고려의 관계를 큰 자라 작은 자라(鼈應龜聲, 龜鳴鼈應)로 비유한 것에서 그들이 대소와 고하의 차이가 있다 해도 본질적으로는 동류라는 의식이 드러나고, 鷄披隼翼이라는 표현도 신라가 물리적으로 고려에 비할 바 아니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³⁸⁾ D에서 견훤이 신라 왕경을 침범했을 때 ‘지존한 왕에게 몸을 굽혀 자신에게 아들이라 칭하도록 하여 존비의 질서를 잃게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신라본기나 견훤전에서 대략 경애왕을 핍박한 것으로 뭉뚱그려 언급된 상황에 실질적으로는 왕을 능멸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것이 경애왕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존왕의 의 운운은 이미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신라본기에서 다음 嗣立者인 金傅를 ‘權知國事’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견훤이 실질적으로 신라의 명맥이 끊겼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³⁹⁾ 일이 마무리된 후 국왕 시해 합리화를 하나의 목적으로 하여 작성된 이 편지에 존왕에 대한 언급이 있다 한들 이는 군신관계 의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따라서 이 표현을 견훤 정권 전시기로 확대해 의미부여 할 수는 없다는 지적⁴⁰⁾은 온당하다고 하겠다.

사실 C·D를 비교해 보면 견훤의 존왕 표명은 왕건에 비해 그 강도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왕건은 먼저 견훤의 행위를 한나라를 망하게 한 왕망·동탁과 같다고 하고 털끝만 한 이익을 위해 천지의 두터운 은혜를 저버린 것이라 비난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주 왕실을 섬겼던 제환공이나 진문공 같은 패자에 견주면서 원보의 충순함을 갖춘 존재라 말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이야말로 존왕의 의에 간절하므로 신라 조정을 구원하고 위태로움을 붙잡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왕건이 편지의 앞부분에서 스스로 사람들의 추대에 따라 ‘장수의 권한’을 맡았다고 자칭한 것 자체가 그 자신 신라왕에 대해 신하를 자처했다는 의미라고 해석되기도 하였다.⁴¹⁾ 이 해석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D를 보면 왕건이야말로 분명하게 존왕의 의리를 지키는 신라의 신하로서 자처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37) ‘鼈應龜聲’의 해석에 대해서는 신라를 큰 자라, 고려를 작은 자라에 비유하여 임금과 신하가 서로 어울림을 뜻한다고 풀이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뒤의 종달새, 새매를 참고하여 큰 자라는 고려, 작은 자라는 신라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유구한 역사와 그에 기반한 권위는 신라가 앞서지만 실질적인 힘은 고려가 앞선다는 사실을 각각 鼈龜, 隼鷄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전자의 해석을 따르고자 한다.

38) 이강래, 2004, 앞의 논문, 30쪽.

39) 이강래, 2004, 앞의 논문, 38쪽에서는 경애왕의 죽음과 함께 C에서 견훤이 신라를 6부로 평칭한 점을 들며 견훤의 현실 인식 속에서 신라 왕조는 이미 실질적으로 병합되었던 것, 즉 신라는 실질적으로 멸망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하였다.

40) 김수태, 2015, 앞의 논문, 134쪽.

41) 하현강, 1988, 앞의 책, 59쪽.

물론 왕건의 언급 역시 명분을 앞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왕건은 신라와 연합을 염두에 두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가 견훤에 비해 도덕성과 정통성이 뛰어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 존왕에 대한 강조를 더했던 것이다. 나아가 존왕의 의(존주론, 존왕론) 자체가 이미 통치력을 잃어버린 주 왕실을 중심으로 천하질서를 유지·지탱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나온 것이며, 그 자체 제후들 특히 패자에 의해 부정될 여지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⁴²⁾

따라서 이 편지들에 근거해 자꾸 군신관계나 배신의 지위를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견훤이 설관분직하면서 신라의 관등을 그대로 사용했다거나, 920년대 일본에 사신을 보낼 때 신라를 관칭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료가 확인되는 것 역시 군신관계나 존왕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 견훤이 신라 왕실과 혈연적으로 연결된다는 계보 전승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⁴³⁾

견훤은 892년 자왕·자서 당시 신라의 권위를 이용한 바 있으나 900년 이후 신라와 구별되는 백제의 계승자로서의 위치를 천명하였고 동시에 자서의 관함을 해동사면도통으로 바꾸면서 일통의 의지 또한 드러내었다. 927년 견훤과 왕건은 각각 명분론을 내세워 신라왕을 존중하는 듯한 언사를 사용했지만 이는 군신관계 인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명분적 수사가 왕건에 비해 훨씬 약한데다가 실제 신라왕을 죽이기까지 했던 견훤의 경우 그 신라 존숭 의식은 더욱 희박했다고 보아야 한다.

3. 고려 초 선사비의 후백제·견훤 관련 기록

후삼국 시기에 활동한 선사들의 비문은 대체로 고려 초太祖부터 光宗 사이에 건립되었다.⁴⁴⁾ 이들 선사비는 후삼국 시기와 멀지 않은 때에 조성된 것이므로 당대의 자료에 해당하며, 특히나 『삼국사기』·『삼국유사』·『高麗史』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지방의 상황이나 전쟁의 전개, 佛事의 시행, 연호의 사용 등을 알려 주는 경우가 많아 중요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단 선사비는 시종 인물에 대한 존숭을 담은 내용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고, 특히

42) 정선용, 2014, 「고려 태조의 신라왕경 방문과 존왕론」 『한국사상사학』 47, 108~109쪽.

43) 『삼국유사』 후백제견훤조에는 <李磾家記(李碑家記)>를 인용해 “진흥대왕의 왕비思刀의 시호는 白賊夫人이다. 그 셋째 아들 仇輪公의 아들 波珍干 善品の 아들 角干 酌珍이 王咬巴里를 아내로 맞아 각각 元善을 낳으니 이가 바로 阿慈수이다. 아자개의 첫째 부인은 上院夫人, 둘째 부인은 南院夫人으로 아들 다섯과 딸 하나를 낳았다. 그 맏아들이 尙父 釐이고, 둘째 아들이 장군 能哀, 셋째 아들이 장군 龍蓋, 넷째 아들이 寶蓋, 다섯째 아들이 장군 小蓋이며, 딸이 大主刀金이다”라고 하였다. 즉 견훤이 진흥왕의 5대손이라는 얘긴데, 이 계보가 완전한 허구임은 말할 것도 없다. 다만 견훤을 신라 왕족과 연결시키는 이 계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견훤 정권 수립 과정에서 신속한 세력 결집을 위해 표방한 이데올로기로 보는 견해(강봉룡, 2001, 앞의 논문, 92쪽), 무왕과 마찬가지로 전륜성왕에 비견되었던 진흥왕과 관련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김수태, 1999, 『全州 遷都期 甄萱政權의 變化』 『한국고대사연구』 15, 283쪽), 고려시대 이제(이비) 또는 그의 선조가 견훤이 진골 출신임을 강조하기 위해 임의로 계보를 조작했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전덕재, 2022, 『삼국유사』 기이편 후백제 견훤조의 원전과 편찬, 『사학연구』 146, 54쪽) 등이 있다. 견훤의 정치적 성장 과정에서 신라 왕실과 연결을 통한 신라적 정통성이 부회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제가기(이비가기)>가 고려 현종때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전덕재, 2022, 앞의 논문, 58쪽), 이제가 후백제 멸망 후 변성한 견훤의 후손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허인욱, 2021, 「견훤의 출자 관련 논의 재검토」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97쪽) 이 전승은 아무래도 견훤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44) 이재범, 2016, 「고려초 고승비(高僧碑)에 관한 일고찰」 『인문과학』 62,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305쪽 표 참조. 단 진경대사 審希(856~923)의 비 <鳳林寺眞鏡大師碑>는 924년에 건립되었는데 신라에서 입비한 것이며, 비문은 景明王이 썼다.

고려 초에 세워진 비들은 왕건의 신실한 불심과 통일의 업적을 찬양하는 데 힘을 쏟고 있기도 하다. 이 시기 세워진 비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왕건에게 호의적이었던 승려였고,⁴⁵⁾ 특히 태조대(937년 이후)에는 2~3사례를 제외하고 선승의 입적 후 2년 이내에 입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시기 입비는 왕건이 후삼국 통일 이후 논공행상의 일환으로 진행한 국가 주도 사업이었다고 이해되기도 한다.⁴⁶⁾ 더욱이 비문은 그 표현이 함축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와 관련된 종합적인 역사상을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결국 선사비를 통해서 는 당대 역사적 상황에 대한 단편적 사실이나 한정된 상호 인식의 편린 밖에는 얻어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후백제 관련 사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선사비의 작은 기록이라도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탐구는 계속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미 지적되었듯이, 이 시기 선사비에 나타나는 후백제 관련 내용은 대개 견훤이 시대를 혼란케 한 장본인으로서 신라 말 정치가 어지러진 틈을 타 반역을 꾀한 인물이라는 것이었다.⁴⁷⁾ 이 맥락은 다시 선사의 가르침을 받고 이들을 후원했던 왕건이 이 반역자들을 토벌하고 삼한의 평안을 회복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마저도 비문에서 견훤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 궁예와 함께 몽둥그려 賊, 凶, 惡 등으로 표현되는 사례가 많다. 게다가 비문은 선사 입적 이후에 쓰여진 것이므로, 특정 시점의 사건이나 대화를 전한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곧바로 당대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선사비 중에서 미약하나마 좀 더 분명하게 견훤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다음의 두 비문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廣照寺眞澈大師碑>의 내용이다.

E. 天祐 8년(911)에 이르러 사신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羅州의 會津에 도착하였다. (중략) 이때 金海府知軍府事 蘇律熙가 勝光山을 택해 당우를 짓고 정성스러운 뜻을 기울여 煙霞에 머물 것을 청하였다. (중략) 이 眞境에 주석하니, 4번 周星이 바뀌었다. 대사가 비록 마음은 禪林을 사랑하고 세상을 등짐에 답답함이 없었으나, 그 땅이 적굴과 인접하여 신변이 안전할 수 없었으니 어지러운 땅에는 거할 수 없는 까닭이다. 12년이 되어 길을 沙火로 나와 높은 산에 이르렀으니 영동군 남쪽 靈覺山 북쪽에서 주석할 곳을 찾았다. (중략) 이듬해 2월 중 (今上이) 특별히 前 侍中 權說과 太相 朴守文을 보내 卹內院으로 맞이하였다. (중략) 어느 날 한가한 저녁 선사를 방문해 묻기를 “제자가 대사의 자비로운 모습을 대하고 마음 속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國讐가 이미 어지럽게 하고 隣敵이 번갈아 침입하니 楚漢이 서로 대치한 것과 비슷해 자웅이 결판나지 않습니다. 3紀에 이르기까지 항상 二凶이 있었으니 비록 간절히 好生하고자 하나 점점 깊이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과인이 일찍이 부처의 가르침을 입어 그욕이 자비의 마음을 발하고자 하나, 혹 寇賊을 관망하는 허물을 남겨 몸을 위태롭게 하는 화에 미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대사께서 만리를 사양하지 않고 와서 三韓을 교화하시고 崑崗이 불타는 것을 구제하셨으니 좋은 말씀 해주시길 기대합니다”라고 하였다.⁴⁸⁾

45) 김두진, 1981, 「王建의 僧侶結合과 그 意圖」 『한국학논총』 4; 장일규, 2017, 「신라 말 고려 초 禪僧의 시기별·지역별 활동 추이와 山門 형성 과정」 『신라사학보』 39.

46) 임지원, 2015, 「高麗 太祖代 高僧碑 건립의 정치적 의미」 『대구사학』 119; 이재범, 2016, 앞의 논문.

47) 홍창우, 2023, 앞의 논문, 75쪽.

48) <광조사진철대사비>, “迺於天祐八年 乘查巨寢 達於羅州之會津 (中略) 爰有金海府知軍府事 蘇公律熙

을 살해한' 견훤을 지칭한다고 하고, 이는 고려와 신라가 같은 국으로 수렴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고도 하였다.⁵⁵⁾ 그러나 이 문장은 국수·인적과 이에 대항하는 고려가 각각 초와 한처럼 자웅을 겨루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30여 년 사이에 이흥 때문에 살생을 멈추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이해되므로, 국수·인적은 견훤과 그에 붙어 왕건과 대적하던 주변 세력, 이흥은 궁예와 견훤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국수를 꼭 경애왕 살해와 관련시켜 해석할 필요 역시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답의 시기가 불분명한데다 비문의 특정 표현이 꼭 당대의 것 그대로라고는 결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비가 세워지고 3년 후에 있었던 개태사 낙성 법회 당시 왕건이 친히 쓴 <神聖王親製開泰寺華嚴法會疏>에서는 후백제를 '血讎'라 칭하였는데,⁵⁶⁾ 이를 보면讐는 흥, 적과 같이 왕건에 대적했던 세력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으로 여겨진다.

관련해서 역시 최언위가 찬하고 939년 입비한 <毘盧庵眞空大師碑>에도 청태 4년(937) 왕건과 진공대사가 만남에 '이때 二敵이 평정되고 三韓이 태평성세가 되었으니, 먼저 除凶의 神策을 경하하고 다시 賀聖의 威儀를 펼쳤다'⁵⁷⁾는 내용이 보인다. 이 이적에 대해서도 후백제와 여진을 가리킨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적의 평정과 삼한의 태평, 제흥의 신책과 하성의 위의를 연이어 언급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역시 궁예와 견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이미 왕건이 즉위 조서에서 궁예의 잔혹함, 포악함, 간사함, 참람된 稱尊, 살육, 해독 등을 다 언급한 마당에,⁵⁸⁾ 태봉과 연속선상에 있는 고려라 해서 이를 흥이나 적으로 지칭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大安寺廣慈大師碑>의 서술이다.

F. 孝宗大王(孝恭王, 재위 897~911)은 대사가 山谷에서 드날리는 道風에 마음을 쫓아 綸翰을 보내 원컨대 지혜의 눈을 열어 나라의 복록을 도와주기를 원하였다. 이 때는 신라의 운이 기울어져 병화가 자주 일어났으니, 弓裔는 기강을 어지럽히고 甄萱은 이름을 도적질하였다. 천명이 돌아가는 바 있어 나라의 조정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했으나, 재앙에 막히고 狼煙이 높이 올라 왕래하는 것이 사문에게는 고통스러웠으므로 끝내 왕을 도울 길을 찾지 못하였다.⁵⁹⁾

이 비는 파손되어 상당히 손상을 입은 상태이나, 『泰安寺誌』에 비문이 필사되어 있어 참고가 가능하며 대체로 『韓國金石全文』에 실린 원문이 번역에 활용되고 있다. 광자대사 允多(864~945)는 함통 5년(864, 신라 경문왕 4년) 출생하여 8세 때 출가, 가야갑의 절에서 구족계를 받은 뒤 전국을 다니다가 동리산으로 들어갔다. 비문에 따르면 먼저 신라 효공왕이 대사에게 도와줄 것을 청하였으나 전란 때문에 가지 않았으며, 이후 왕건이 즉위한 뒤 사람을 보내자 이에 응하여 개경 興王寺에 머물고 黃州院 王旭의 귀의도 받았다고 한다. 전사는 이후 다

55) 윤경진, 2018, 앞의 논문, 251~252쪽. 왕건과 이엄의 이 대화를 928년 경에 있었던 일로 보는 의견해 역시 국수가 견훤의 경애왕 살해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보는 것 같다.

56) 『東人之文四六』 卷8 佛疏 <神聖王親製開泰寺華嚴法會疏>, “諱也 志在於擗姦除惡 情深於濟弱扶傾 受忘數紀之血讎 却念一朝之肉祖 凡經過州府 及入御僞都 不動纖毫 不傷寸草 非假楮牋錄告 自然蓮眼照知”.

57) <비로암진공대사비>, “此時 二敵氷鎖 三韓霧廓 先慶除兇之策 更申賀聖之儀”. 진공대사는 937년 입적하였다.

58)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원년 6월 丁巳.

59) <대안사광자대사비>, “孝宗大王 趨向谷風 遐飛綸翰 願開慧眼 以祐國祚 于時 羅運傾否 兵火頻起 弓裔亂紀 甄萱盜名 天命有歸 國朝新造 (缺落?) 背匣梗狼煙 往來辛苦於沙門 裨終無於王”.

시 동리산으로 돌아갔고, 開運 2년(945, 혜종 2) 입적하였다.⁶⁰⁾ 비문은 太相 前守禮賓令 元鳳 令 兼知制誥 上柱國 賜紫金魚袋 孫紹가 왕명을 받아 찬술하였는데,⁶¹⁾ 입비는 입적 5년 뒤인 950년(광종 1)에 이루어졌다.

비문에서는 효공왕대의 상황을 전하면서, 신라의 운이 기울어져 전란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 ‘궁예가 기강을 어지럽히고(亂紀) 견훤이 이름을 도적질했다(盜名)’고 하였다. 『한서』 천문지에 ‘태백성이 낮에 하늘을 지나면 천하에 혁명이 일어나서 백성이 왕을 바꾸니, 이에 기강이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흩어져 유랑한다’⁶²⁾고 하였으니, 난기는 궁예가 신라 왕실 출신 이면서도 이에 반하고 왕을 칭한 것을 가리킨다. 도명은 ‘欺世盜名’ 즉 세상 사람을 속여 헛된 명성을 얻는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나, 여기서는 반란을 도모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를 견훤이 신라 지방관을 자임하는 등 신라를 빙자한 행위를 한 것에 빗대는 경우도 있으나, 역시 견훤이 칭왕했던 일을 비유한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선사비 중 궁예와 견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들어 비난하는 거의 유일한 기록이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신라의 叛賊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후의 고려 또한 이들을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비에서는 이 내용에 이어 바로 태조가 즉위 후 대사를 불러 개경에서 맞아들였던 사실을 기록했는데, 그 문답 과정에서 왕건은 ‘짐은 하늘의 도움을 받아 어지러움을 구하고 포악한 이를 주살하였다’⁶³⁾라고 하였다. 이는 궁예를 몰아내고 즉위한 일을 말하는 것으로, 왕건의 입장에서는 견훤이든 궁예든 다 같은 亂盜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급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바 태조와 혜종대 세워진 선사비의 찬술은 전적으로 최언위가 도맡았는데, 이 때 손소가 이 비의 찬술을 담당하게 된 연유는 알기 어렵다.⁶⁴⁾ 어쨌든 <대안사광자대사비>의 궁예·견훤 확칭은 이전 최언위의 비문에서 언급된 이흥·이적 등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후삼국 통일 이후 왕건 등 고려 지배층의 일반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견훤은 936년 金山寺에 유폐되었다가 고려에 망명했고, 왕건은 그가 10년 연장자라 하여 尙父로 삼고 지위를 백관 위에 두어 대우하였다. 그러나 그는 936년 신검이 항복하고 얼마 안 되어 죽었고,⁶⁵⁾ 신검 등도 곧 제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⁶⁶⁾ 사료에는 견훤·신검 모두 왕건에게

60) 운다는 당 智藏 의 법을 이어받은 동리산문 개산조 혜철로부터 如禪師에게 전해진 법맥을 이어받았으며, 선승이면서도 임종 때까지 계율을 스승을 삼으라고 당부할 만큼 율법을 중시하였고, 왕의 빈례를 받으면서도 선승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고 평가받는다(김두진, 1988, 『羅末麗初 桐裏山門의 成立과 그 思想』 『동방학지』 57).

61) 손소는 이외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외국 사신 접대를 담당하는 예빈성과 문한기구로 여겨지는 원봉성의 장으로서 지제고를 겸하고 있다. 성씨가 손씨인 것을 감안할 때 6두품 출신 유학자로 추정되며, 광종초 고위직에 있었으므로 광종대 문한관료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로 여겨진다(전기웅, 1985, 『高麗 光宗代의 文臣官僚層과 「後生讒賊」』 『역사와 세계』 9, 부산대 사학회, 143~144쪽).

62) 『漢書』 권26 天文志, “太白經天 天下革 民更王 是爲亂紀 人民流亡”.

63) <대안사광자대사비>, “問曰 朕受天之佑 救亂誅暴 何以則生民保乂”.

64) <대안사광자대사비>보다 4년 뒤 세워지는 <太子寺朗空大師碑>의 비문은 다시 최언위가 썼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궁예나 견훤을 언급한 표현이 보이지 않지만, 文德 2년(889)년 경부터 乾寧(894~897), 光化(893~900) 연간에 대해 ‘시대가 厄運에 당하여 세상이 몽매한 때였으므로 災星이 三韓에 길이 비추고 毒露가 四郡에 항상 퍼져 있었다’고 하여 그 혼란함을 특기하였다. 낭공대사가 ‘魔軍’을 만났다는 표현도 보인다. <대자사낭공대사비>, “頃歲 時當厄運 世屬此蒙 災星長照於三韓 毒露常鋪於四郡 況於巖谷 無計潛藏 乾寧初 至止王城 薰蒼葡於焚香之寺 光化末 旋歸野郡 植旃檀於薙草之墟 所恨正值魔軍 將宣佛道”.

65)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견훤, “萱在金山三朔 六月 與季男能乂女子衰福嬖妻姑比等 逃奔錦城 遣人請見於太祖 太祖喜 遣將軍黔弼萬歲等 由水路勞來之 及至 待以厚禮 以萱十年之長尊 爲尙父 授館以南宮 位在百官之上 賜楊州爲食邑 兼賜金帛蕃縹 奴婢各四十口 內廐馬十匹”, “神劍與二弟 及將軍富達小達能與等四十餘人生降 太祖受降 除能與 餘皆慰勞之 許令與妻孥上京 (중략) 甄萱憂懣發疽 數

너그러운 대우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실제 인식은 凶賊, 僞主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와 달리 견훤에 대해 긍정적인 어조로 서술한 선사비도 확인된다. <玉龍寺洞眞大師碑>가 그것인데, 잘 알려져 있듯이 여기에는 견훤이 동진대사에게 귀의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G. 마침 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만나 天祐 18년(921) 여름 全州 臨陂郡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도가 헛되이 행해지고, 때가 불리한 시절의 초기였다. 그때 州尊 都統 太傅 甄萱은 군대를 통솔하여 만민의 堰城이 되었다. 태부는 본래 스스로 善根을 가졌으니, 장군의 종자로 태어나 바야흐로 웅대한 뜻을 펴기 시작하였다. 비록 뛰어난 지략을 우선으로 여겼지만 대사의 인자한 얼굴을 뵈고는 받들어 의지하려는 뜻이 배나 더해졌다. 이에 탄식하여 이르길, ‘우리 대사를 만나는 것은 비록 늦었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어찌 늦추겠습니까’ 하고 자리를 피하기를 진실되게 하고 말씀을 익히기를 독실하게 하였다. 드디어 주의 남쪽 남북선원에 주석하기를 청하였는데, 대사가 이르길 ‘새도 능히 나무를 택하거늘 내가 어찌 포과처럼 엄매이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백계산 옥룡사라는 곳이 故師께서 도를 즐기시던 淸齋였으므로 참선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중략) 드디어 태부에게 말하여 이주할 것을 허락받았으니, 실로 뗏목을 歸塘에 버리고 구슬을 舊浦에 되돌린 것이라 하겠다.⁶⁷⁾

<옥룡사동진대사비>는 현전하지 않으나, 그 탁본이 전해지고 있다. 동진대사 慶甫(869~947)는 함통 10년(869) 태어나 부인사로 출가, 백계산 道乘을 스승으로 모시고 18세에 華嚴寺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성주산 無染(800~888), 굴산 梵日(810~889)을 배알하고 경북 2년(892)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천우 18년(921) 전주 임피로 귀국하였다. 견훤의 귀의를 받고 남북선원에 주석하다가 옥룡사로 옮겼고, 청태 3년(936) 개경으로 가 왕건을 만났다. 대사는 947년(정종 2) 입적하였으며, 비문은 通直郎 正衛 翰林學士 賜丹金魚袋 金廷彦이 써 광종 9년(958) 입비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920년대 초는 견훤이 여러 가지 두드러지는 불교 관련 행보를 보였던 때이다. <葛陽寺惠居國師碑>에 기록된 대로 922년 彌勒寺 개탑이나 禪雲寺 선불장이 이루어진 것은⁶⁸⁾ 견훤의 미륵신앙 강조를 통한 왕권 강화책으로 설명되기도 하였다.⁶⁹⁾ 경보와 연결되는 것도 이 시기인데, 견훤이 선종 및 화엄종과 풍수지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보와 연

日卒於黃山佛舍”.

66) 견훤전에는 ‘신검이 분수에 넘치게 왕을 차지했던 것은 남의 협박에 의한 것으로 그 본심이 아니었고 또 귀순해 왔으므로 특별히 용서하였다’고 하였으나, 세주에는 ‘혹은 삼형제 모두 형벌을 받아 죽음을 당했다고도 한다’고 기록하였다(“以神劔僭位 爲人所脅 非其本心 又且歸命乞罪 特原其死[一云 三兄弟皆伏誅]”). 그러나 이후 신검의 활동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세주의 언급대로 신검은 곧 제거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신호철, 2003, 『高麗 太祖의 後百濟 遺民政策과 ‘訓要 제8조’』 『이화사학연구』 30, 145~146쪽). 또는 전주를 포함한 후백제 지역의 안정적 통제가 가능해졌을 때 이들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한다(허인옥, 2024, 『고려 초기 전주 연구』 『사총』 111, 14쪽).

67) <옥룡사동진대사비>, “適值歸舟 因而東還 天祐十八年夏 達全州臨陂郡 而屬道虛行之際 時不利之初 粵有州尊都統甄太傅萱 統戎于萬民堰也 太傅本自善根 生於將種 方申壯志 雖先擒縱之謀 暨謁慈顏倍勵瞻依之志 乃歎曰 遇吾師而雖晚 爲弟子以何遲 避席拳拳 書紳慥慥 遂請住州之離地南福禪院 大師曰 烏能擇木 吾豈匏瓜 迺以白鷄山玉龍寺者 是故師爲樂道之淸齋 乃安禪之勝踐 (中略) 遂言於太傅 許之移而住焉 實謂筏既捨於歸塘 珠復還於舊浦”.

68) <갈양사혜거국사비>, “龍德二年夏 特被彌勒寺開塔之恩 仍赴禪雲選佛之場 登壇說法”.

69) 김수태, 1999, 앞의 논문, 282~284쪽.

결되었을 가능성.⁷⁰⁾ 912년 덕진포 전투 이후 원활하지 않았던 무주 지역 선문과 관계를 복구하기 위한 접근,⁷¹⁾ 迦智山門, 동리산문, 實相山門, 聖住山門, 關嶽山門 등을 연결해 여러 산문 세력과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가지고자 했던 의도⁷²⁾ 등이 언급된 바 있다.⁷³⁾

위 비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견훤에 대한 평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동리산문에 속했다고도 여겨지는 윤다의 비에서는 견훤을 도명했다고 직접적으로 거론하였다. 이는 고려 초 선사비에 드러나는 일반적으로 인식이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경보의 비에서는 견훤의 관함을 주존·도통·태부로 꽤 정확하게 병기한다.⁷⁴⁾ 만민의 제방, 선군을 가진 장군의 종자, 웅대한 뜻이나 뛰어난 지략 등의 단어로 수식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해서 최근에는 광종대 이와 같은 비문이 쓰여진 것은 이 시기 광종이 기존 귀족 세력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구 백제계 인물들에게 호의적 정책을 펼친 상황⁷⁵⁾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⁷⁶⁾ 그러나 광종대 후백제계 인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모두 광종 9년(958) 과거제 실시 이후에 등용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입비 이후의 일이므로 시기적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또한 비문의 해석에 따라 찬술의 명을 내린 것을 정종으로 볼 수도 있고 광종으로 볼 수도 있는데다, 광종 16년(965)에 세워진 兢讓(878~956)의 <鳳巖寺靜眞大師碑>는 여전히 兪徒, 逆黨, 夷兇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백제 멸망과 잔적 소탕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였으므로,⁷⁷⁾ 위 의견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주저되는 바가 있다.

일단 아무래도 위 내용이 전쟁으로 고투하고 있던 왕건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술된 다른 비들과 달리 불심을 세우고 고승에게 의지하고자 했던 견훤의 상황을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경보가 견훤의 귀의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기록된 유일한 선승이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보는 918년 고려 건국 후에도 계속해서 ‘남산’에 머물다가 936년 이후 왕건의 부름을 받아 개경에 갔고 이후 정종 또한 편지를 보내 왕경에 초빙했다 하므로 고려 왕실과 일정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견훤만큼 밀착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비문의 뒷부분에는 태조가 天討를 행했다는 서술이 보이는데,⁷⁸⁾ 천토에는 악인을 정벌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왕건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그 표현이 여타 선사비와 비슷한 경향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비문을 세울 때 泉通禪師 등 전법제자들이 왕에게 표를 올려 비문을 짓도록 청하

70) 김수태, 1999, 앞의 논문, 287~288쪽. 『均如傳』에서 견훤의 福田으로 나오는 南岳 觀惠가 화엄사를 기반으로 했던 것 같고, 견훤이 익산을 강조한 것도 동리산문의 특징인 도선 풍수지리설과 관련 있을 것이라 하였다. 견훤의 사상은 마륜신앙, 선종, 화엄종, 풍수지리설 등 다양한 형태의 불교를 포함한 복합적인 것이었으며, 이는 전제군주로서 모습을 갖추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과 관계된다고 한다.

71) 장일규, 2014, 「신라 하대 서남해 지역 禪僧과 후백제」 『한국고대사연구』 74, 133쪽.

72) 조범환, 2001, 앞의 논문, 362~365쪽.

73) 단 근래 연구 중에는 경보를 동리산문의 법을 이은 승려가 아닌 독자적 선풍을 가진 인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이덕진, 2001, 「신라말 동리산문에 대한 연구」 『한국선학』 2; 김방룡, 2022, 「나말여초 동리산문의 지형과 사상」 『보조사상』 64).

74) 주존은 전주자사, 도통은 해동사면도통을 가리키는 듯하고 태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오월로부터 책봉 받은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박수정, 2023, 앞의 논문, 61~62쪽).

75) 이광섭, 2014, 「高麗 光宗代 灌燭寺의 創建과 地方支配」 『사림』 50, 수선사학회, 165~173쪽.

76) 김방룡, 2022, 앞의 논문, 181쪽.

77) <鳳巖寺靜眞大師碑>, “遂使蟻聚兪徒 她奔逆黨 遽改愚迷之性 勿矜强暴之心 漸罷爭田 各期安堵 時清泰乙未歲也 我太祖以運合夷兇 時膺定亂 命之良將 授以全師 指百濟之狡窟 巢展六韜之奇謀 異略桴鼓而山河雷振 張旗而草樹霞舒 我則鷹揚 彼皆魚爛 黜殷幸於牧野 敗楚羽於烏江 竭海剝鯨 傾林斬兕 四紀而塵氛有暗 一朝而掃蕩無遺”.

78) <옥룡사동진대사비>, “頃及乎清泰三年丙申秋 我太祖神聖大王 躬擐周衣 手提漢劍 襲行天討 丕冒海隅 協和三韓 奄有四郡 加復輯寧君子國 瞻仰梵王家”.

였다고 하는데, ‘尊祖其所由來’라는 표현을 참조하면 그의 행장이 꽤 구체적으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비문을 찬술한 김정언은 광종 26년(975) 세워진 <高達寺元宗大師碑>의 비문도 썼는데, 이때 관직이 ‘光祿大夫 太丞 翰林學士 內奉令 前禮部使 參知政事 監修國史’였다. 김정언은 『고려사』 등에 그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광종대 신진과료의 대표로 광종대 개혁에도 간여했던 것으로 보이며,⁷⁹⁾ 역시 광종대 <구삼국사>의 편찬을 담당했던 인물로 추정되기도 한다.⁸⁰⁾ 김정언을 <구삼국사>와 직결시켜도 좋을지는 잘 모르겠고 게다가 경보의 비를 찬술할 때의 관직은 아직 감수국사가 아니었기도 하지만, 견훤과 경보의 구체적인 사적을 접했던 김정언이 기록을 존중하는 태도로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둔다.

4.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견훤이 892년 자서하면서 ‘신라서면도통 지휘병마제치’를 관칭한 것은 대외적으로 신라를 앞세워 스스로 반역자가 아님을 강조하고, 그가 지역의 혼란을 잠재우고 민심을 수습하는 역할을 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이때 이미 신라와 구별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지방관의 관함을 자의로 사용하면서 신라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900년 정식으로 후백제왕을 칭하면서 마한이 신라 혁거세의 개국보다 앞섬을 드러내고 마한계승 의식 및 삼한일통의식을 천명하는 한편 백제의 멸망과 의자왕의 율분을 들어 신라에 대한 적대감을 선명히 하였으므로, 견훤은 이때 ‘신라’를 관칭하는 관함을 버리고 ‘해동’의 명칭을 취하며 백제와 신라의 대등한 관계를 설정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927년 견훤이 왕건에게 보낸 편지는 왕건이 견훤에게 보낸 편지에 비해 신라에 대한 존중 의식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미 신라왕을 죽음에 이르게 한 상황에서 운운한 존왕의 의를 들어 견훤이 신라에 대해 군신관계의 태도를 취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고려 초 건립된 후삼국 시기 선사비에서는 대부분 견훤을 궁예와 함께 적·흉·악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고려 통일 직후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 같다. 그 중 몇몇 사례는 해석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큰 틀에서 대체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선사비의 해석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옥룡사동진대사비>의 경우 다른 선사비와 달리 견훤에 대해 긍정적인 서술을 한 부분이 있어 주목되는데, 이는 경보가 견훤과 가장 밀착한 승려였고 이 서술이 견훤의 경보에 대한 돈독한 마음과 불심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며 비문을 쓸 때 그 행장이 충분히 남아 있었고 찬자 김정언이 역사적 기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점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상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나, 그 내용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기존 연구를 미처 반영

79) 전기웅, 1985, 앞의 논문, 149~150쪽.

80) 정구복, 1999, 『한국중세사학사』(I), 집문당, 222~223쪽. 여기서는 <보원사법인국사비>에 “임금께서 이에 정언에게 명하기를 ‘너는 일찍이 국사가 되어 몸소 기록을 살펴보고 천자의 글을 맡아 온 정성을 쏟아 충성을 바쳤다. 선왕이 학사를 가하여 대우하였음을 생각하여 네가 국사의 명일 지어 보답하라’라고 하였다”라는 구절이 보이는 것을 들고, 이것이 김정언이 감수국사와 한림원학사로 학식과 문장이 비명을 짓기에 책임자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지만, ‘乃嘗爲國史’가 ‘혹 네가 일찍이 국사를 만들어’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김정언과 <구삼국사>를 연결시켰다.

하지 못하거나 함께 다루어야 할 주제를 충분히 언급하지 못한 부분도 존재한다. 원고를 다듬는 과정에서 논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것은 학계에서 후백제사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과는 별개로 중·고등학교나 대학의 교양 역사 수업에서 여전히 이 주제가 그리 흥미롭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중·고등학교의 한국사 과목은 제한된 시수 안에 많은 내용을 다뤄야 하는 현실적 한계와 내신·수능 준비의 제약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가 후백제 건국과 내분, 멸망 정도를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며, 결국 후삼국을 통일한 것은 고려이므로 후삼국시대의 의의를 곧장 고려 통일의 의의로 수렴해 서술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대학 교양 한국사 관련 수업의 커리큘럼은 아직까지 교수자 관심사에 의지하는 바 크지만, 인물사든 주제사든 전 시대를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후백제 건국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후백제 건국은 『삼국사기』·『삼국유사』의 기록 비교, 건국의 공과 분석, 일통삼한 의식의 의의 등을 포함해 교양 수업에서 한 차시 정도 흥미롭게 다룰 만한 좋은 주제라고 생각된다. 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발표자부터 먼저 반성하는 부분으로, 고대사 연구자들이 그동안 축적한 성과를 미래 세대 교육에 활용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東人之文四六』, 『均如傳』

신호철, 1993, 『後百濟 甄萱政權研究』, 일조각.

이지관, 1994,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高麗篇 1)』, 가산문고.

정구복, 1999, 『한국중세사학사』(I), 집문당.

하현강, 1988, 『韓國中世史研究』, 일조각.

한국역사연구회 편,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下), 해안.

강봉룡, 2001, 「甄萱의 勢力基盤 擴大와 全州 定都」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김갑동, 2001. 「後百濟 甄萱의 戰略과 領域의 변천」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김두진, 1981, 「王建의 僧侶結合과 그 意圖」 『한국학논총』 4.

김두진, 1988, 「羅末麗初 桐裏山門의 成立과 그 思想」 『동방학지』 57).

김방룡, 2022, 「나말여초 동리산문의 지형과 사상」 『보조사상』 64.

김수태, 1999, 「全州 遷都期 甄萱政權의 變化」 『한국고대사연구』 15.

김수태, 2015, 「후백제의 대신라·고려 관계」 『한국중세사연구』 41.

김영미, 1996, 「나말여초 연구와 금석문」 『譯註 羅末麗初金石文』(상), 한국역사연구회 편.

金包光, 1928, 「片雲塔과 後百濟의 年號」 『佛敎』 49, 佛敎社.

김한규, 1994, 「우리나라의 이름 ‘東國’과 ‘海東’ 및 ‘三韓’의 개념」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 史學論叢』, 일조각.

문안식, 2003,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전남지역 호족세력의 추이」 『경주사학』 22.

민현구, 1989, 「高麗中期 三國復興運動의 역사적 의미」 『韓國史市民講座』 5, 일조각.

박수정, 2023, 「甄萱 自署의 변화 과정과 그 의미」 『남도문화연구』 50, 순천대 남도문화연구 소.

배재훈, 2010, 「견훤의 군사적 기반」 『신라문화』 36.

변동명, 2023, 「甄萱의 擧兵과 光州 定都」, 『호남학』 73.

신호철, 2003, 「高麗 太祖의 後百濟 遺民政策과 ‘訓要 제8조」 『이화사학연구』 30.

신호철, 2014, 「후백제의 역사적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74.

신호철, 2015, 「후백제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국립전주박물관 편), 공감.

윤경진, 2014, 「고려의 건국과 고구려 계승 의식-‘弓裔의 高麗’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윤경진, 2018, 「고려 건국기의 三韓一統意識과 ‘海東天下’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5.

이강래, 2004, 「후백제의 당대 인식-토대와 지향의 맥락에서」 『한국고대사연구』 35.

이광섭, 2014, 「高麗 光宗代 灌燭寺의 創建과 地方支配」 『사림』 50, 수선사학회.

이덕진, 2001, 「신라말 동리산문에 대한 연구」 『한국선학』 2.

이도학, 2001, 「진훤의 출신지와 그 초기 세력기반」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이도학, 2021, 「후백제 진훤의 受禪 전략」 『민족문화논총』 78,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이도학, 2021, 「후백제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이재범, 2016, 「고려초 고승비(高僧碑)에 관한 일고찰」 『인문과학』 62, 성균관대 인문학연구

원.

- 임지원, 2015, 「高麗 太祖代 高僧碑 건립의 정치적 의미」 『대구사학』 119.
- 장일규, 2014, 「신라 하대 서남해 지역 禪僧과 후백제」 『한국고대사연구』 74.
- 장일규, 2017, 「신라 말 고려 초 禪僧의 시기별·지역별 활동 추이와 山門 형성 과정」 『신라사학보』 39.
- 전기웅, 1985, 「高麗 光宗代의 文臣官僚層과 「後生讒賊」 『역사와 세계』 9, 부산대 사학회.
- 전덕재, 2022, 「『삼국유사』 기이편 후백제 견훤조의 원전과 편찬」 『사학연구』 146.
- 정선용, 2014, 「고려 태조의 신라왕경 방문과 존왕론」 『한국사상사학』 47.
- 조범환, 2001, 「後百濟 甄萱政權과 善宗」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 조법종, 1999, 「후백제 甄萱의 역사계승인식-高句麗 및 百濟의 馬韓계승인식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8·59합(乃雲崔根泳博士停年紀念論文集).
- 조법종, 2006, 「후백제와 태봉 관련 연구동향과 전망」 『新羅文化』 27.
- 조법종, 2023, 「후백제 견훤왕의 왕권 신성화 방안 검토-정통성 표방, 연호 건원, 대왕 호칭, 시조신화 신성화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51.
- 진정환, 2019, 「後百濟王 甄萱의 900~901年 言行的 意味」 『전북사학』 57.
- 진정환, 2023, 「후백제의 정체성 변화에 따른 외교 전략」 『2023년 5개 역사학회 연합학술대회 지역과 국제관계 발표집』, 호남사학회·대구사학회·부산경남사학회·전북사학회·호서사학회·전남대 인문학연구원·한국학호남진흥원.
- 추명엽, 2005, 「高麗時期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한국사연구』 129.
- 추명엽, 2023, 「고려 태조 중·후반기 삼한통일과 해동천하의 형성」 『한국중세사연구』 74.
- 허인욱, 2021, 「견훤의 출자 관련 논의 재검토」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 허인욱, 2021, 「후백제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전북학연구』 4, 전북학연구센터.
- 허인욱, 2024, 「고려 초기 전주 연구」 『사총』 111.
- 홍창우, 2022, 「『삼국사기』의 후고구려 인식-왕조의 ‘계승’과 ‘극복’이라는 양면성의 맥락에 유의하여」 『한국중세사연구』 68.
- 홍창우, 2023, 「궁예의 「(後)高麗」 국호 제정과 ‘一統三韓’의 지향」 『신라사학보』 59.
- 홍창우, 2023, 「후백제 관련 자료의 현황과 쟁점」 『지방사와 지방문화』 26권 1호, 역사문화학회.

「후백제사의 몇 가지 문제 - 견훤의 신라 인식 및 금석문 자료에 대한 단견」의 토론문

홍창우(전남대 사학과)

박수정 선생님(이하 발표자)의 「후백제사의 몇 가지 문제 - 견훤의 신라 인식 및 금석문 자료에 대한 단견」은, 그동안 견훤과 후백제의 자취를 복원하려는 시도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재검토’를 겨냥하고 있는 글입니다. 부제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먼저 견훤이 타도의 대상으로 지목한 신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기존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논의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 초에 세워진 비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견훤·궁예를 향한 부정적 표현에 주목하여 기존의 견해들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비문의 구절 가운데 ‘재해석’의 여지가 충분한 사례들을 매개로 견훤에 대한 일부 우호적 기록이 고려시대 비문 속에 새겨질 수 있었던 맥락을 살펴보셨습니다.

신라의 대안을 자처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새로운 나라를 이룩했음에도, 892년 무진주(광주)를 점령한 뒤 ‘신라서면도통’ 운운하는 자서명을 내세운 점, 927년 12월 왕건과 주고받은 서신에서 신라를 향한 ‘尊周’ 명분을 드러내는 발언을 한 점 등은, 신라를 부정했음에도 그 신라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견훤이 크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견훤은 신라와 당에 의해 ‘백제’가 없어진 역사를 환기하고 ‘의자왕’의 오랜 분원을 씻겠다고 다짐하며 ‘백제’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그가 극복의 대상으로 천명한 신라의 권위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기존의 견해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신 것을 크게 지지합니다.

이와 함께 토론자 역시 평소에, 「강진무위사선각대사비」의 재검토를 통해 900년대 초반 궁예정권의 한반도 남부지방 경략의 주체를 왕건이 아닌 ‘궁예’로 보는 시각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어떻게 ‘고려 정종 원년(946)’에 세워진 형미의 비문에 담겨있게 되었을까 늘 의문이었습니다.¹⁾ 금석문 정보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점으로 인하여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복원함에 유력한 자료로 취급되지만, 자료를 남긴 자의 관점·목적 등이 제한적이라면 오히려 강도 높은 사료 비판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전하는 금석문의 후백제·견훤 관련 정보는 ‘사실’에 대한 것보다는 대체로 ‘평가’나 ‘인식’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후백제나 견훤을 언급한 금석문 정보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제안하신 데에도 크게 동의합니다.

견훤·후백제와 늘 짝하여 언급되는, 그러면서도 이들에 비해 현재의 호명 빈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궁예 및 그의 나라와 관련하여 이런저런 거친 생각들을 몇 차례 제출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후백제나 견훤과 관련하여 이렇다 할 실증 연구가 전무한 토론자로서는 발표자의 글에 대해 이렇다 할 논평을 할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공부의 기회로 삼아 오직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단편적인 의문들을 두서없이 나열하는 것으로, 발표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토론자로서의 숙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1)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2024년 3월 8일(금) ‘한국목간학회 제44회 정기발표회’에서 「선각대사비문에 보이는 왕건과 궁예 - 판독 교정에 바탕한 새 사실 유추」(하일식)라는 제목의 글이 발표되었다. 선각대사비문에 등장하는, 곧 남부 경략을 주도했다는 ‘大王’은 궁예를 지칭한 것일 수 없으며, 비문을 세운 주체(최언위)와 그 토대(고려)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1. 제목 및 목차와 관련하여

토론자가 파악하기로, 이 글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통설에 대한 ‘비판적 점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후 발표문을 정돈하는 과정에서 고민하시겠지만, 그러므로 이러한 발표자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표제를 선택하심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체성을 띠는 제목과 목차였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인 것입니다.

2. 견훤의 신라 존왕 의식과 관련하여

이 발표문을 비롯하여 견훤의 신라 존왕 의식이 기존의 후백제·견훤 관련 연구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것은, 아마도 궁예가 신라를 매우 극단적으로 배척했던 점과 쉽게 비교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궁예의 반신라적 자세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반론이 있긴 합니다만, 강한 대결의식과 비타협적 자세와 같은 ‘강경 일변도’라는 시각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견훤은 분명 신라를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강하게 ‘배척’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혹시 신라를 향한 견훤의 ‘양면적·이면적 태도’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결과’ 등으로 볼 여지는 없을까요?

개인적으로는 927년 12월 견훤이 왕건에게 보낸 편지에서 간취할 수 있는 ‘尊周 의리론’은, 이보다 2달 전에 있었던 경주 급습, 국왕 살해, 왕경 유린 등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견훤 자신의 ‘변명의 기초’로 읽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발표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견훤의 ‘존왕 발언’은 후백제 입장에서 일통삼한의 대상에 불과한 신라를 병합하기 위한 범상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발표자의 설명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견훤이 신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고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후삼국시대의 화두가 ‘천년왕조 신라’를 어떠한 방식으로 대체할 것인가에 있다고 했을 때, 신라를 ‘백제화’하는 방식(견훤)과 ‘고구려화’하는 방식(궁예)의 차이가 곧 두 인물의 신라 인식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궁예가 몰락한 계기 중 하나가 ‘신라를 대하는 극단적 태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나치게 강경하여 오직 물리력을 앞세워 신라를 철저히 ‘없애고자’ 했습니다. 반대로 왕건은 신라 삼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고, 신라 중대에 일통을 열망하는 황룡사 9층탑의 건조 이념에 착안하여 개경과 서경에 7층탑과 9층탑을 세우는 등 신라의 권위를 어떻게 해서든 ‘흡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건과 같은 관심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궁예와는 달리 견훤 역시도 천년의 역사를 경험하며 축적된 ‘신라적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라를 운운한 자서명이나 존왕 발언으로서 기록에 담겼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견훤의 행적에서 종종 간취되는 ‘신라 존왕의 의’를 혹시나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3. 후삼국시대 금석문 자료에 보이는 기록들과 관련하여

고려 광종 대에 세워진 「옥룡사동진대사비」에 견훤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이 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발표자께서 조금 더 논의를 추가하여 과감하게 추론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보대사의 귀국 후 행보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하신 점에 동의합니다. 경보가 견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옥룡사동진대사비」 해당 구절이 견훤의 보호 아래 경보가 활동을 비교적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므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들로 인해 그의 비문에 견훤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 남겨질 수 있었다는 주

장이 여전히 충분히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경보는 분명 견훤정권에서 활동한 승려이지만, 고려의 후삼국 통합 이후에는 고려 태조를 만났고, 정종 대에 입적한 ‘고려’의 승려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비문의 찬술자 김정언은, 물론 발표문에서는 그의 기록 존중 자세를 거론하시긴 했지만, 주로 광종과 경종 대 활동했던 ‘고려’의 문인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고려’라는 토대를 딛고 찬술된 비문에 담긴, 고려의 창업과 수성을 방해한 주적으로서 후백제와 그를 세운 견훤에 대한 ‘우호적 시선’의 정보란, 그와 같이 새겨져 있긴 하나 그 까닭이 여전히 궁금한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김정언은 하나의 비문 안에 고려 태조의 신성한 발자취와 함께 그의 주적이었던 견훤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언급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언이 찬술한 비문은 「옥룡사동진대사비」 말고도 「고달사원종대사혜진답비」와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비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비문의 주인공인 원종대사 찬유와 법인국사 탄문은 후백제·견훤과의 접점이 없고 오히려 왕건과 밀접하게 결탁한 승려들이므로, 이 비문에 이들이 언급될 이유는 없었겠지만, 혹시 김정언이 남긴 다른 비문과의 비교·대조를 통해서 발표자의 논지를 보강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것처럼, 「옥룡사동진대사비」는 고려 초에 건립된 수많은 비문들 가운데 견훤을 긍정적으로 기술한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궁금했습니다. 발표문은 그와 같이 남겨지게 된 계기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의미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는 바가 있는지 여쭙보고자 합니다.

4. 기타

- 발표문 9쪽 43번 각주의 12번째 줄 : 견해(~~~) 등이 있. → 견해(~~~) 등이 있다.
- 발표문 13쪽의 마지막 문단 3번째 줄: 궁예·견훤 확칭에서 ‘**확칭**’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발표문 13쪽의 마지막 문단 5번째 줄: 견훤이 금산사에 유폐된 해를 **936년**에서 **935년**으로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발표문 15쪽의 마지막 문단 : 다른 비들**와** → 다른 비들**과**

글을 읽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발표문의 내용이나 발표자의 의도를 꼭해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토론자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바,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 안내

[신한은행] 100-032-168110 (예금주: 한국고대사학회)

학생회원 3만원, 일반회원 4만원, 종신회원(개인) 80만원-분납 가능

문의: 총무간사 김정환(한양대 박사과정), jhjk8831@naver.com

학술발표회장 찾아오시는 길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최명희홀



이 자료집은 전북학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고대사학회 제191회 정기학술발표회

전북 지역의 고대사

중심과 변경, 경계를 넘어